

# 襄陽文化

제33호



襄陽文化院

# 양양10경



## 1경 남대천



남대천의 발원은 오대산 두루봉이며 후천은 점봉산과 구룡령에서 발원하여 약 54Km의 하루 서문천에 합류하여 동해로 흘러가는 청정수역이다. 봄에는 바다에서 온어, 황어 가을에는 연어가 소상하고 겨울이면 시베리아서 큰고니(백조)가 찾아오는 회기 분능의 강이며 양양군민의 식수원이다.



## 6경 죽도정



죽도정은 「신증동국여지승람, 양양도호부편」에 죽도는 부 남쪽 45리 관란정 앞에 있으며 푸른 대나무가 온 섬에 가득하다. 섬 밑 바닷가에 구유같이 오목한 돌이 있는데 '등근 돌'이 그 속에 서 이리저리 구르고 달아서 오목하게 됐다'는 전설이 있으며, 최근 해변에는 수상 레저를 즐기는 마니아들로 북적인다.



## 2경 대청봉



국립공원 설악산 주봉인 대청봉(1,708m)은 서면 오색리 산반지이다. 조선 정조 때 문인 성해응의 「동국명산기」에 '그 봉우리가 높아서 높고 푸른 하늘을 만질 듯하여 그 최고 정상을 가리켜 청봉이라 이름 하였다'고 하며 정상에서 동해가 한눈에 내려다 보인다.



## 7경 남애항



남애항은 양양군에서 규모가 가장 크고 아름다운 1종 국외어항이며, 강원도 3대 미항 중에 하나이다. 조선시대에는 인근의 양간곶(襄干島)에 불수대가 있었으며, 어민정에는 마을 어민들이 직접 짚은 싱싱한 생선이 넘쳐나 많은 관광객이 찾는 여촌 체험 항이다.



## 3경 오색령



원래 이름은 소슬령所率嶺이었으나 조선 선조(1596년) 때부터 오색령(1,004m)으로 고쳐 불러졌으며, 현재 44번 국도로 영동과 영서의 분수령이다. 우리나라 아름다운 경관도로 제54선으로 선정되어 가을철이면 많은 관광객이 운집한다.



## 8경 의상대



의상대는 낙산사를 창건한 의상대사의 최선 수행처이다. 매월당 김시습이 낙산사 주지에게 보낸 시문과 단원 김홍도의 '해동명산도첩'을 미루어 볼 때 16세기 이전에 세워진 것으로 볼 수 있으며, 강원도 유형문화재 제48호와 양양군 명승 제27호로 지정된 동해 일출의 명소이다.



## 4경 주전골



오색 약수터에서 선녀탕을 거쳐 점봉산(1,424m) 서쪽 비탈에 이르는 계곡이며, 무염스님이 12세에 출가한 오색석사와 주위에 독주암, 만물상, 만경대, 선녀탕, 용소폭포, 12폭포가 있어 운치를 더해 주며 가을 단풍이 백미이다.



## 9경 오산리 선사유적 박물관



출토된 신석기 유물과 오산리 신석기인들의 생활 모습이 전시, 재현되어 있다. 볼 피운 자리가 발견된 움집터에 직접 들어가 보는 움집 체험과 깨진 빗살무늬 토기, 움집을 복원하는 퍼즐 체험 등 특별한 체험프로그램도 운영되고 있어 마치 선사시대로의 시간여행을 하는 것 같은 느낌을 준다.



## 5경 하조대



양양군 명승 제68호로 지정된 하조대는 고려 말 명관인 하윤과 조순이 한 때 은거했던 곳이라 하여 두 성을 따서 붙여진 이름이다. 기암절벽이 우뚝 솟아 있는 육각정자와 애국순은 동해 일출의 명소로, 조선 숙종 때 양양부사 이세근이 정자 안 바위에 하조대라고 쓴 암각문이 남아있다.



## 10경 양양 서핑로드



현북면~현남면 바다 일원에서는 어디에서나 검은 슈트를 입은 서퍼들이 점점이 바다를 유영하는 모습을 볼 수 있다. 수심이 얕아 초심자들이 서핑을 시작하기 적합한 항상 사람들이 북적이며 서핑의 성지라 불린다. 이 구역을 양양 서핑로드라 지명하여 10경으로 선정하였다.

# 襄陽文化

제33호

襄陽文化院



## PHOTO CLUB



제31회 강원도향토문화연구 발표대회



제43회 양양문화제 성황제



양양문화원-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협약식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제11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



문화원회원 선진지견학(관내)



강원문화대축전 수채화 전시



허억봉 대금강좌 종강식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문화학교수강생 작품전시회 테이프컷팅식



문화학교수료식

## 목차 Contents

발간사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9
신년사   양양군수 김진하	11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김의성	12
신년사   국회의원 이양수	14

### 향토사료

- 일제 수탈의 흔적 옛 동해북부선 철도의 고찰 | 양양문화부설 향토사연구소 15

### 2021 문화학교 소개

- 2021년도 문화학교 소개 및 학생 수상, 공연내역 | 편집실 38
- 2021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 편집실 46

### 양양소식지 자료(숨어있는 향토사이야기)

-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이라 흰 소의 해다. 외(1~12월) | 편집실 48



##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 입선시

- 장원, 차상, 차하, 참방, 가작 | 편집실 ----- 90

## 도자기체험 소감문

- 양양중학교 3학년 학생 ----- 114

## 양양 구석구석

- 구탄봉 및 디모테오 순례길 ----- 118

## 건강상식

- 감기, 독감, 폐렴 ----- 119

- 2021 양양문화원 언론홍보 현황 ----- 125

# 행복한 오늘, 희망찬 내일을 위해 늘 함께하는 양양새마을금고

언제나 곁에서 힘이 되어주는 든든한 이웃처럼  
믿음과 신뢰를 바탕으로 행복한 사회를 만들어나가는  
금융협동조합이 되겠습니다.



**MG양양새마을금고**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양양로 59

TEL : 033) 671-4413 , 4414

FAX : 033) 671-4415

이사장 : 김 상 우

전 무 : 이 준 희

양양양수발전소는 친환경 발전소 구현에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 홍보관(양양에너지팜) 개관시간 : 오전 9시 ~ 오후 5시

※ 견학신청 및 문의전화 : 070-4034-2344~7(무료 관람)



 한국수력원자력(주) 양양양수발전소

# 미래의천년大界 성우건설이 책임지겠습니다.



## 회사소개

- 시설물 유지관리업
- 금속구조물, 창호공사업
- 실내건축공사업

## 주요 공사업종

- 건물신축
- 리모델링공사
- 인테리어 공사



주성우건설  
SUNGWOO CONSTRUCT CO., LTD.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안산1길 70  
Tel.033-672-0401 Fax.033-672-0402  
e-mail. yesgada007@naver.com

## 발간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코로나19 방역을 위해 실시해 온 사회적 거리두기를 단계적으로 완화하여 일상을 회복하기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힘든 일상이지만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어려움이 산적한 시기에 바쁜 일정임에도 항상 양양군민들의 문화 활동을 위해 힘써주시는 김진하 양양군수님과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님을 비롯한 의원님들의 성원에 문화 가족을 대표하여 깊은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올 한해도 여러 행사 중 양양문화제는 문화행사와 체육행사를 생략하고 제례봉행만 진행하였고,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 제11회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를 대면과 비대면으로 진행하였으나 여러 지역의 확진자 발생으로 인해 진행에 어려움이 많았으며,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감염병 방지를 위해 교실별 방역과 손소독제를 비치하며 개강부터 수료식까지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강생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하며 무사히 수료식을 마쳤습니다.

그리고 선진지견학은 코로나로 인해 송이밸리자연휴양림 구탄봉 등반, 순례길 걷기를 진행하며 코로나로 힘든 일상을 건강과 힐링이 될 수 있도록 새롭게 기획하여 진행하였습니다.

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소 연구원들은 그동안 논문 발표한 자료를 "양양 향토 문화연구발표 논문집"으로 발간하고, 예부터 우리 지역에서 행해졌던 제례를



양양문화원장  
윤여준



한 곳에서 볼 수 있도록 "양양지방의 제사의식"을 발간하였으며, 양양지역의 사투리를 김성영, 이재풍 선생님께서 조사하고 그 자료는 문화원에서 "양양 방언 사전"을 편찬하였습니다.

이러한 자료들은 우리 지역의 생활문화를 볼 수 있는 좋은 자료로 활용될 것입니다. 그동안 자료조사와 도움을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의 인사를 드립니다.

문화원 회원 여러분!

양양문화원은 한 해 동안 향토문화교육, 문화학교 운영을 통해 문화예술 활동 증진에 앞장서고 있으며 우리 모두에게 받는 문화적 역량은 문화 향유를 넘어 양양의 문화발전을 이끄는 데 크게 기여하고 있다고 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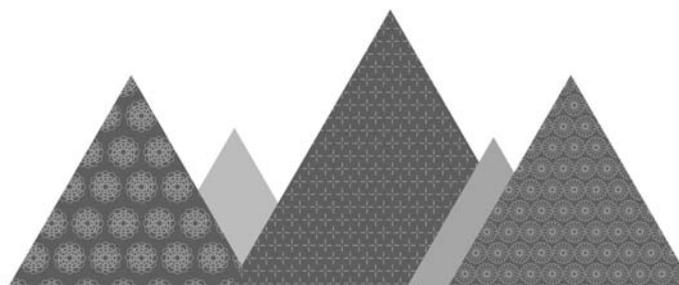
이러한 때에 문화원의 새로운 도약을 위해서 2022년은 문화원 회원의 역할이 그 어느 때보다도 중요한 해입니다. 양양문화원은 군민의 문화 학습장이며, 양양 문화가 꽃을 피우고 열매를 맺기 위한 뿌리이기 때문입니다. 문화원 가족 여러분은 문화원의 위상이며 나아가 양양군 발전의 중심이고 지도자입니다.

앞으로도 새로운 희망의 새해에는 코로나가 잠식되고 양양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문화원 회원분들이 향토문화 발전과 지역발전의 주역이 되기를 희망해봅니다.

저를 비롯한 임·직원 모두가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양양문화원과 양양군의 발전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입니다.

끝으로, 코로나로 어려운 여건과 힘든 일상이지만 슬기롭게 극복하시고 2022년 새해를 맞이하여 문화원 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 그리고 희망찬 일들만 가득하시길 기원합니다.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감사합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새로운 희망과 기대속에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힘차게 찾아올랐습니다. 새해에는 군민 모두가 활력이 넘치고, 가정마다 건강과 행복이 늘 가득하기를 바랍니다.

2021년 우리 모두는 코로나19로 힘든 시간을 보냈습니다.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잘 견뎌 주시고 아낌없는 격려와 성원을 보내 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군은 지난해 글로벌 플랫폼으로 거듭나기 위한 핵심사업의 가시적 성과로 브랜드가치를 한층 더 높였습니다.

군민 모두가 한마음으로 만들어 낸 마법 같은 이야기입니다.

양양을 사랑하는 군민여러분과 열정을 다해 뛰어준 공직자 모두의 이야기입니다.

포기하지 않고 함께 뛰다면 어떤 어려움도 이겨낼 수 있다는 믿음이 군민 모두의 가슴속 깊이 새겨졌습니다.

미래는 준비하는 자의 몫이요, 실수를 두려워하는 자는 변화를 추구하지 못한다고 합니다.

준비하는 자와 우려만 하는 자의 차이는 극명합니다. 도전하는 용기와 준비하는 노력으로 더 좋은 미래를 위해 모두의 역량을 하나로 모아야 합니다.

끝까지 함께 뛰어준 군민 여러분과 공직자의 땀과 열정에 박수를 보내며 신년에도 모두 함께 써 내려갈 마법 같은 이야기를 기대합니다.

임인년(壬寅年) 새해에도 여러분 모두의 가정과 일터에 기쁨과 행운이 넘쳐나는 한해가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감사합니다.



양 양 군 수  
김 진 하

## 신년사



양양군의회의장  
김 의 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우리 지역의 향토문화지인 「양양문화」제33호 발간을 진심으로 축하드리며, 항상 열성을 다해 우리 지역의 소중한 문화 가치를 전하시는 양양문화원 윤여준 원장님을 비롯한 관계자 여러분께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군민 여러분!

희망찬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도 군민 여러분의 가정마다 행복이 가득하고, 소망하시는 모든 일들을 이루시길 진심으로 기원드립니다.

제8대 양양군의회가 구성되고 벌써 네 번째 맞이하는 새 해가 되었습니다.

우리 의회가 군민의 대변자로서 지역 발전을 위해 일할 수 있도록 아낌없는 성원과 격려를 보내주신 군민 여러분께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2022년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 한분 한분의 목소리에 더욱 귀 기울이며, 소통하고 화합하는 열린 의정 활동을 펼치겠습니다.

지난 2년간 모두가 코로나19로 인해 힘든 나날을 보냈습니다. 변이 바이러스까지 발생하고 있어 염려할 수 없는 상황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새해에도 코로나와의 전쟁은 계속될 것이지만, 임인년(壬寅年) 힘찬 호랑이의 기상으로 모두가 힘과 지혜를 모아 함께 나아가면 머지않아 코로나를 완전히 떨쳐버리고, 우리의 활력 있는 일상을 되찾을 것이라 믿습니다.

이 같은 좋은 기운을 이어서, 새해에도 양양군의회는 군민 여러분의 삶의 질 향상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최우선 가치로 두고 군민의 행복을 위하여 힘차게 뛰겠습니다.



현안 사업 추진과 주민 복지를 위하여 여러분의 지속적인 관심과 아낌없는 조언을 부탁드립니다. 어린이부터 어르신까지 모든 군민 여러분의 입장에서 필요한 것을 세심하게 살피고 정책으로 대변하는 것이 우리 의회의 사명임을 항상 가슴에 새기며 의정활동을 펼쳐나가겠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우리에게 큰 기대와 설렘을 가져다주는 것 같습니다.

새해, 여러분 모두 건강하시고, 소망을 이루는 희망찬 한해가 되기를 다시 한 번 진심으로 기원 드립니다.

군민 여러분! 새해 복 많이 받으십시오!

감사합니다.

## 신년사



국 회 의 원  
이 양 수

존경하는 양양문화원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속초·인제·고성·양양 국회의원 이양수입니다.

‘검은 호랑이’의 해, 임인년의 새해를 맞이하게 되었습니다.

우리 모두의 일상이 하루라도 빨리 정상화되기를 바라며, 다가오는 2022년은 그 어느 때 보다 호기(虎氣)로운 한 해가 되길 기원합니다.

지역 고유의 전통문화를 발굴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항상 애써주시는 윤여준 양양문화원 원장님과 임직원 여러분께 진심 어린 존경과 감사의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 한 해 동안 「전국한시지상백일장」,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등 다채로운 행사들을 통해 전통문화 보존과 발전은 물론 다양한 문화예술 체험의 기회를 마련해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우리 양양은 선사 문화 유적, 불교·유교 문화 유적에서부터 민족의 자긍심이 담긴 3·1 만세독립운동 호국문화 유적에 이르기까지 독자적이고 훌륭한 향토문화를 형성해 왔습니다.

최근 전 세계적으로 우리나라 문화가 많은 관심과 사랑을 받고 있는 만큼, 새롭게 맞이하는 2022년에는 양양문화원 가족분들의 노력과 열정을 자양분 삼아 우리의 전통문화도 세계 속에서 더욱 빛을 발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 또한 지역의 우수한 전통문화와 예술을 널리 알리고 더욱 발전시켜 나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새해에도 여러분들의 가정에 항상 건강과 행복이 가득하시기를 기원하며, 호랑이의 용맹한 기운으로 희망찬 한 해를 시작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일제 수탈의 흔적 옛 동해북부선 철도의 고찰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

## 1. 연구의 목적

지난해 12월 23일 국토교통부는 강릉~제진(고성)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사업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이며 총사업비는 2조7,406억원, 6개역, 3개신호장으로 건설한다는 것이다. 이 철도는 2018 동계올림픽과 함께 개통된 서울~강릉 간 경강선 고속철도와 2025년 개통예정인 서울~춘천~속초로 이어지는 동서고속철도를 남북으로 연결시켜줌으로서 철도의 강원도시대를 열어 줄 것으로 기대가 되고 있는 가운데 한편으로는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에 따라 부산에서 이어지는 동해선과 연결되어 시베리아와 유럽으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시대가 열리는 것이다.

그런데 우리는 이러한 미래 희망의 시발점이 될 동해선 철도 연결 뒤에 가려진, 과거 일제 강점기에 경원선철도와 연결되어 양양의 철광석과 목재를 수탈해 실어 나르고, 6·25한국전쟁 때에는 북한이 남침을 위해 탱크 등 군수물자를 38° 선으로 실어 날랐던 민족의 한이 서린 동해북부선 철도가 양양에 있었다는 사실을 모르는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

다행히 아직은 새로운 철도노선이 확정 고시되기 전이라서 과거의 철도부지가 철도청에서 관리되고 있어 기존의 철도부지는 농로 등으로 전용되고 있으나 형상은 보존 관리되고 있어 아직은 과거 동해북부선 철도의 흔적을 찾을 수 있었고, 과거 동해북부선 철도를 이용한 경험이 있는 분들도 다수 생존하고 있어 고증을 통해 실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해안에 접한 낙산사역(강현) 부지는 이미 철도연수원으로 전용되어 있었고, 양양읍에 소재한 양양역 부지도 양양도시지역 내 일반주거지역으로 지정되어 있듯이 이미 새로운 동해북부선 철도노선이 고시된 현실에서 철도공사에서 일반에 불하되거나 전용될 수밖에 없어 옛 동해북부선 철도의

흔적은 사라질 수밖에 없으므로 이와 함께 과거 일본의 자원 수탈에 대한 기억마저도 잊혀 질 것이기에 이 시점에서 과거 동해북부선 철도의 애한(哀恨)을 체계적으로 조사 정리해 기록으로 남김으로서 후손들에게 아픈 역사를 다시는 반복하지 않도록 하고자 조사 연구를 시작하게 되었다.

## 2. 동해북부선 철도의 가설

제국주의 일본은 전쟁을 수행하기 위해 많은 양의 철과 목재를 필요로 했었고, 양양은 설악산에서 오대산에 이르는 조선시대 황장목의 보고였으며, 양양철광산은 남한 철 생산량의 95%를 점했을 만큼 생산량이 많았으므로 전쟁 중이었던 일본으로서는 매우 중요한 지역이었다.

이에 일본은 양질의 목재와 철광석을 수탈해 실어 나르기 위해서는 철도가 필요했었다.

조선총독부의 ‘조선철도 12년 계획’에 의하면 본래 이 동해북부선은 경원선(京元線)의 안변에서 동해안을 따라 강릉, 삼척, 울진, 포항까지 연장하여 동해남부선(東海南部線)을 통하여 부산까지 연결시킬 계획으로 착수된 철도였다고 기록되어 있다.<sup>1)</sup>

그러나 1928년 2월 2일 안변에서 흡곡 구간 착공을 시작으로 8개 구간으로 나누어 단계적으로 1937년 12월 1일 양양역까지 개통함으로써 192.6km 구간을 건설하는데 10년밖에 걸리지 않았다.

〈표 1〉 동해북부선 영업 개시일

구 간	안변~흡곡	흡곡~통천	통천~두백	두백~장전	장전~해금강	외금강~고성	고성~간성	간성~양양
착 수 년월일	1928. 02.02	1930. 05.06	1931. 05.01	1931. 05.01	1931. 05.01	1931. 10.19	1932. 10.11	1935. 11.28
개 업 년월일	1929. 09.11	1931. 07.21	1932. 05.21	1932. 08.01	1932. 09.16	1932. 11.01	1935. 11.01	1937. 12.01

그럼에도 양양역까지 개통한 후 8·15해방까지 8년이라는 기간이 있었음에도 양양역에서 강릉까지 40여km의 노반공사조차도 마무리 못한 점과 양양역에는 다른 역에서는 볼 수 없는 전차대[轉車臺: 기관차 방향을 돌리는 회전식 설비]과 증기기관에 물을 공급하는 물탱크, 물을 끓이는 온수시설, 석탄 야적장, 석탄재 야적장 등을 시설하였던 점에 비추어 볼 때 내적으로는 양양역을 종착역으로 한 철도였음을 쉽게 추측해 볼 수 있다.

1) 「위키백과」 동해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 1) 동해북부선 연혁

개설 연월일	개설 구간 및 운행 상황
1929. 09. 11	안변~흡곡 19.4mile 개통 : 안변역, 오계역, 상음역, 자동역, 흡곡역 개업
1930. 04. 01	영업거리를 킬로미터로 개정 (19.4mile 31.4km)
1931. 07. 21	흡곡역~통천역간 29.6km 개통 : 패천역, 송전역, 고저역, 통천역 개업
1932. 05. 21	통천역~두백역간 14.7km 개통 : 벽악역, 염성역, 두백역 개업
1932. 08. 01	북부선 두백역~장전역간 17.5km 개통 : 남애역, 정전역 개업
1932. 09. 16	북부선 장전역~외금강역간 7.8km개통 : 외금강역 개업
1932. 11. 01	북부선 외금강역~고성역간 10.4km개통 : 고성역 개업
1933. 08. 01	삼일포역 개업
1935. 11. 01	북부선 고성역~간성역간 39.3km 개통 : 초구역, 제진역, 현내역, 거진역, 간성역 개업
1937. 12. 01	북부선 간성역~양양역간 41.9km개통 : 공현진역, 문암역, 천진역, 속초역, 대포역, 낙산사역, 양양역 개업
1942	양양광산에서 채굴한 철광석을 운반하기 위한 장승역 개설
1944 .06. 15	삼일포역 폐지
1950	한국전쟁으로 인하여 영업 중지
1953. 07. 31	양양역~현내역 구간 재 개업
1963. 09. 30	간성역~현내역 구간 폐지
1965. 02. 28	속초역~간성역 구간 폐지
1967. 01. 01	양양역~속초역 구간 폐지로 전 구간 폐지

## 2) 안변 · 양양간의 철도개통

1917년부터 국유철도의 경영을 남만주철도에 위탁했던 조선총독부(朝鮮總督府)는 1925년 4월 1일 다시 직영으로 환원하고 철도망 확충을 위해 『조선철도 12년 계획』을 세웠다. 1927년부터 시작하여 1938년에 끝난 이 사업으로 5대 간선철도에서 요충지로 다시 갈라져 나오는 주요 철도가 건설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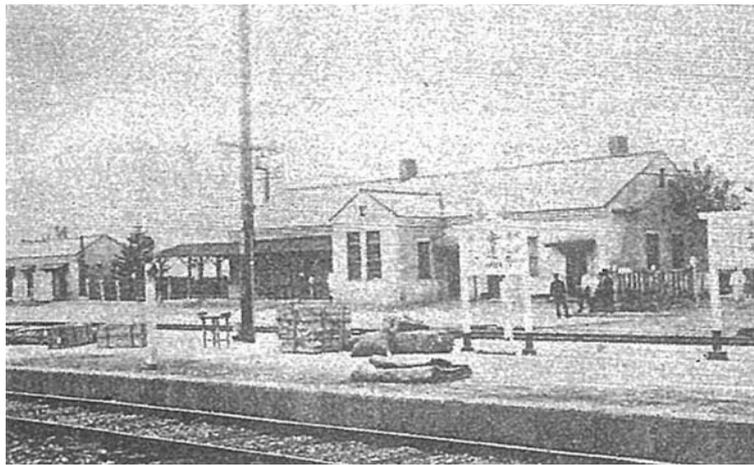
이 사업으로 건설된 노선은 도문선(회령 도문), 해산선(길주 해산), 만포선(순천 만포진), 경전선(진주 전주 원촌, 담양), 동해선(원산 포항 울산, 부산) 등이다.

동해선은 이 계획으로 신설되는 5개의 간선철도 중 하나로 동해안 일대의 어항과 강원도 일대의 광산을 개발하여 석탄, 목재, 광물, 해산물을 수송하고 부산과 원산(경원선)을 연결하는 목적으로 추진

〈그림 1〉 관보 및 안변역사



조선총독부고시  
제808호 관보



안 변 역 사

되었다. 동해선 건설은 원산 부근의 경원선 갈마역에서 안변군, 통천군, 고성군, 양양군, 강릉군, 삼척군, 울진군, 영덕군을 거쳐 영일군의 경동선 포항역에 이르는 구간을 신설하는 북부선, 경부본선 부산진역에서 동래군을 거쳐 울산군의 경동선 울산역에 이르는 구간을 신설하는 남부선, 조선철도 경동선을 국유화하여 표준궤로 개량하는 중부선으로 나누어 부산진역~갈마역간 본선과 경주역~대구역간 지선을 완성하는 사업으로 진행되었다.

1927년에 일본 제국의회의 승인을 받아 공사에 착수하였다. 동해북부선은 안변역 분기안이 제기 되어 당초 계획이었던 갈마역 분기안과 비교한 결과 1927년 5월 안변역 분기로 결정, 1928년 2월 착공하여 1929년에 안변역~흡곡역간, 1931년에 흡곡역~통천역간, 1932년에 통천역~고성역간, 1935년에 고성역~간성역간, 1937년 12월 1일 간성역에서 부터 양양역간의 철도노선이 개통되었다.

이로서 약 551km의 조선철도 12년 계획은 경전선과 동해선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완성되었다.<sup>2)</sup>

2) 「위키백과」 동해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동해선은 세 노선으로 북부선(안변~포항)과 중부선(포항~경주), 그리고 남부선(울산~부산)으로 구성된다. 남부선은 완공되어 기존의 경동선과 연결되어 부산, 포항 구간이 완전하게 개통되었다. 하지만 동해북부선은 1929년 9월 11일 안변~흡곡 사이가 개통된 후 8개 구간으로 나누어 연차적으로 착공하여 1937년 12월 1일 강원도 양양(192.6km)까지만 연결하였고 그 후 8·15해방까지 8년의 기간이 있었음에도 양양에서 강릉 구간은 노반공사도 마치지 못하고 해방을 맞이하게 된다.

동해북부선의 경원선 안변 분기점에서 시작하여 양양까지의 총 노선 192.6km의 역구간 거리와 누적 거리를 세부적으로 정리하면 아래 표와 같다.

〈표 2〉 동해북부선(안변~양양)역간거리 및 누적 거리

(단위:km)

북한 지역			남한 지역		
역명	역간거리	누적거리	역명	역간거리	누적거리
안변	0	0	제진	6.0	125.9
오계	8.9	8.9	현내	10.0	135.9
상음	6.0	14.9	거진	7.4	143.3
자동	10.3	25.2	간성	7.4	150.7
흡곡	6.2	31.4	공현진	6.7	157.4
패천	6.6	38.0	문암	5.9	163.3
송전	9.4	47.4	천진	5.9	169.2
고저	6.9	54.3	속초	6.5	175.7
통천	6.7	61.0	대포	5.8	181.5
벽양	4.1	65.1	낙산사	3.7	185.2
염성	5.1	70.2	<b>양양</b>	7.4	192.6
두백	5.5	75.4			
남애	10.5	86.2			
장전	7.0	93.2			
외금강	7.8	101.0			
삼일포	8.2	109.2			
고성	2.2	111.4			
초구	8.5	119.9			

(조선총독부철도국 「철도요람」 1939)

2) 「위키백과」 동해선, 조선총독부의 동해선 부설

### 3) 동해북부선 기차 소요시간과 승차요금

#### (1) 소요시간

양양에서 원산으로 하루에 4회 운행되었으며, 1940년 4월 1일에 개정된 양양에서 원산까지의 상행선(上行線) 열차운행 시간은 출발 시각과 기관차 종류마다 차이가 있었다.

양양에서 새벽 05시 35분에 원산으로 출발한 제1342호 기차는 8시간 50분, 아침 09시 30분에 출발한 제362호 기차는 약 7시간, 낮 12시에 출발한 제1344호 기차는 9시간이 소요되었으며, 저녁 6시 15분에 출발한 제364호 기차는 6시간 30분이 소요되었다.

〈표 3〉 양양·원산행 상행선 승차 요금 및 기차시간표 (1940.4.1.개정)

이등	삼등	역		360호	1342호	362호	1344호	364호
圓錢	圓錢	양 양	발	-	05:35	09:30	12:00	18:15
0.51	0.25	속 초	"	-	06:12	09:59	12:41	18:44
0.71	0.40	천진리	"	-	06:23	10:09	12:52	18:54
1.00	0.55	공현진	"	-	06:41	10:33	13:19	19:18
1.20	0.68	간 성	"	-	07:05	10:47	13:43	19:32
1.40	0.78	거 진	"	-	07:23	10:55	14:01	19:43
1.60	0.88	현 내	"	-	07:38	11:19	14:14	19:54
2.05	1.13	초 구	"	-	08:03	11:34	14:49	20:19
2.30	1.30	고 성	착	-	08:20	11:48	15:04	20:31
			발	04:00	08:39	12:05	15:40	20:41
2.60	1.45	외금강	"	04:18	09:01	12:26	16:05	21:01
2.80	1.55	장 전	"	04:30	09:24	12:48	16:37	21:14
3.00	1.65	남 애	"	04:41	09:37	13:00	16:50	21:25
3.10	2.05	통 천	"	05:28	10:36	13:56	17:48	22:12
3.50	2.12	고 저	착	05:39	10:50	14:09	18:02	22:23
			발	05:40	10:55	14:11	18:07	22:24
4.10	2.25	송 전	"	05:55	11:10	14:29	18:23	22:37



이등	삼등	역		360호	1342호	362호	1344호	364호
4.55	2.50	흡 곡	"	06:21	11:47	14:58	19:04	23:05
5.40	3.00	안 변	착	07:10	12:40	15:54	20:02	23:54
			발	07:15	13:10	16:05	20:32	00:16
5.55	3.05	배 화	"	07:28	13:24	16:17	20:41	00:24
5.75	3.20	갈 마	"	07:38	13:45	16:27	20:52	00:35
5.85	3.25	원 산	착	07:46	13:51	16:32	21:00	00:42
		소요시간			약8시간 50분	약7시간	9시간	약6시간 30분

〈표 4〉 원산·양양간 하행선 승차 임금 및 기차시간표 (1944.10.1.개정)

이등	삼등	역명		1789호	2·3	1788호	2·3	1785호
					773호		771호	
圓錢	圓錢	원 산	발	-	06:35	09:05	14:10	18:25
0.35	0.15	갈 마	"	-	06:46	09:24	14:18	18:34
0.80	0.35	배 화	"	-	06:57	09:37	14:29	18:52
1.10	0.45	안 변	착	-	07:05	09:45	14:36	19:00
			발	-	07:32	10:10	14:50	19:20
1.80	0.80	오 계	"	-	07:47	10:26	15:05	19:33
2.20	1.00	상 음	"	-	08:00	10:44	15:18	19:48
2.40	1.30	자 동	"	-	08:17	11:04	15:35	20:05
3.30	1.50	흡 곡	"	-	08:36	11:25	15:52	20:26
3.70	1.70	패 천	"	-	08:49	11:39	16:09	20:39
4.40	2.00	송 전	"	-	09:02	11:55	16:20	20:53
4.80	2.20	고 저	착	-	09:19	12:10	16:35	21:08
			발	-	09:20	12:15	16:36	21:09

이등	삼등	역명		1789호	2·3	1788호	2·3	1785호
					773호		771호	
5.50	2.40	통 천	"	-	09:42	12:45	16:56	21:30
6.00	2.50	벽 양	"	-	09:50	12:53	17:04	21:38
6.00	2.70	염 성	"	-	10:01	13:05	17:15	21:49
6.50	2.90	두 백	"	-	10:11	13:16	17:25	21:59
7.00	3.20	남 애	"	-	10:30	13:36	17:44	22:18
7.50	3.40	장 전	"	-	10:46	14:00	17:58	22:32
8.50	3.60	외금강	착	-	11:04	14:18	18:16	22:51
			발	-	11:05	14:20	18:17	22:52
9.00	4.00	고 성	착	-	11:23	14:38	18:35	23:10
			발	05:00	11:35	10:00	18:55	-
9.50	4.20	초 구	"	05:17	11:51	15:17	19:11	-
10.00	4.40	제 진	"	05:28	12:02	15:29	19:22	-
10.50	4.70	현 내	"	05:48	12:22	15:50	19:42	-
11.00	4.90	거 진	"	06:04	12:35	16:10	19:55	-
11.50	5.50	간 성	"	06:20	12:52	16:35	20:12	-
11.50	5.50	공현진	"	06:33	13:05	16:49	20:25	-
12.05	5.50	문 암	"	06:45	13:17	17:02	20:37	-
13.00	8.00	천 진	"	06:58	13:30	17:16	20:50	-
13.50	8.00	속 초	"	07:12	13:42	17:34	21:02	-
14.00	6.50	대 포	"	07:24	13:54	17:47	21:14	-
14.00	6.50	낙산사	"	07:32	14:02	17:58	21:22	-
14.50	6.50	양 양	착	07:45	14:15	18:10	21:35	-



## (2) 승차요금

기차 승차 요금은 1940년 4월 1일에 개정된 표에 의하면 양양에서 원산까지 당시 화폐기준으로 2등석이 5원 85전, 3등석 요금은 3원 25전으로 양양에서 원산까지의 상행선 기차 시간과 기차요금은 <표 3>과 같으며, 1944년 10월 1일에 개정된 원산에서 양양까지의 하행선 기차요금은 2등석이 14원 50전 3등석이 6원 50전으로 <표 4>와 같다.

## (3) 구간 역

동해북부선 안변에서 양양까지 거리는 192.6km이며 안변역과 양양역까지 사이의 구간 역은 안변군 오계, 상음, 자동, 흡곡, 패천, 통천군 송전, 고저, 통천, 벽양, 염성, 두백, 남애, 장전, 외금강, 삼일포, 고성군 고성, 초구, 제진, 현내, 거진, 간성, 양양군 공현진, 문암, 천진, 속초, 대포, 낙산사역까지 27개역이 있었다. 당시 공현진, 문암, 천진, 속초, 대포역은 양양군 관할이었다.



<그림 2> 원산 역사 모습

## 4) 철도부설로 인한 사회·경제적 변화

철도 부설은 철도 연선의 사회·경제에 커다란 변화를 가져왔다. 철도의 개통과 더불어 전선 각역에서 소운송업이 우후죽순처럼 생겨난 것도 그러한 현상의 하나였다. 소운송업은 철도와 함께 출연하여 철도를 매개로 활동하였던 새로운 교통운수업이었다. 그리고 소자본으로도 비교적 자유롭게 경영할 수 있는 업종이었기 때문에 철도를 따라 침투해 왔던 일본인 자본과 객주, 여객 등으로부터 전환한 한국인 자본이 대거 진출하였다. 1926년 무렵 전선 각역에는 1,566점의 소 운송업자가 활동하고 있었다. 그 중에서 한국인 업자는 1,080점(69%)이나 되었다.<sup>3)</sup>

3) 『일제침략과 한국철도』 정재정, 201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조선총독부의 소운송업 통제 정책은 민족적 편향과 차별성을 띠고 전개되었다. 왜냐하면 영세 소운송업자의 대다수는 한국인이었고 대규모 운송업자의 대다수는 일본인이었기 때문에 조선총독부의 대자본 위주의 통합정책은 한국인 업자의 호구지책을 박탈하는 것과 마찬가지였다. 그리하여 한국인 업자와 하주들은 이해관계가 일치하는 일부 일본인 업자와 연합하여 조선총독부의 통합정책에 끈질기게 저항하였다.

기차가 개통되기 전에는 동해안의 소금이나 소금에 절인 생선을 지고 영을 넘어 영서지방에 가서 곡식을 바꾸어오던 보부상이 성행하였으나 열차가 개통되면서 사람들은 소자본으로 기차를 이용하여 동해안의 생선을 싣고 중국 만주까지 가서 팔고 돌아 올 때는 그 지방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나 농산물을 싣고 와서 장사하는 사람들이 생겨나기 시작하여 새로운 부자가 생겨나고 상업이 활발해졌다. 또한 양양의 철광석과 목재를 운반하기 위한 열차 운행이 큰 역할을 하였다. 역 주변에는 여관이나 상점이 생겨나서 역 주변에는 새로운 거리가 생겨났다.

해안지방으로 인구도 적고 산업이나 군사적인 면에서도 중요성이 낮았지만 금강산을 비롯한 몇 개의 관광지가 있었기 때문에 일요일이나 공휴일의 전날에 경성역(서울)에서 야간열차가 운행되기도 하였고, 강릉 삼척 울진지방에서 경성으로 가기 위하여 양양역에 많은 사람이 북적거렸다.

### 3. 동해북부선 종착지 양양역의 실상

#### 1) 양양역의 개통

양양역이 개통되자 양양역을 중심으로 단층 건물로 지어진 역사에는 역장과 역무원 및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명의 인원이 종사했고, 이들이 기거하는 관사는 청곡리에 10동이 있었다.

역 주변에는 양양광업소에서 속칭 솔개미차(삭도)로 반출한 철광석을 보관하는 조구통과, 산지에서 운반되어온 통나무를 보관하는 야적장과 쌀을 비롯한 곡물과 일반화물 창고가 역 주변에 여러 동 있었고, 증기기관차에 쓸 석탄의 야적장과 사용한 석탄재를 버리는 하치장도 있었다.

기차를 이용하려는 유동 인구가 날이 갈수록 늘어남에 따라서 역 광장 주변에는 음식점, 주점, 매점 등의 상점들이 크게 늘어났다.

이에 따라 역에는 기차를 이용하려는 외지승객과 현지승객들이 증가하다보니 상가가 들어서 물건을 사려는 사람들과 짐을 옮기는 사람들로 북적거리며 역 주변에는 기차를 일상적으로 이용하는 주변



거주자가 늘어나면서 역세권(驛勢圈)이 형성되었다.

### (1) 이용승객 급증

영동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육상 교통수단인 목탄차보다 동해북부선의 기차를 더 많이 이용하였다.

양양역은 영동지방에서 원산을 거쳐 서울로 가는 상행선 출발역이고, 원산에서 영동지방으로 내려오는 하행선의 종착역이었다.

이 당시에는 양양 이남 강릉, 삼척, 울진 등지의 주민이 가장 빨리 서울로 가려면 양양역에서 기차를 타고 원산에서 환승하여 경성(서울)에 도착하는 것이었다.

양양역이 개업하자 이 역을 이용하는 여객은 서울로 가고 오는 사람, 특히 금강산 수학여행 학생들과 관광객이 많았다. 유학생과 통학생들, 원산의 큰 병원에 가는 환자와 가족 보따리 장사를 하러 다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양양역을 이용하였고, 간혹 일자리를 찾아 중국 간도나 만주지방으로 가는 이주민들도 있었다.

1940년과 1944년인 당시 기준으로 새벽에 양양역을 출발하는 첫 차를 시작으로 오전, 오후, 저녁 등 하루 4차례 운행했던 열차는 원산으로 유학하거나 통학 거리에 있는 학생들은 통학수단으로 활용되기도 했다.

1938년 1월 22일 자 동아일보에 “襄陽驛에 旅客洪水”라는 기사를 보면 다음과 같다.

“동해북부선 간성~양양간 연장 개통 이래 양양역에서 타고 내리는 여객이 매일 평균 500명 이상으로 신설되고 초 기록을 세우고 있다는데 대합실이 협착(狹窄)하여 기차 발착 시간에는 실내외에 여객의 홍수를 이루고 있다며 …… 대총(大摠) 양양역장은 신설된 역으로서 여객이 많은데 나도 놀랐습니다.”고 하고 있다.



〈그림 3〉 1938년 1월 22일자 동아일보【襄陽驛에 旅客洪水】기사

이와 같이 몰려드는 유동인구의 증가로 역사 일대 주변에는 많은 여관과 식당들이 준비하여 역 광

장과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거리가 조성되었다.

특히 타지방에서 온 외지 고객들은 역세권 주변의 숙박시설이 모자라 양양읍내 여관에 까지 숙박했는데, 양양역에서 읍내 여관까지는 2km 정도 거리에 있었다.

## (2) 화물량 증가

양양역에는 양양광산에서 채굴되는 철광석 집하장인 조구통과 백두대간에서 실려 오는 목재를 임시로 쌓아놓는 2개소의 목재집하장이 있었다. 1933년 개발된 양양 철광산에서 1941년경부터 속칭 솔개미차(삭도)를 이용하여 양양역의 조구통까지 철광석을 운반한 다음 양양역에서 출발하는 화물칸에는 양양광산에서 채굴한 자철광이 가득 실려서 흥남제철소로 갔다.

한반도의 동해안을 따라 달리는 중단철도 동해북부선은 양양역에서 15~20량 정도의 객차와 화물칸이 함께 운행되었다.

1942년경부터는 양양역에서 광업소까지의 기차철로를 놓아 양양광산에서 바로 기차로 싣고 갔다. 또한 속초역에서는 기관차 화물칸 1량에 청어와 명태를 싣고 동해북부선을 이용하여 멀리 중국까지 가서 장사를 하였다고 한다.

또한 양양지역 산지에서 생산된 목재가 우차꾼들에 의하여 10대씩 줄지어 운반되어오면 목도꾼들에 의하여 목재가 야적장에 산더미처럼 쌓여 당시 양양역에 목재사태(木材沙汰)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신문기사에 날 정도로 양양역 구내에는 물론 구외까지 목재가 산처럼 쌓여져 있는 것을 처음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금치 못하게 하였다.

앞서 1938년 1월 22일자 ‘襄陽驛에 旅客洪水’ 라는 제목의 동아일보 기사에도 양양주요산물에 하나인 목재는 역 구내에는 물론 역 부근까지 산적하여 매일같이 장전(長箭), 원산(元山), 경성(京城)방면으로 운송하는 중으로 각 방면으로 불경기인 요즈음 다만 철도만이 흑자경기를 보이고 있는데 대하여 대총(大摠) 양양역장은 신설된 역으로서 여객과 화물이 이렇게 많아서 나도 놀랐다. 그리고 대합실이 좁아서 여간 곤란하지 않은데 이것은 당초에 건설계에서 양양을 너무 조그마하게 본 관찰 부족이라 했다.

1938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 ‘襄陽驛에 木材沙汰’ 라는 기사 내용을 살펴보면 곡산, 수산과



〈그림 4〉 1938년 6월 13일자 동아일보【襄陽驛에 木材沙汰】기사



함께 양양 3대 산물에 하나인 임산(林産)은 1년간 반출통계가 아래와 같았는데 이것은 사유림에서 벌채되었는데 강릉영림서(江陵營林署) 작업장 통계와 합한다면 전 조선에서 첫째를 꼽는 임산지로 현재 양양역에는 구 내외에 목재사태가 나서 누구나 처음 보는 사람들로 하여금 놀랄 만 하다는 기사가 실렸는데 목재생산에 대한 내역은 산림 벌채지시가 1,367건, 통나무 본수가 267,085본, 통나무 재속이 20,652m<sup>3</sup>으로 집계되었다.

## 4. 동해북부선의 최종 목적지 양양철광산

### 1) 연혁

- 1933년 일본 석정(石井)광업소에서 개발 착수.
- 1937년 8월 일본인 광업권 설정 등록.
- 1938년 7월 일본 종연(種淵)공업주식회사 2,000만圓에 매수 채굴.
- 1939년 3월 일본 중윤실업(주) 이전 등록 후 해방 전까지 철광석 생산.
- 1945년 8월 해방 후 북한에서 채굴.
- 1953년 국유편입.
- 1955년 8월 수복 후 제1군사령부 공병부에서 개발.
- 1955년 12월 양양철광공사로 발족.
- 1963년 11월 대한철광(주) 이전등록
- 1967년 2월 국영에서 민영화(삼미개발주식회사)
- 1987년 2월 대한철광주식회사로 창립.
- 1995년 생산중단으로 폐광.

### 2) 채광

초창기 양양 광업소에서는 주로 서선리 탐동에서 철을 많이 생산하였는데 당시 탐동에서는 곱흙만 걷어내고 발파만 하면 철광석이 나오는 노천 채굴 광산이었다.

이때부터 일제는 본격적으로 채광을 시작하였는데, 이곳에 자철 함유량이 50~80%인 양질의 철광석이 대량으로 매장되었음을 발견하고 전쟁무기 조달을 위하여 양양역을 개통한 후부터 철광석을 반출하기 시작하였으며 1941년부터는 삭도(속칭 슬개미차)를 가설하여 철광석을 광산에서 양양역까지

운송하였고, 1942년부터는 광산까지 레일을 깔아 화차로 양양역으로 운반한 다음 동해북부선철도를 이용하여 제련소가 있는 흥남으로 반출하였다.

일제가 광산에서 철을 한창 채굴할 무렵 광산지역에는 광업소 종사자들을 포함해서 무려 3만 여명이나 되는 인구가 살았으며, 탐동에도 약 5,000여명이 살았는데 이들은 탐동계곡 옆으로 지어진 여러 곳의 사택에서 광업소 종사자들은 가족들과 함께 집단생활을 하며 살았다.

이 사택들은 거마리 단지골에서 한 아름이 넘는 소나무들을 베어 집을 지었는데, 그 나무들이 얼마나 무거웠던지 우차에 한 토막씩만을 싣고 탐동으로 옮겨 각재 및 판자를 깨어서 사택을 지었다.

### 3) 철도 부설

일제는 태평양전쟁이 일어난 1941년부터 질 좋은 양양 자철광을 대량으로 수송하기 위하여 양양역에서부터 서면 장승리 광업소까지 철도를 개설하기 시작했다.

철도가 개설되기 전에는 삭도(케이블카:속칭 솔개미차)를 이용하여 철을 양양역까지 운반하게 되었다.

그 당시 삭도 시설과 양양역에서부터 광산까지 철길 노반공사를 조성하는데 서선리 탐동 계곡에서부터 흐르는 서선리 마을 앞의 안경다리 공사가 난공사였는데 이 공사에는 주로 전라도사람들로 구성된 보급대원들이 투입되었다.

지금은 안경다리가 철거되었지만 당시 보국대원들이 믹서기를 이용하여 콘크리트를 타설했는데, 이때 서선리 사람들은 개울에 있는 돌 자갈 주어 속칭 학꼬띠기를 해서 돈을 조금씩 벌기도 하였다.

또한 안경다리공사는 철근 대신 광산에서 사용하다가 다 닳고 못쓰게 된 와이어를 사용하였으며 4명이 1조가 되어 산을 깎아내고 흙을 파서 손수레로 운반하여 상자에 넣고 다졌으며 공사에 동원된 보국대원들은 서선리 마을에 있는 함바집에서 숙식을 하였다.

### 4) 기차 운행

1942년 9월경 양양광업소에 기차가 개통되었다. 광업소 구내에 장승역이 들어서면서 양양에서 광산까지 기차가 하루 2차례 왕복하였다.

광산에서 양양역으로 철광석을 실은 화차는 양양역에서 출발하는 동해북부선의 객차와 화물칸에 이어 달아서 바로 운행될 수 있었다.

광산역(장승리역)에서 운행되는 기차에는 객차도 2량이 달려있어 이 객차에는 주로 광업소 종사원과 그 가족과 그리고 광산 주변의 주민들도 이용하였다.



양양역에서 기차가 광산으로 올라와 방향을 바꾸어 다시 양양역으로 내려 갈 때에는 기차 앞부분인 기관차를 지금 광산 굴에서 조금 더 내려와서 후진으로 올라갔는데 이때 사람들이 직접 회전대 손잡이를 잡고 돌려서 기관차를 돌렸다.

당시 양양광산은 밤이 되면 복선으로 설치되었던 철로변 주위에는 항상 불을 환하게 밝혔으며, 역무원들이 수신호용으로 커다란 간드레(candle)를 흔들며 빨간불과 파란불을 번쩍거리며 사고방지를 위하여 주변경계를 삼엄하게 했다.

철도가 광산까지 개통되기 이전에는 양양역까지 철광석 운반은 삭도(속칭:솔개미차)를 이용하였다.

1941년경부터 삭도에 광석을 싣고 장승리 광산에서 거마리와 내곡리 모로골을 지나 청곡리를 경유해서 송암리에 도착하여 양양역 설치한 조구통에 쏟아 놓은 후 화물차에 옮겨 싣고 동해북부선의 객차 뒤에 화물칸을 이어 달아서 15~20량 정도가 운행되었다.

삭도는 10~20m의 높이의 한 아름 되는 나무에 검은 기름을 칠하여 탑과의 거리는 지형에 따라 50m 또는 70~80m 간격으로 세웠으며, 로프에 매달려 가는 솔개미차와의 서로간의 거리는 약 50여 m 간격으로 운행되었으며 운행속도는 느린 속도로 천천히 움직였으며 소음이 심했다.

동력은 영월 화력발전소에서 끌어온 전기를 사용하였으며, 바가지에 철을 실어 하루에 1~2회씩 24시간 운행하였으며 철광석을 실은 기차는 1일 1~2회 5~7량을 운행하였다.

## 5. 해방 이후 동해북부선 철도와 양양

8·15해방으로 양양이 남북으로 갈라지면서 그나마 진행 중이던 양양~강릉간의 노반공사도 중단됨으로서 동해북부선은 이름 그대로 동해 북부인 북한에서만 운행하는 기차가 됐다. 하지만 양양철광산은 38°선 이북에 위치하여 동해북부선 철로를 이용하여 흥남제련소로 계속 운반되었다.

뿐만 아니라 북한은 6·25 기습남침을 위하여 야간에 이 선로를 이용하여 탱크 등 수많은 전쟁 물자를 비밀리에 실어 나르는데 활용하기도 하였다.

6·25전쟁 중에는 기간 시설물인 탓에 유엔군의 함포 등의 집중 폭격을 맞고 역사(驛舍)와 철로가 완전히 파괴되었다.

이후 휴전과 함께 1953년 수복지역인 고성~양양구간은 영업을 재개했으나 서류상의 부활이었고, 1967년 공식 폐역이 될 때까지 열차운행은 이뤄지지 않았다. 이로서 이러한 애환을 간직한 양양역은 역사 속으로 사라졌다.

## 1) 양양역

1937년 12월 1일 개통한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은 현재 역사(驛舍:대합실), 플랫폼, 관리사무소(管理事務所), 철광석 집하장인 조구통, 어름창고 등은 아직도 기초 시멘트 구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고, 양양역에 인접한 산(뱀재산) 위에는 기차 운행당시에 사용하였던 물탱크가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 있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그 산 아래에는 기차에서 온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대우는 가마시설과 물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한 급수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도 있었다.

그리고 현재 양양역 주변은 대부분 농지와 농로 그리고 일반 사업시설이 들어서 있고, 당시 기차가 다니던 철로는 청곡2리에서 양양역이 위치해 있던 송암리를 지나 연창리를 경유하여 양양시내로 왕래하는 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5〉 양양역 부대시설 배치도



당시 동해북부선은 영동지역 주민들이 원산을 경유 경원선을 통하여 서울을 왕래하기 위한 출발지역과 종착역이었던 양양역은 기차를 돌릴 수 있는 철로가 여러 개 있을 정도로 규모도 제법 큰 편에 속했으며, 역 광장 앞의 현 7번국도인 동해대로 건너편에는 여관과 창고 그리고 경찰주재소 건물이 있었다.

양양역이 개통되자 동해안의 영동지방에서 생활하는 사람들은 서울과 금강산을 가려는 사람들, 공부를 하는 학생들, 장사를 하러 다니는 등 많은 사람들이 양양역에 몰려 역사 일대 주변에는 많은 여관과 식당들이 즐비하여 역 광장과 주변에는 항상 활기가 넘치는 장소가 되었다.

또한 양양역에서는 양양광산에서 채굴되는 철광석과 이 지역 산지에서 생산된 목재를 가득 실은 기관차가 원산방면으로 운행하였고, 증기기관차에서 석탄을 사용하는 석탄과 기관차에서 남은 석탄재 야적장이 있었으며, 또한 우차로 운반되어 온 목재 야적장이 있었는데, 이때 땀감으로 사용하려고 솔딱지(소나무 껍질)를 벗기려고 주변 동네사람들이 모여들어 북새통을 이루기도 하였다.

당시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에는 역장을 비롯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명에 가까운 인원이 근무를 했고, 청곡2리에는 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이용하는 관사도 10동이 있었으며, 역 주변에는 여러 동의 창고와 기관차를 넣어 두거나 수리하는 기관고(機關庫)가 있었다.

1937년 12월1일 개통된 동해북부선의 양양역은 현재 역사(驛舍:대합실), 플랫폼, 관리사무소, 창고, 어름창고, 그리고 속칭 솔개미차(삭도)로 양양광업소에서 실어온 철광석을 쏟아 부은 집하장인 조구통 등은 아직도 기초 시멘트 구조물 등의 흔적이 남아있다.

양양역 부대시설로 유일하게 아직도 원형 그대로 남아있는 시설이 있는데 양양역에 인접한 해발 38.5m인 뱀재산 위에는 기차가 운행할 당시에 사용했던 약140여 톤의 물을 저장할 수 있는 물탱크 시설이 있다.

물탱크 입구 구조물은 가로1.4m 세로1.4m로 물탱크실로 내려가려고 ㄷ자로 만든 철근 손잡이가 있으며, 물탱크 내부 규격과 면적은 가로 6.2m 세로 5.8m로 약11평이고, 높이가 4m로 물탱크 실은 칸막이형식으로 두 개로 나누어져 있는 중심부분에 ㄷ자 형태로 홈을 내어 발로 밟고 내려가도록 만들었다.

그 밖에 흔적은 남아있지 않지만 뱀재산 밑에는 기차에서 온수를 사용하려고 물을 데우던 가마시설과 물을 용이하게 공급하기 위하여 급수탑 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으며, 그 옆에는 우물이 있었는데 이 우물에서 펌프시설을 이용해 뱀재산 위에 있는 물탱크로 물을 뽑아 올렸다.

당시 열차는 증기기관차로서 운행 중 증발하는 물을 보충하여야 하였던바 양양역에 대형 물탱크와 물을 데우던 가마시설까지 시설하였다는 점, 그리고 안변~양양구간 192.6km를 8개 구간으로 나누어 1~2년에 1구간이상 개통하였음에도 1937년 양양역 개통이후에는 해방까지 8년간 한구간도 개통하지 못한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조선총독부 조선철도 12년 계획에는 동해선을 부산까지 연결하는

것으로 되어 있었으나 내심 양양역이 철광석 수탈을 위한 종착역으로 정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그리고 증기기관차에서 사용하는 석탄 야적장과 석탄재 하치장이 있었으며, 우차(牛車)로 운반되어 온 목재 야적장이 여러 군데 있었는데, 이때 땀감으로 사용하려고 솔 딱지를 벗기려고 동네 사람들이 모여 북새통을 이뤘으니 당시 서민 가정의 어려웠던 연료 사정을 짐작케 한다.

역내에 주요시설인 기관차를 수리 점검하는 기관고(機關庫)가 있었으며, 양양역이 종착역이므로 역내에 약 6~7가닥의 기차 레일이 있었으며 기관차의 앞뒤 방향을 돌리는 전차대(轉車臺)가 있었다.

단층 건물로 지어져 있던 양양역의 대합실에는 기차표를 사는 창구가 3군데나 있을 정도로 그 규모가 컸으며 역사(驛舍)에는 역장을 비롯하여 선로반, 기관부 직원 등 100여 명의 인원이 근무했었는데 청곡2리에 역장을 비롯한 직원들이 사용하는 사택 10동과 역 주변에는 여러 동의 창고가 있었고, 현 7번국도 건너편에는 손님들을 위한 여관 건물 3동과 창고(해방 후 비료창고)가 있었고 그 옆에는 경찰주재소가 있었다.

## 2) 낙산사역

낙산사역은 강현면 정암리 952번지 일대로 이곳에서는 서쪽으로는 설악산 대청봉과 장산별판(짐미뜰)이 남쪽으로는 낙산사가 북쪽으로는 대포항이 바라다 보이는 해안가 절경지에 위치하고 있다.

북쪽에 플랫폼과 목재 및 명태 적하장이 있었고 중앙에 역사와 대합실이 남쪽에 관사가 한 줄로 배열되어 있었다.

6·25전쟁 때 많은 마초가 쌓여있었는데 유엔군의 폭격으로 파괴 소실된 후에도 오랫동안 승강장 플랫폼과 대합실 등 건물 흔적이 남아있고 인근 농민들이 주위를 농지로 개간하여 경작하였으나 90년대 민간이 임대받아 벽돌공장을 운영하였으며 2009년 6월 낙산연수원이 개원하면서 현재는 흔적마저 거의 사라진 상태이다.



〈그림 6〉 낙산사역 부대시설 배치도



### 3) 기타 동해북부선 철도의 흔적들

양양군 관내에 남아있는 동해북부선의 터널은 5개소로 붕괴되거나 붕괴우려가 있는 3개소는 폐쇄되었고, 1개소는 철거되었으며, 1개소는 마을간 연결도로로 사용되고 있다.

하천내 교각시설은 55개가 있었는데 하천 유수 장애시설로 2006년 철도공사에서 모두 철거하였으며, 교대와 암거시설은 25개소로 5개소는 철거되어 현재 20개소가 남아있다. (위치별 내역 별첨《기타자료》)

## 6. 맺는 말

현재 많은 분들이 영동지방으로 이어지는 철도는 영월~태백~동해를 거쳐 강릉으로 이어지는 영동선 철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으나 이 보다 앞선 시기에 함흥에서 금강산~양양으로 이어지는 동해북부선 철도가 있었다는 사실은 모르고 있다.

뿐만 아니라 이 동해북부선 철도가 일제강점기시대에는 양양철광석과 목재를 수탈하는 철도로, 6·25한국전쟁 때에는 탱크 등 군수물자를 운반하는데 사용된 민족애한의 철도로 사용되었다는 사실은 더더욱 모르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12월 23일 강릉~제진(고성)간 철도건설사업 기본계획을 고시하였다. 공사기간은 올해부터 2027년까지 7년간이다.

이 철도는 2018동계올림픽 당시 이미 개통된 서울~강릉간 고속전철(경강선)에 이어 2025년 개통 예정인 서울~속초간 고속전철을 남북으로 연결시켜주는 강원도 순환 철도의 역할과 함께 유라시아 이니셔티브 사업에 따라 부산에서 이어지는 동해선과 연결되어 시베리아철도와 유럽철도로 이어지는 대륙철도의 시대를 열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그 때가 되면 우리 민족사에 한이 서린 옛 동해북부선 철도는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판단 하에 우리 양양문화원부설 향토사연구소에서는 지난해 1년간 현장을 답사하고, 자료를 수집하고, 증언을 통하여 자료를 정리하고 금번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회에서 발표하기에 이르렀다.

이 연구논문이 철도박물관에도 영구히 기록으로 남아 동해북부선 철도의 역사적 애환을 함께 기억해 주길 바란다.

## 【참 고 자 료】

### • 참고문헌

『한국철도 100년사』 철도청. 1999. 철도청장

『일제침략과 한국철도(1892~1945)』 정재정. 2013.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철도박물관도록』 한국철도. 2002. 철도청홍보담당관실

『양양철광산의문화사』 양양문화원. 2012. 대양프리컴

『동해북부선철도와 연계된 금강산관광 고찰』 김광섭. 강원도향토문화연구발표논문. 2017. 강원도 문화원협회

### • 검색자료

국립중앙도서관홈페이지, 한국사데이터베이스, 한국역사정보통합시스템, 조선총독 부관보활용 시스템, 위키백과, 두산백과, 나무위키

### • 증언

김광용, 김상환, 김세열, 김영규, 김재호, 김정자, 김찬수, 김충호, 김홍식, 서유탉, 서춘식, 손인호, 이건욱, 이달형, 이복희, 이상경, 이상준, 이순형, 이종우, 이찬녀, 장재천, 장용진, 전한기, 채복성, 추종삼, 최종원

### • 사진

국가철도공단 강원본부(2006년 철거 교각 및 교대 사진자료 제공)



## 《기타자료》

### (1) 교대 및 암거시설 현황

순번	소재지	시설명	비고
1	속초시 대포동	설악산 입구 하도문천 암거	
2	속초시 대포동	쌍천 북쪽 교대	
3	강현면 정암리	정암리 소하천 교대 2개	
4	강현면 용호리	용호리 입구 북쪽 암거	
5	강현면 용호리	용호리입구 남쪽 암거	
6	양양읍 조산리	조산리 포월천 교대 2개	
7	양양읍 청곡리	감곡리 입구 청곡교 교대 2개	
8	손양면 송현리	남대천 송현리 교대	
9	손양면 금강리	금강리 암거	
10	손양면 금강리	금강리 철교 구조물	
11	손양면 도화리	도화리 암거	
12	손양면 상운리	상운리 동호천 남쪽 교대	
13	손양면 상운리	상운리 여운포천 교대 2개	
14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북쪽 교대	
15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남쪽 철교 구조물	
16	현북면 하광정리	만세고개 암거	
17	현남면 북분리	북분교 교대 2개	
18	현남면 인구리	해송천 교대 2개	
19	현남면 광진리	매호천 교대 2개	
20	현남면 원포리	화상천 교대 2개	
21	강현면 물치리	쌍천 남쪽 교대	2006년 철거
22	강현면 물치리	물치천 교대 2개	"
23	강현면 답 리	주청천 교대 2개	"
24	양양읍 연창리	남대천 북쪽 교대	"
25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남쪽 교대	"

(2) 교각·터널시설 및 역 부지 현황

【교각 시설】

순번	소재지	시설명	비고
1	강현면 물치리	쌍천 교각 15개	2006년 철거
2	강현면 물치리	물치천 교각 7개	"
3	양양읍 연창리	남대천 교각 21개	"
4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천 교각 3개	"
5	현남면 인구리	해송천 교각 3개	"
6	현남면 광진리	포매천 교각 3개	"
7	현남면 원포리	화상천 교각 3개	"
	합계	55개	

【터널 시설】

순번	소재지	시설명	비고
1	서면 장승리	광업소 입구 터널	폐쇄
2	서면 장승리 ~ 양양읍 거마리	서면 장승리 큰 터널	폐쇄
3	손양면 도화리	도화리 터널	폐쇄
4	손양면 동호리	동호리 터널	매몰
5	서면 서선리	서선리 안경굴	철거



**【역 부지】**

순번	소재지	시설명	비고
1	강현면 정암리 낙산사역	플랫폼 일부 흔적만 존재 함	당시 사용
2	양양읍 송암리 양양역	물탱크 및 여러 시설 흔적이 있음	"
3	손양면 도화리 도화역	역부지 터에 옹벽시설 원형이 남아있음	터만 조성
4	현북면 하광정리 광정역	역부지 터만 확인 됨	"
5	현남면 시변리 시변역	역부지 터만 확인 됨	"
6	현남면 지경리 임호정역	역부지 터만 확인 됨	"

# 2021 문화학교 소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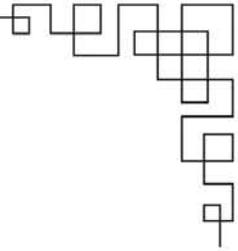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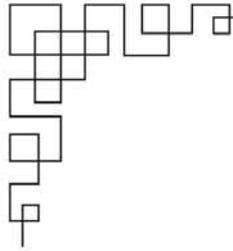


## 문화학교 교실별 수료자

교실명	강사	수료자	교실명	강사	수료자
한시교실	이종우	19	사물놀이교실	홍이표	10
서예교실(한문)	함연호	16	색소폰교실	이명재	27
서예교실(한글)	김광희	13	난타교실	주동진	18
한국화교실	조정승	17	수채화교실	김영덕	14
민요교실	이건남	15	600합창단교실	지은환	37
통기타교실	강명근	21	전통무용교실	이건남	8
민화교실	정복자	10	태평소교실	박하나	10
논어교실	최영택	16			

## 우수 수강생

교실명	성명	교실명	성명
한시교실	박상형	사물놀이교실	심연옥
서예교실(한문)	김덕주	색소폰교실	최선익
서예교실(한글)	박상혁	난타교실	이미숙
한국화교실	윤정희	수채화교실	양신자
민요교실	이혜숙	600합창단교실	함영열
통기타교실	김종호	전통무용교실	장영애
민화교실	고민숙	태평소교실	조남선
논어교실	김원래		



## 2021 문화학교 수강생 수상 및 공연내역



### 한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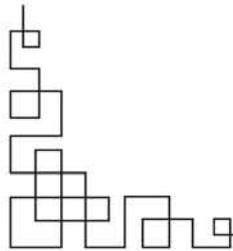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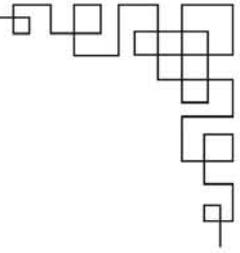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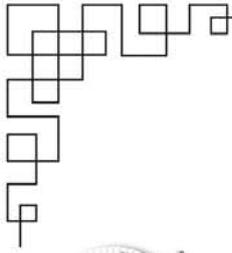
### 수상

- ❖ 전국한시백일장(제43회 양양문화제 기념) | 차상 : 김경일, 참방 : 박문희
- ❖ 전국한시백일장-홍천(제12회 무궁화 축제) | 차하 : 김형래, 참방 : 김무풍, 추종삼, 최종학, 김윤래



### 한문서예





### 한글서예



### 한국화



### 수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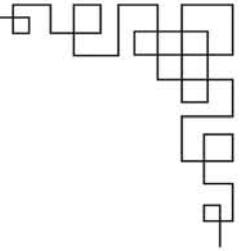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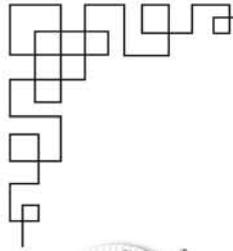


#### 전시

❖ 군민과 함께하는 나눔수채화 전시회(제9회 양양수채화 동호회 회원전)

#### 수상

❖ 2021년 강원문화대축전 | 강원도의회 의장상 : 강사 김영덕



### 민화



**수상** ❖ (사)한국민화진흥협회 공모전 | 입선 : 현담스님, 노복현



### 논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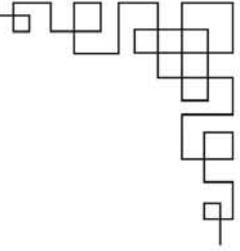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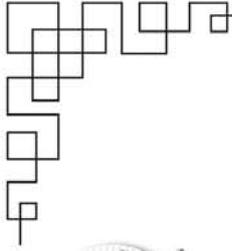
**공연**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수상** ❖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 사이니스타상 : 단체상



### 색소폰





## 난타



**공연**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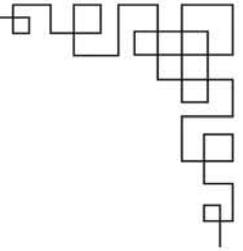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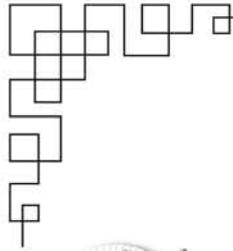


## 사물놀이



**공연**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한시백일장 공연  
❖ 전통시장활성화 공연  
❖ 제11회 전국민요경창대회 공연

**수상** ❖ 제26회 강원도사물놀이경연대회 | 장려상



## 600합창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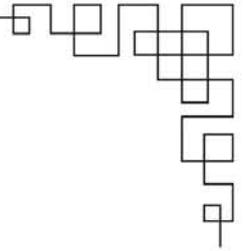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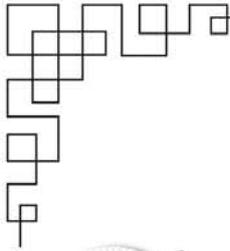
**공연**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통기타



**공연**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민요



### 공연

-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 국악활성화공연(서면아라리, 간곡리모심는소리)
- ❖ 국악협회 정기공연

### 수상

- ❖ 한국문화원연합회 “사이니스타를 찾아라” | 사이니스타상 : 단체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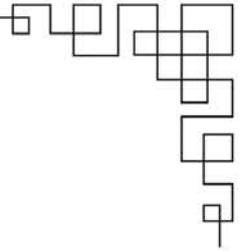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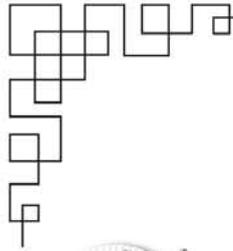


## 전통무용



### 공연

- ❖ 양양문화원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태평소**



**공연**

❖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 양양국악협회 정기발표회





# 2021

## 양양출신 조선천재음악가 허억봉 선양사업 대금반

1. '허억봉'은 조선 후기에 통소와 대금 연주자로 당시 장악원(지금의 국립국악원) 총책임자인 전악까지 오른 천재 음악가로, 악인들이 악기를 연습할 수 있도록 '금합자보'라는 악보 제작에 참여하였다. 금합자보의 서문에는 "허억봉은 대금으로 세상에 이름을 떨친 사람"이라고 기록되어있다.



2. 강좌를 통해 익힌 연주법을 바탕으로 평생학습 및 여가생활을 지속하며, 문화원 및 타기관, 단체의 다양한 행사에 연주봉사를 다짐으로 우리 전통악기에 대한 인식 구축하고, 마땅한 취미활동이 없는 지역민들에게 적절한 취미생활과, 수강생들 간의 연주에 대한 소통, 연주 연습을 통해 지역민의 생활을 좀 더 풍요롭게 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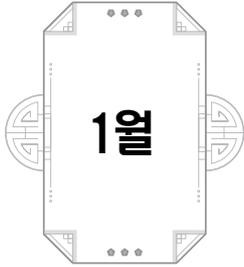


3. 대금연주는 호흡하는 방법부터, 악보를 읽는 방법까지 같이 익혀야 하기에 폐활량 및 집중력 향상에 좋고, 오랜 시간의 곡 습득을 통해 작품 완성에 대한 성취감 및 봉사활동 등 공연에 대한 관심을 향상시키고 있습니다. 양양문화원에서는 허억봉 선생의 업적 선양을 위해 우리전통악기의 전수에 나설 계획을 가지고 지역민의 문화예술 평생학습 욕구충족 및 건전한 여가선용을 위하여 '대금 연주 배우기' 반을 운영하오니 여러분의 많은 참여바랍니다.

#### 4. 비고

■ 수강생 : 15명

■ 공연내역 : 2021. 11. 3. 2021년도 양양문화원 가을밤의 문화공연



## 2021년 올해는 신축년(辛丑年)이라 흰 소의 해다.

고대 신농(神農)씨가 농사를 짓게 하고, 후직(后稷)씨가 농법을 가르쳤다고 하는데, 이때부터 우직한 소를 기르고 소가 농부가 시키는데 순진하여 논갈이 밭갈이 짐을 나르는 일등 힘든 일을 도맡아 한 은혜로운 소다.

올해는 소 11마리가 힘써 논밭을 가는데 가을에 수확한 농작물은 4마리의 말이 끌어들인다고 하니 농촌에서는 풍수해가 없도록 살피 농사해야 하리라 믿는다.

### ❖ 양양에는 흑소가 있었다

맹사성이 태종 9년(1409) 윤 4월 7일, 외방종편(外方從便) 조치되었을 때, 상운역(祥雲驛) 역리(驛吏)로 와 있다가 이듬해인 1410년 8월 10일 직첩(職牒)을 받아 경외종편(京外從便) 되어 전직하였다.

잠시 상운역 역장(驛長) 때의 일화가 다음과 같이 전한다.

『강원 감사가 관동을 순시할 때 상운역에 들르니 맹공(孟公)은 이노(吏奴)에 명하여 오찬을 준비하는데, 산해진미(山海珍味)로 감사를 대접하게 하고 맹공은 맥반(麥飯, 보리밥)을 먹었다. 출영할 때에도 역마(驛馬)를 타지 않고 흑독(黑犢, 검은 송아지)을 타고 나갔다.

감사가 맹공의 특수한 것을 보고 물어보니 맹공이 답하기를

“나는 죄인이라 감히 국마(國馬)를 탈 수 없고 또 맥반은 관식(慣食, 늘 즐겨 먹는 밥)이라” 하니 감사가 그 뜻을 알고 감영에 돌아가 상소(上訴)하여 사(赦)를 얻어 맹공을 내직(內職)으로 소상(召上)하였는데 세종조(世宗朝)에 좌의정(左議政)까지 역임하였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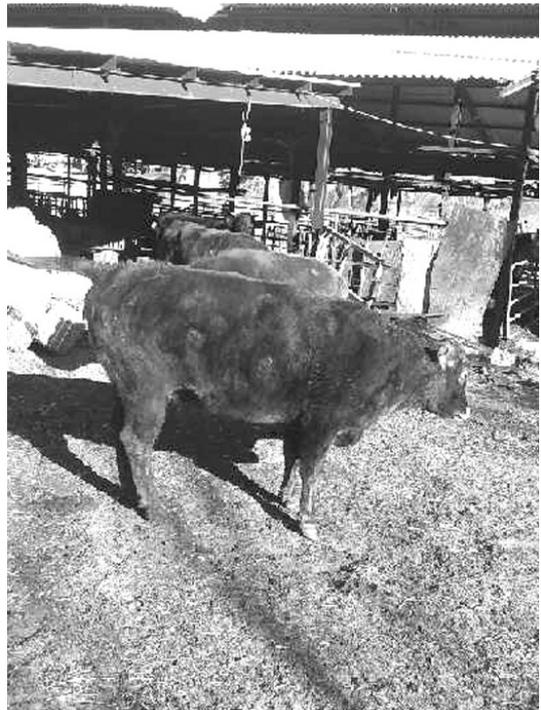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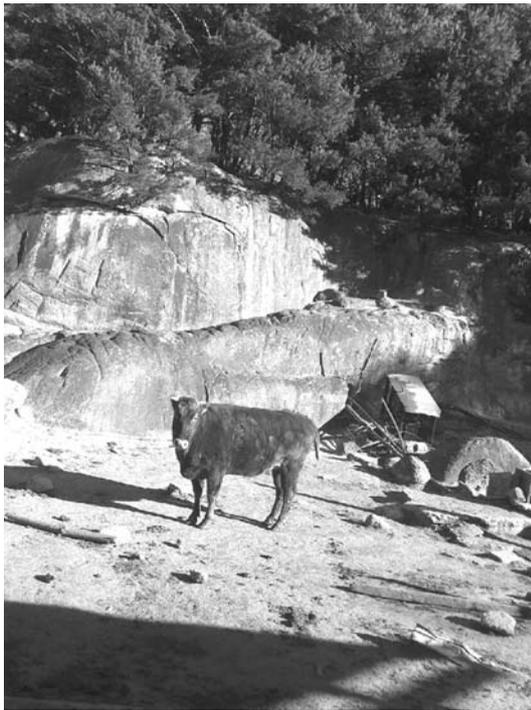
또한 맹사성(孟思誠)은 음률에 정(精, 뛰어나서)하여 왕궁 “관습도감 제조(慣習都監提調, 조선 초기, 음악에 관한 행정사무를 맡아보던 관청)에서 정악(正樂)을 가르치기도 했다.”



상운역은 고려시대는 명주도(강릉), 조선시대 초기에는 대창도(강릉)의 속역이었다. 1462년(세조 8) 개설된 상운도(祥雲道)의 중심역을 상운역으로 하고 관아에서 찰방이 15개 속역을 관할하였는데, 1894년 폐지되었다. 상운도는 양양·간성·고성·통천·흡곡에 이어지는 역로였다.

### ❖ 영혈사 심우도의 황소와 흰 소

양양에는 토종한우 흑소와 칙소, 흰 소, 황소 등 다양한 종류가 있었다 한다. 1938년 조선우심사 표준에서 ‘한우의 모색을 적갈색으로 한다.’는 규정을 내세워 일제가 황소를 장려하여 다른 토종한우는 거의 사라졌다. 그러나 현재 양양에는 칙소가 20여 두가 농가에서 자라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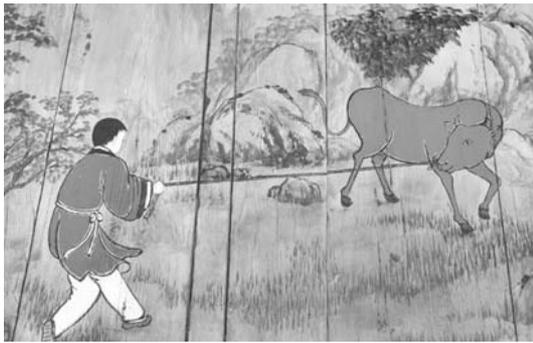
현남면 입암리 칙소

효의 이야기를 품은 자심탑이 있는 양양읍 화일리 영혈사 원통전 벽화, 심우도의 4번째 장면 득우(得牛)에는 황소, 6번째 장면 기우귀가(騎牛歸家)에서는 흰 소를 볼 수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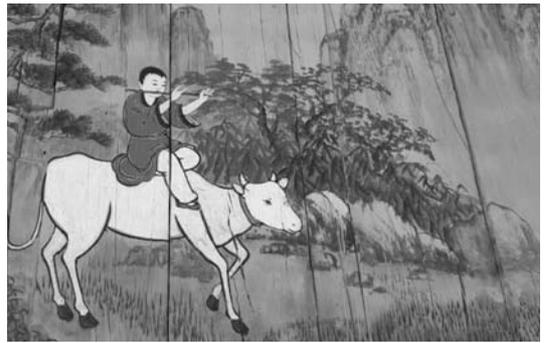




영혈사 원통전



4번째 장면 득우(得牛) 황소



6번째 장면 기우귀가(騎牛歸家) 흰 소

### ❖ 우리고장의 세시풍속

정월 초하룻날부터 열이튿날까지 12간지(干支)의 이름에 따라 쥐날·소날·호랑이 날 등으로 부르고 이에 따른 관습이 전해오고 있다. 이것을 ‘일진 가리기’, ‘날 가리기’ 라고도 부른다.

간지는 10천간과 12지지를 줄여 말하는 것으로 동물로 바꾸는데, 12일간을 동물의 모습에 따라 털 있는 동물이 그해 첫날에 들면 풍년이 든다고 믿었다.



일진에 따라 정월에 처음 드는 첫 소날을 ‘상축일(上丑日)’이라 하는데 정초 5일 이내에 들면 그 해에는 연중 소의 값이 비싸질 것으로 예측도 하였다.

첫 상축일은 소의 명절날이라 소에게 일을 시키지 않고 연자방아도 쪼그리고 잘 먹였다. 칼이나 낫으로 무엇을 자르거나 끊는 일도 하지 않고 쇠붙이 연장을 다루지도 않았다. 이는 도살의 의미도 있으므로 소가 해를 입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었다.

또한 손가락으로 누룽지를 긁지 않으며, 남자가 칼을 만지면 평소 연장에 다친다고 믿었다. 이날 만큼은 밥과 나물을 쌀을 이는 이남박에다가 담아서 먹도록 하는데, 어느 것을 먼저 먹느냐에 따라 쌀이 풍년인지, 채소가 풍년인지 점도 쳤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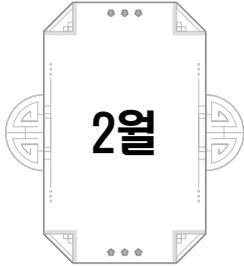
군웅신을 집에서 모시는 양양 농가에서는 외양간에 삼베를 20~30cm 정도 끊어 매년 길며, 그 밑에 제물을 차려 놓고 소를 잘 보살펴 달라고 이렇게 빈다. “군웅 장군님, 그저 우매 대매 가지 불듯 외 불듯 잘 퍼져서 일 년 열두 달 잘 크게 해 주십시오.” 우매(牛馬)는 소와 말을 뜻하며 가지나 오이 줄기가 퍼져 나가듯이 잘 크게 해달라는 뜻이었다.

강현면 회룡리의 소 키우는 집은 군웅신에게 상축일이면 탈이 없게 해달라고 빈다. 상축일이 아니어도 소가 조금 아프기만 하면 외양간에 간단한 제물을 차려 놓고 낫기를 빌었다.

범부리에서는 설날 만두 국을 끓일 때 소의 만두를 주먹만 하게 만들어서 소에게주면 건강하게 자라고 새끼도 잘 낳는다고 한다.

기계화 이전 농가에서는 소가 힘든 일을 도와주고 소 없이는 농사를 지을 수 없었으며, 큰 재산이라 외양간은 부엌과 같은 공간에 두고 잘 돌봐왔습니다. 일찍이 동물복지를 실천한 고장이다.





## 양양의 동해신묘(東海神廟) 제향(祭享)에 대해 알아보다.

### ❖ 매년 봄·가을 관찰사가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빌던 곳이다.

예전부터 하늘과 땅, 산, 바다, 강 등에 제사 풍속이 있었는데 고려 및 조선시대는 국가 제사에 규범과 규정이 그 규모에 따라 대사(大祀)·중사(中祀)·소사(小祀)로 나뉘었다. 세종실록 오례의(五禮儀)에 제사(祭祀)의 예(禮)는 천신(天神)에 사(祀) 지기(地祇)에 제(祭), 인귀(人鬼)에 향(享), 문선왕(文宣王)에 석전(釋奠)이라 했다.

조선 태종 14년(1414) 8월 예조에서 동해는 양양(襄陽), 남해는 나주(羅州), 서해는 풍천(豐川)으로 정하고 치제를 관에서 주관하였다. 동해신묘는 중사(中祀)로 관리된 곳으로 매년 나라서 향축(香祝)을 내려 보내 세수(歲首)는 별제(別祭), 2월과 8월은 상제(常祭)로 관찰사가 동해신에게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빌던 곳이며 사당의 명칭은 고려 때는 동해신사(東海神祠)라 했고 조선으로 이어지면서 동해신사당(東海神祠堂)→동해신단(東海神壇)→동해묘(東海廟)→동해신묘(東海神廟)로 변천하였다.

### ❖ 동해신묘 제향기록(祭享記錄)

세종 19년 3월 양양의 동해는 중사(中祀)이고 사묘위패(祠廟位牌)는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하였으며 『신증동국여지승람』양양도호부 산천과 사묘 편에 동해신사는 부 동쪽에 있고 중사(中祀)이며 봄, 가을 향축을 보내 제사를 지낸다고 했다.

세조 12년(1466)에 동해신묘에 제사하도록 명하였고, 영조 18년(1742) 1월 기사에 향축을 내려 보내 풍농을 빌도록 전교하였다. 정조 24년(1800) 4월 기사에 동해신묘에 제향을 드리는 예법이 나라의 법전에 실려 있을 만큼 이곳을 중시하였다. 이외에도 다수의 기록이 있다.



## ❖ 동해신묘 제례의식(祭禮儀式)

『세종실록』에 양양부의 동해는 중사(中祀)로하고, 세수 제향(歲首祭享)을 별제(別祭), 중춘 중추(仲春仲秋)에 좋은 날을 점쳐 지냈는데 상제(常祭)라 하였고, 제사의식은 세종오례의(世宗五禮儀)에 수록된 것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 〈제사시일(祭祀時日)〉

서운관(書雲觀)에서 한 달 전에 음력 2월(仲春) 초하루에서 초월(上旬)사이로 날짜를 잡아서 예조에 보고한다. 그러면 예조에서 중앙에 알리고[啓聞] 해당 관청[攸司]에 준비를 서두르라는 통고[散告]에 따라 제각기 맡은 대로 준비를 한다.

사묘(祠廟)의 위판은 밤나무로 쓰되 바탕은 흰색으로 하고 검은 글씨로 동해지신(東海之神)이라 쓰며 높이가 2척 2촌, 너비가 4촌 5푼, 두께가 9푼, 좌고가 4촌 5푼, 두께가 4촌 5푼이라 하였고, 묘 축판은 소나무로 만드는데 높이는 1척 2촌이요, 폭은 8촌, 두께는 6푼이다. 축문은 “국왕(성)(서명) 감소고”라 쓴다. 축문은 기일 전에 관원이 받들어 바치는데, 근신(近臣)이 전해 받들어 이를 바치면 전하가 서명하고 이를 마치면 친히 사신(使臣)에게 준다.

### 〈재계(齋戒)〉

제사 전 5일에 행사할 집사관(執事官)은 모두 그중 3일 동안 산재(散齋)하는데, 정침(正寢)에서 유숙하고, 2일 동안 치재(致齋)하는데, 1일은 청사(廳事)에서 1일은 제소(祭所)에서 하며, 무릇 삼가하고 제사에 참여할 사람은 제사 전 2일에 목욕하고 옷을 갈아입는다. 소재관이 제사를 행하는 데는 헌관(獻官)은 제복을 입고, 집사와 교생(校生)은 유관(儒冠)을 쓴다. 행사집사관은 헌관(관찰사가 하는데, 만약 제소가 겹치면 수령을 나누어 보낸다), 축(祝), 장찬자(掌饌者), 사준자(司尊者), 찬창자(贊唱者), 찬례자(贊禮者)이다.

### 〈진설(陳設)〉

제사 전 2일에 유사(有司)가 단(壇)의 안팎을 소제하고, 여러 제관(祭官)의 막차[次]를 설치한다. 또 찬만(饌幔)을 설치하되, 동문(東門) 밖에 땅의 형편에 따라서 적당하게 한다. 전 1일에 신좌(神座)를 단상(壇上)에 설치하되, 북쪽에 남향하게 하고, 자리[席]는 왕골[莞]로 한다. 유사(有司)가 생(牲)을 이끌고 제소(祭所)로 나아가고, 헌관의 자리를 단하(壇下)에 설치하되, 동남으로 서향하게 한다.<



이하생략)

### 〈행례 (行禮)〉

제삿날 축시(丑時) 전 5각(刻)에 장찬자(掌饌者)가 들어가 제수를 찬구(饌具)에 담기를 마치면, 집사자가 그 의복을 입고 올라와 신위판(神位版)을 자리[座]에 설치한다. 찬례자(贊禮者)가 헌관을 인도하여 남쪽 섬돌[南陛]로 해서 올라가서 진설한 것을 점검해 보고 도로 나온다.〈중략〉 찬창자(贊唱者)의 흥기에 따라 초헌례·아헌례·종헌례를 행한 후 찬례자의 인도 하에 내려와 자리로 돌아간다.〈중략〉

찬례자가 헌관의 왼쪽으로 나아가서 “예(禮)를 마쳤다”고 아뢰고 나서, 헌관을 인도하여 나가고, 찬창자는 본디 자리로 돌아간다. 끝으로 집사자가 신위 판을 간수하고, 예찬(禮饌)을 거두고 내려와서 물러가면 제례행사가 끝난다.

### 〈동해신묘 축문〉

區分	祝 文	翻 譯
別祭	謹遣臣襄陽郡守○○○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氣畜淵深五行伊始功弘 灌溉萬物以成庶諒祈告之誠俾垂豐穰 之慶無任謹禱之至	동해 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정기가 아득히 깊고도 넓게 쌓여 오행이 이에 시작하였나이다. 관개의 넓은 공을 고루 펴서 만물이 생성하기를 헤아려 주시기를 정성을 다해 비나이다. 오곡이 풍성하게 여무는 경사가 오래오래 드리워 질 것임으로 삼가 바라는 마음 금할 길이 없습니다.
常祭	謹遣臣襄陽郡守○○○ 敢昭告于 東海之神伏以百谷之王德著廣利享祀 是宜永介多祉謹以牲幣醴齊梁盛庶品 式陳明薦尚 饗	동해 지신께 엎드려 고하나이다. 큰 바다의 왕이시어 널리 이롭도록 큰 덕을 베푸시니 이에 향사를 올림이 마땅하여 길이길이 많은 복을 이어 주시옵소서. 이로써 삼가 희생 폐백과 진한 술 그리고 여러 제물을 갖추어 법대로 진설하고 밝게 드리오니 향하시옵소서.



〈전통 찬설(진설)도〉



豚拍=돼지고기, 筍菹=죽순, 鹿醢=사슴식혜, 甑大羹=탕, 栗黄=말린 밤, 芡仁=연 열매, 黑餅=검정 시루떡, 脾析=자라 복부를 가른 것, 兔醢=토끼식혜, 菁俎=무우, 銅和羹=양념 탕, 乾棗=말린 대추, 菱仁=마름 알, 白餅=흰 시루떡, 醢醢=육장, 簋黍=기장, 簋稻=벼, 魚鱠=어포, 魚醢=고기식혜, 芹菹=미나리 저림, 韭菹=부추 저림, 簋稷=기장, 簋粱=이장, 形鹽=덩이소금, 榛子=개암 알, 鹿脯=사슴 포, 籩幣=폐백과 주리, 七體腥豕=7부위돈육, 七體腥羊=7부위양고기

〈1872년 지방지도(양양)〉





## 양양은 도원경의 별천지가 아니런가?

일찍이 양양의 선인들은 양양 땅에는 동남으로 60리 구간에 이상향[理想鄉] utopia]이 전개되어 있다고 예언한 글을 양주읍지(襄州邑誌)를 비롯한 여러 문헌에 기록하여 놓았다.

### ❖ 양주읍지 고적 편에 실려 있는 '회룡굴'.

원문 <回龍窟:在府六十里吳晚翠億齡有友人同在洛下一日告別而去十年不知去處吳公爲關東方伯巡過海上其友人艤舟於永郎湖上遂與之邂逅吳公曰君方住何處答曰吾家在於彌矢嶺底華岩寺之洞口又在於襄陽府四十里回龍窟吳公遂與之偕往門蘿穿石入一窟中日月明朗第宅宏麗且有歌童舞女吳公曰君何力辦此答曰如此者亦數十區其後吳公再到尋覓終不知其處云詳見辛參奉敦復鶴山雜錄未知其處>

번역문 <회룡굴은 부에서 60리에 있다. 만취 오억령이 벗과 같이 지내다가 하루에 이별하고 떠나니, 십년 동안 거처를 알지 못하고 지내다가, 오공이 관동관찰사가 되어 해상을 순시하며 지나다가, 우연히 영랑호 배를 대놓은 곳에서 벗을 만나게 되었다. 오공이 “그대 사는 곳이 어디냐”고 물으니, 벗이 답하기를 “내 집은 미시령 아래 화암사 동구인데 또 양양부에서 40리 지점 회룡굴이라” 하니, 오공은 그를 따라 함께 간다. 땀방울이 땀을 휘어잡고 돌을 헤치며 한 굴에 들어서니, 해와 달이 맑고도 밝고, 저택은 크고 화려하며 또한 남녀 아이들이 노래와 춤으로 맞이한다. 오공이 물기를 “그대 무슨 힘으로 이를 마련하였는가.” 하니, 벗은 “이 같은 것이 또 수십 곳이라” 대답한다. 그 후에 오공이 재차 와서 찾아보았으나, 끝내 그곳을 찾지 못하였다. 참봉 신돈복의 학산 잡록을 상세히 들추어 보았으나 그곳을 알 수가 없었다.>

이 글은 조선 숙종 연간(1674~1720)에 대사성, 대사헌, 병조판서, 강원관찰사, 경기관찰사 등을 역임하고 특히 1695년 1월 28일 강원관찰사를 사임 할 때에 숙종대왕으로부터 “일편단심이 빛나다(一片丹心炳)” 시 한편을 하사 받은 오도일(吳道一)이 남긴 글이다.

이와 유사한 글은 《오주연문장전산고(五洲衍文長箋散稿)》 <천지편(天地篇) 지리류(地理類) 낙토가 작토구변증설(樂土可作菟裘辨證說)> 등 몇 편의 글이 전해진다.



이 글에 등장한 인물 오억령은 선조조~광해군조(1567~1623)에서 대사헌, 형조판서 등 조정의 고위직에서 활약한 인물이다.

### ❖ 양양 땅 60리에 회룡굴과 같은 별천지가 수십 곳(數十處)이라 하였다.

선견지명이 있는 옛 어른들의 예언은 우리 후손들이 반추(反芻)하면서 그 깊은 뜻을 헤아려 우리에게 축복을 주는 것이라면 적극 방도를 찾아 우리와 우리 후손들의 광영(光榮)을 위해서 설계하고 전력투구(全力投球)하여야 할 것이다.

지금 약진 도상에 있는 우리 양양의 군세는 미약하고 인구는 비록 적지만은 우리 대한민국 국민 모두가 선망하는 고을이 아니겠는가?

1. 하늘과 바다 산 하천 대자연의 풍광은 정말 빼어나게 아름답다.
2. 서울양양고속도로 개통으로 전국이 일일생활권이다.
3. 양양국제공항 개설로 이미 지구촌의 하늘길이 열려있다.
4. 일출의 명소 60리 청정해변은 사철 인파가 출렁이며, 죽도를 위시한 모든 해변에 서퍼(surfer)들이 몰려든다.
5. 오색케이블카가 설치되면 우선 전국의 누구나가 양양을 찾는다.
6. 동해북부선 철도가 부설되면 앞으로 남북교역의 중심역할을 하게 된다.
7. 이미 양양남대천은 르네상스의 서막은 열렸다.

### ❖ 우리 양양군민의 과제

우리 군민 모두는 각자가 하는 일과 분야에서 자부심을 갖고 책임을 다할 때 회룡굴과 같은 새로운 문화가 열릴 것이며, 민생의 안정을 위한 복지행정을 펼치고 양양의 번영과 약진을 위하여 군민의 화합이 지상과제이다.

※ 『조선왕조실록』에 숙종24(1698) 7월 19일 공조참판 오도일(吳道一)이 면직을 원하자 오도일을 양양부사(襄陽府使)로 보직하도록 명하다. 라는 기사가 있으며 1700년부터 대제학, 한성부판윤을 역임 한 후 병조판서를 지냈다.



오도일 초상화





회룡리 마을 전경



영랑호 전경





## 조선 正祖 때 襄陽都護府가 襄陽縣으로 降號된 배경은 ?

### ❖ 양양 출신 이경래(李京來)가 역모사건에 연루되었다.

조선 정조 7년(1783)에 역모(逆謀)사건에 연루된 이경래의 고향이 양양이라 하여 양양현(襄陽縣)으로 강호(降號)되었다가 정조 16년(1792)에 강호기간 만료로 양양도호부(襄陽都護府)로 회복되었다.

양양출신인 이경래는 재주가 신통하고 비범하여 이인(異人)이라하였는데 송시열(宋時烈)의 현손인 송덕상(宋德相)과는 사제(師弟)관계로 정조 즉위에 공을 세운 홍국영(洪國榮) 일파의 추천으로 조정에 등용된 만큼 그들의 정치적 견해를 대변했다.

그러나 도승지 홍국영은 정조의 외척으로 그 권력은 날로 비대해졌고, 반대파의 저항 또한 만만치 않은 상황에서 마침내 홍국영은 실각됐고 그 여파는 송덕상에게도 미쳐 결국 조정에서 물러나 귀양을 가게 되었다.

이에 따라 송덕상(宋德相)을 따르던 대표적인 인물에는 이택징(李澤徵), 권홍징(權泓徵), 이유백(李有白) 등이 계책을 세워 군사를 일으키려하니 흉모(凶謀)와 역절(逆節)을 꾸미고 적극 동참한 역모사건(逆謀事件)으로 그 중심인물이 바로 송덕상의 제자인 문인방과 양양의 이경래였다.

### ❖ 이경래는 도원수의 책임을 맡고 도성을 공략하려했다.

거사(擧事)를 모의한 양대 주역 이경래(李京來)와 문인방(文仁邦)의 첫 만남은 사건이 발각되기 10년 전인 영조 48년(1772) 금강산의 대찰인 유점사에서 이루어졌고, 양양 이경래의 집에서 4일간을 머물며 친교를 쌓았지만 이때까지만 해도 이들은 '현실개혁(現實改革)'의 문제나 '거사모의(擧事謀議)'에 대한 문제를 꺼내지는 않았다.



그러나 이들은 정조가 즉위한 1777년 8월에 다시 만나면서 일이 구체화되기 시작했다. 이경래는 이름을 이해수(李海壽)라고 바꾸기도 하면서 자칭 팔도도원수(八道都元帥)로서, 이르는 곳마다 힘이 세어 쓸 만한 무리를 규합하고 대계(大計)를 실행하려고 다음과 같이 계획한다.

규합된 무리(속칭 군사)로 양양부를 먼저 습격 점령하고 이어서 간성과 강릉을 습격한 후 대관령을 넘어 원주를 공략하고, 그 여세를 몰아 도성(都城)으로 진격하려는 만반의 준비를 세워 놓았다.

### ❖ 박서집의 밑고로 관련자들은 실망타진 되었다.

박서집(朴瑞集)은 송덕상을 추종하던 황해도 해주의 선비로 전라도의 한 섬으로 귀양을 갔다. 어느 날 유배지에서 우연히 문인방과 동거하게 되었는데 문인방(文仁邦)은 놀랍게도 본심을 털어놓았다.

그는 송덕상의 억울한 처지를 생각해서 장차 군사를 일으켜 서울로 쳐들어갈 계획이라고 하였다. 그러자 박서집은 겁이 나서 그 섬의 유배자(流配者)들을 관리하는 자에게 문인방(文仁邦)의 역모사건을 밑고하였다.

그 섬은 전라도 관할이어서 깜짝 놀란 전라관찰사는 급히 체포령을 내렸는데 이미 잠적한 이경래를 제외한 다른 관련자 전원을 체포하였으나 그들은 스스로 목숨을 거두었다고 한다.

구세적(具世勳)은 1782년에 양양부사로 부임하였는데 이경래의 역모로 양양부는 1783년 현(縣)으로 강호 되었고, 구세적은 부사에서 현감으로 강등되었다. 구세적은 역적 이경래를 체포하려고 무과(武科)출신인 자기의 조카 장사 구납(具納)을 불렀다. 상감(上監)은 구납에게 선전관(宣傳官)을 제수(除授)하고 ‘암행어사’를 겸하게 하였다.

구납은 휘하에 유명한 포교(捕校) 변시진(卞時鎭)과 양양의 병력 50명을 동원하여 천하장사로 신출귀몰하는 이인(異人) 이경래를 금강산에서 유인 체포한 후 조정으로 압송하여 극형(1785년)에 처하게 되었으니 이로써 역모사건(逆謀事件)은 일단락되었다고 한다.



庚戌展拜于 永禧殿省器遂齋宿○以金憲為成均館大司成○辛亥 上親行 永禧殿冬至祭回鑾至鍾街召貢市人問疾苦尋教曰亞歲無異元歲輦路適出鍾街台問貢市人弊瘼所以蘇拯之方不容少忽爛加消詳至於錢荒之弊亦屬目下切急并於對稟處○壬子以申應顯為司諫院大司諫○御禁衛營親鞠白天堤朴瑞集中亨夏初亨夏居平山為德相仲理講張煽動刑配海島瑞集居海州作詩褒嘉亨夏以節義亦刑配海島瑞集到配與關西文仁邦島配者同居聞仁邦為德相地將謀與兵犯京即上變于配所官湖南道臣密啓以聞逮捕三罪人先至是日移次訊問○大司憲鄭好仁上疏曰鄭妻龜柱即丙丁諸賊之根柢而天討尚稽德相煥德湖海凶徒之窩窟而王章姑屈煥九生出獄門締結府隸咆哮邑吏遠逸作行以無顧忌景中義翊之密交陰嗾端緒既露請德相煥德具格拿來并施顯戮煥九嚴鞠正法最中義翊并施當律批以量處○以蔡濟恭為判義禁府事○癸丑親鞠文仁邦等諸罪人仁邦供曰所得妖術之冊一則乘門衍義一則經驗錄一則神鞠經一則金龜書而清溪先生即德相也天堤與臣同習此書轉往陽城鎮川等處構草幕以居亂離等說看星等事果如瑞集之供而襄陽居李京來是異人故彼為都

〈정조실록 정조6년(1782)11월20일(을)〉

另飭銓曹懲討事前已悉諭諸批柳河源事原疏下語全未記得而爾之如是論斷誠未知妥當金復建事不必然○己亥教曰昨因文臣製述科次見朴命變名本事不但脫空向者臺言過矣堂后假官擬入李東埴事適因水使具世勳辭朝詳聞其時事狀京來之於東埴為寸外之親京來罪惡多從東埴言究得可謂有功而無罪特以京賊之假稱進士當初讖捕未免誤罹而旋即自脫如未分館令該曹即為區處如已分館堂后假官該院序付並勿拘碍○召對○庚子畫講○辛丑御春塘臺行瑞慈臺試射○以李昂揆為司諫院大司諫金文淳為史曹參判○壬寅畫講○輪對○癸卯時將印行大典通編教曰原續編之合編顧非難事甲子後新增不可不審慎予則曰寧詳而無略其中刑典尤致意焉六典惟兵典最詳密各典之皆如兵典未可必也遍示時原任大臣俾各具意見付籤吏禮典則吏禮判考準戶工典則戶惠堂考準兵典則兵判及諸武將考準刑典則判義禁刑判考準各以本司見行之制逐條校證審知其無差然後以啓○甲辰命奉朝賀金致仁摠裁大典通編編役 英宗甲子故相金在魯主管續典編次至是諭其先故而命之○命回榜人李聖源陞知中樞府事聖源故相浚慶後孫也○乙巳述吏曹參判金文淳參議金宇鎮

〈정조실록 정조9년(1785)2월19일(己)〉



〈금강산 유점사 전경〉



## 낙산사 오봉산(五奉山) 자락에는 냉천(冷泉)이 있다.

조선 중기《신증동국여지승람》및《여지도서》의 양양 편에 냉천(冷泉)은 “부 북쪽 15리 오봉산 아래에 있다.”고 했다. 세상에 전해오는 말에 관음보살(觀音菩薩)이 여자로 변해 덕녀(德女)란 이름으로 벼를 베고 있었는데 원효대사(元曉大師)가 냉천의 물을 마시면서 함께 웃으며 농지거리를 하였다고 한다.

고려 후기 문인 정추(鄭樞) 선생의 시(詩) 한수의 번역문을 소개하면, “덕녀(德女)의 옛터엔 잔디가 섬들을 덮었고 원효가 남긴 자리에는 나무가 하늘에 닿았네. 누각에 올라 상사(相思)의 꿈을 맺고자 한다면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盞)질하리라”란 글이 지금까지 전해오고 있다.

이 냉천(冷泉)의 위치는 양양군 강현면 답리(畓里)에 있는데 1970년 이전에는 맑은 샘이 용출하여 냉정터(冷井址)라 불렸으며, 눈에 생기는 눈병도 이 물에 씻으면 깨끗이 낫고, 신경통과 피부병에도 특효라 해서 원근각지에서 많은 사람들이 이곳을 찾았다고 전한다.

냉천은 물이 찬 샘을 의미하며 온도가 20℃~25℃ 이하의 물을 이른 다고했다. 조선시대 냉천에는 초정(椒井)·약수(藥水) 등도 속했으며 《세종실록지리지》와《동국여지승람》에는 전국 각지의 각 종류에 따른 냉천 수 지역의 위치뿐만 아니라 물맛과 병의 치료 사이의 관계 등을 소상히 밝혀 놓은 사실로 볼 때 당시 일반 백성들이 병 치료에 냉천요법(冷泉療法)이 널리 이용했음을 짐작할 수 있다.

《동국여지승람》 15권, 청주목(淸州牧) 항목에 “청주(淸州) 초수(椒水)는 그 맛이 초와 같고 냉하며 목욕을 하면 병이 낫는다. 일찍이 <세종>·<세조>가 행차하였다”고 적혀 있는 것도 이를 뒷받침하는 좋은 사례라 할 수 있다.

답리의 냉천은 지금의 상식으로 보았을 때 샘물이라는 것 이외의 특징이 별로 없는 것으로 보아 목욕문화가 발달하지 않았고 식수에 대한 위생관념이 약한 시대라서 샘물에 몸을 씻고 샘물을 마시는 것만으로도 각종 질병(疾病)을 예방하는 효과가 있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반면 이 냉천에 관음보살과 원효대사가 만난 이야기가 나오는 것은 인근에 낙산사가 있음으로 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여, 그 만남의 의미가 속세의 인간들에겐 더욱 감미롭다. 결국 냉천은 관음보살과 원효대사의 만남의 장소이고 깨달음의 공간이다.

오봉산(五峯山)은 옛날부터 그 자리에 있으면서 세상의 흥망을 지켜보았다. 관음보살의 화신인 덕녀(德女)가 벼를 베던 가을 들녘에는 벼가 가득하고, 해가 오봉산을 비추면 마치 붉은 연기가 피어오르는 듯하다.

◆ 정추(鄭樞)의 시 냉천

海岸山從赫世前(해안산종혁세전) / 바닷가 산이 밝은 세상 되기 전부터 왔는데,  
 幾看興廢迄今年(기간흥폐홀금년) / 금년까지 몇 번이나 흥망성쇠를 보았다.  
 秋涵一野亞紅稻(추함일야아홍도) / 가을빛이 온 들에 젖어 붉은 벼가 수북하고  
 日照五峯生紫烟(일조오봉생자연) / 해가 오봉산에 비쳐서 붉은 연기 오른다.  
 德女故居莎覆砌(덕여고거사복체) / 덕녀의 옛터엔 잔디가 섬돌을 덮었고  
 曉公遺迹樹連天(효공유적수연천) / 원효의 남긴 자리에는 숲이 하늘에 연했다.  
 登樓擬結相思夢(등루의결상사몽) / 누에 올라 상사 꿈을 맺고자 한다면  
 夢裏還應酌冷泉(몽이환응작냉천) / 꿈속에도 응당 냉천을 잔질하리라.

◆ 襄陽府使 鳴巖 李海朝. 『襄陽別曲』第27詠 冷泉故居

觀音化阿難(관음화아난) / 석가의 제자가 된 관음보살이  
 天治幻枯槁(요치환고고) / 가을이 되어서 예쁘게 변했네.  
 曾不散天花(증불산천화) / 눈이 내리기 이전에  
 而來刈田稻(이래예전도) / 논에서 벼를 베누나.  
 高僧亦解佩(고승역해패) / 변뇌에서 벗어난 원효대사가  
 泥絮乍顛倒(니서사전도) / 넘어져 가삼에 진흙 묻었었네.  
 尙學羅裙色(상학라군색) / 훌륭한 부인은 학문도 높는데  
 萋萋冷泉草(치치냉천초) / 냉천에는 잡초만 무성하구나.

◆ 冷泉故居 〈附和：子益 金昌翁〉

祥光九峰下(상광구봉하) / 모든 산봉에 서광이 비추니  
 秋色老忍草(추색로인초) / 가을은 깊으나 풀은 견디네.  
 何緣酌冷泉(하연작랭천) / 어떤 인연에 냉천을 마셨나  
 有美刈紅稻(유미예홍도) / 미녀는 익은 벼를 베는구나.



須知色是空(수지색시공) / 비록 색을 알려함은 부질없는 일  
 淨染不二道(정염불이도) / 정토에 물들은 두 길이 아니로다.  
 觀音豈摩登(관음기마등) / 마천에 오르신 관음을 어찌 보리까?  
 羅什還曉老(라십환효로) / 나십은 돌아가 없고 원효도 늙었네.





# 고기가 살아가는 것이 좋아 살려준 踏景과 和尚巖이야기

도 경 화 상 암

## ❖ 화상암은 인(仁)이야기를 간직하고 있다.

화상암은 현남면 만월산에서 발원하여 원포리를 지나는 화상천 하구의 화상1교가 있는 해안도로가에 부처상 같이 우뚝 서 있는 바위이다.

이 바위가 간직한 전설은 강릉이 본향인 ‘도경(踏景) 최운우(崔雲遇)’는 어린 시절에 양양의 외가에 와서 자랄 때에 여러 아이가 냇가에서 고기잡이하며 노는데, 다른 아이들이 잡은 고기를 어린 ‘도경’은 오히려 물에 놓아 살려 주었다고 한다.

이때 이곳을 지나던 ‘도승’이 그 광경을 보고 기이하게 여겨서 그 이유를 물은 즉 “고기가 활발히 살아가는 모양이 보기 좋아서 도로 물에 놓아 주었다.”라고 대답하였다.

이 말을 들은 ‘도승’은 그 아이를 바위 위에 올려놓고 합장배례를 하고 장래에 귀하고 어진 삶이 되게 하여 달라고 축원하고 갔다 하여, 이 바위를 도승의 이름을 따서 화상암(和尚巖)이라 불려오며, 도경 최운우의 묘지는 현남면 원포리에 있어 그의 후손들이 지금도 이곳을 지



화상암



나갈 때는 배례하고 다니고 있다 전한다.

### ❖ 이야기의 주인공 踏躑은 실존한 인물이었다.

화상암에 관련된 이야기는 강원도지(1940년), 양주지(1990년, 794쪽), 양양군지(2010년) 등 여러 곳에 전하고 있으며, 여지도서(1765년) 양양부 교량편에 “화상암천교(和尚岩川橋)는 관문으로부터 남쪽으로 65리 거리에 있다.”고 하였다.

『옥동집(玉洞集)』저자인 문익성(文益成)은 양양부사 재직(1574. 8~1578. 12)시에 쓴 유한계록(遊寒溪錄)에서 양양 태수가 친구 최도경과 산행을 한 기행문이 있다. 고 했는데 그 내용은 다음과 같다.

1575년 을해(乙亥)에 양양의 태수인 내가 최도경(崔踏躑), 배경부(裴景孚) 그리고 둘째 아들 여(勵)와 같이 한계로 놀러 가기로 하였다.

현산성을 출발하여 향재(석성 산고개)를 넘어 한령(빨닥고개)에서 말을 쉬게 하고 동쪽을 바라보니 푸른 바다에 운해가 아득하고, 바라본 서쪽의 설악은 험준한 석각인데 더욱 장마가 개어 깨끗하니 사방의 고운 구름도 말끔히 걷혀, 아직 한계에 이르지 않았으나 속세를 떠난 듯 뛰어난 흥취가 먼저 이는구나 ... 중략 ... 아! 이 같은 절승 가시나무에 숨기어 몇 천 년 알지 못한 가운데 영으로 말미암아 동서의 몇 만 인이 알 수 없었다. 이 지경을 한 사람도 평하지 않았으니 내 스스로 친구와 함께 떠나서 살폈노라.



화상암, 하상정



화상암전경



“乙亥。余守襄陽 與崔蹈景裴景孚及二子勵劫將遊寒溪，自峴山城踰香峴 歇馬于寒嶺 東臨滄海 雲濤茫茫 西瞻雪岳 石角峨峨 況積雨新霽 織雲四捲 未到寒溪 逸興先飛，… 中略 … 噫。如此絕勝。沒於荊棘中者不知其幾千年。由嶺而之東西者亦不知幾萬人。無一人曾評得此境。而自吾輩發之。無乃數也耶”

그 외 양양과 강릉 유림의 경낙계첩(鏡洛會帖)의 기록에도 “유독 우리 강릉 양양 두 고을에 춘헌 최수(春軒 崔洙), 도경 최운우(蹈景 崔雲優)는 어질었고, 삼가 박수량(三可 朴遂良), 원정 최수성(猿亭 崔壽誠)은 고상한 인물이라고 칭찬하는 기록이 있다.”고 했는데 위의 기록으로 보아 실존한 인물이며 화상암의 전설은 지금 이 시대를 사는 우리들에게 또 하나의 잔잔한 감동을 주고 있다.





## 조선 인조 때 세운 양양의 타루비(墮淚碑)가 현산공원에 있다.

### ❖ 타루비(墮淚碑)란 눈물을 흘리는 비석이라는 뜻이다.

지금으로부터 370여 년 전에 양양부사로 부임한 이상일(李尙逸)은 성품이 온화하면서 청렴결백하여 백성들의 신망이 두터웠을 뿐만 아니라 재직하는 동안 선정을 베풀었기에, 이임하는 부사에 대한 고마운 뜻을 기리고자 부민(府民)들이 선정비(善政碑)를 세웠다.

이상일(李尙逸) 부사가 타지로 이임한 후부터 관원과 지방 토호들의 폐해(弊害)가 날로 심해지자 억울함을 당하는 사람들이 많아지고 이 억울함을 어디에도 하소연할 곳이 없었다.

참다못한 백성들은 “선정을 베푼 구관 사또를 생각하고 으레 백지 소장을 들고 선정비를 찾아가서 비석을 꺼안고 하소연을 하면서 눈물을 흘렸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억울함을 당한 백성이 이 비석을 안고 울면 비석에서 눈물이 흘러나와 같이 울며 그 억울함을 동정해 주었다고 한다. 그 후부터 이상일 부사의 선정비(善政碑) 이름을 타루비(墮淚碑)라 불렀다고 한다.

선정비를 세운 최초의 위치는 양양읍내 구교리(미륵골)에서 연창리로 넘어가는 고갯길 옆에 구교리 마을 전용의 큰 공동 우물가에 세웠는데 1989년 4월 도시정비 사업을 하면서 이전이 불가피하게 되자 현산공원으로 옮겨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

### ❖ 이상일(李尙逸) 양양부사의 생애(生涯)를 알아본다.

본관은 벽진(碧珍: 지금의 경상북도 성주) 자 여휴(女休), 호는 용암(龍巖), 승지 유번(有蕃)의 증손으로, 할아버지는 군수 석명(碩明)이고, 아버지는 현령 민선(敏善)으로 김장생(沙溪 金長生)의 문하에서 수학하였다.

그는 조선중기의 문신으로 1620년에 생원(生員)이 되고, 10년 뒤인 1630년에 문과에 급제하였다. 그 후 성균관박사를 시작으로 승정원 주서, 사헌부 감찰·지평, 예조·형조정랑, 사헌부장령, 형조



참의, 호조참의, 승지 등 내직에 있었으며, 외직으로 양양부사를 비롯하여 안동·영해부사, 진주·길주목사, 황해도·원양도(강원도)관찰사 등 관직이 화려했으며, 진위 겸 진향부사(陳慰兼進香副使)와 동지부사(冬至副使)로 청나라에 다녀오기도 했다.

**【원양도(原襄道)와 강양도(江襄道)에 양양(襄陽)의 양(襄)자가 들어간 이유】**

조선시대에는 불효·패륜·역모 등 도리에 어긋나는 죄인이 어떤 지방에서 발생하면 그 죄인만 처벌하는 것이 아니라 그 지역의 등급까지 강등시키는 제도가 있었으므로 1666~1675년(10년간) 강릉(江陵) 강(江)자 대신 양양에 양(襄)자를 써서 강원도(江原道)를 원양도(原襄道)라고 호칭하였는데, 1683년부터 1701년까지 강양도(江襄道)라고 호칭한 적이 있다.

**❖ 다음은 이상일(李尙逸)의 신도비명(神道碑銘) 중에 양양부사 재임 당시와 관련된 글이 있어 다음과 같이 옮겨보았다.**

『…及有襄陽之命 公忻然赴之曰 府境有寡婦居焉 是適所願 居五年棄歸 邑民留不能得 則以其行橐如洗也 相與出粟爭致于家 公固辭不受 則守其門不忍去者 又十許日…』

이를 풀이하면

『… 공께서는 양양부사(襄陽府使)로 임명되자, 기뻐하며 임지로 가면서 말하기를 “그 고을에는 홀로된 누님이 살고 계시니 이는 바로 나의 원하는 바다.” 하였다. 5년의 임기를 마치고 돌아가려는데 그 고을 백성들이 계속 머물러 있어야 한다고 만류하면서, 떠날 때 짊어질 망태 속에는 아무것도 없이 깨끗이 비어 있는 것을 보고는, 서로들 곡식을 모아 앞다투어 공의 사저로 가져오는 것을, 공께서 굳게 사양하며 받지 않자, 대문을 지키며 버티고 있으므로 차마 바로 떠나오지 못하고 십여 일이 지나서야 떠났다.…」라 하였다

**❖ 전라남도 여수에도 타루비가 있다.**

전라남도 여수시 고소동 고소대에는 충무공 이순신 장군을 기리는 여수타루비가 있다. 이순신이 세상을 떠난 지 6년 후인 1603년 이순신의 수하였던 좌수영의 군사들이 이순신의 공덕을 추모하기 위해 세운 것이다.





부사이공상일청덕선정비

【현산공원 선정비】



【이상일부사 선정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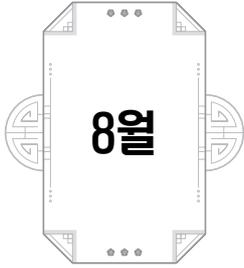


【현산공원으로 옮긴 옛 연창리 비석거리 비석】



【여수 총무공 타루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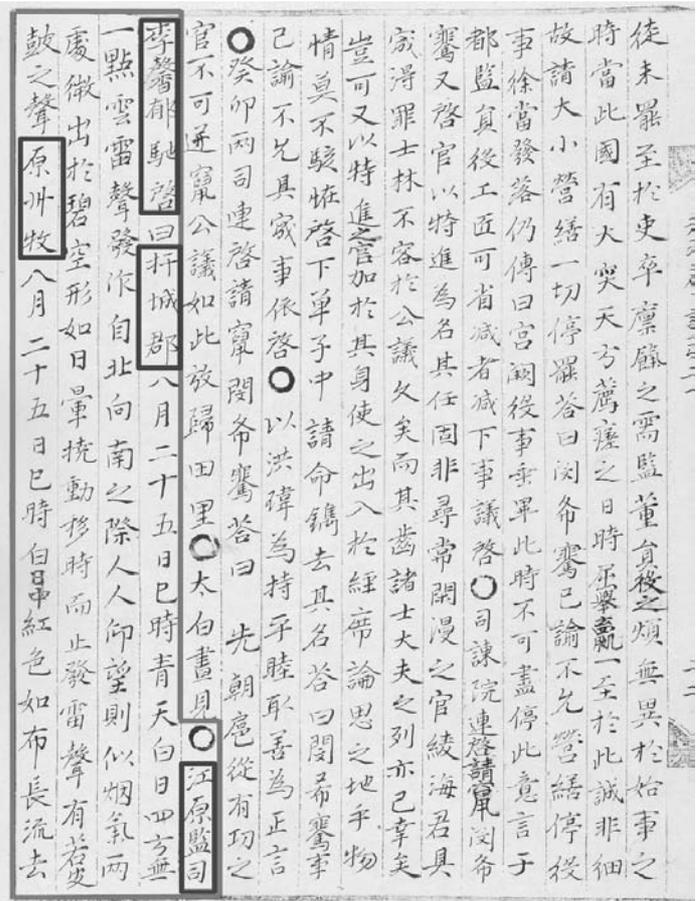


# 조선 光海君 때 襄陽府에 미확인 비행물체(UFO)가 나타났었다.

## ❖ 《광해군일기》 광해 1년(1609) 9월 25일 강원 감사 이형욱의 도내 보고상황

○ 양양부(襄陽府)에서는 8월 25일 미시(未時)에 품관(品官) 전문위(全文緯)의 집 뜰 가운데 처마 아래의 땅 위에서 갑자기 세숫대야처럼 생긴 둥글고 빛나는 것이 나타나, 처음에는 땅에 내릴 듯하더니 곧 1장(丈) 정도 굽어 올라갔는데, 마치 어떤 기운이 공중에 뜨는 것 같았습니다.

《조선왕조실록》 광해1년(1609) 9.25 (1)



크기는 한 아름 정도이고 길이는 배 반 필(匹) 정도였는데, 동쪽은 백색이고 중앙은 푸르게 빛났으며 서쪽은 적색이었습니다. 쳐다보니, 마치 무지개처럼 둥그렇게 도는데, 모습은 깃발을 만 것 같았습니다. 반쯤 공중에 올라가더니 온통 적색이 되었는데, 위의 머리는 뾰족하고 아래 뿌리 쪽은 자른 듯 하였습니다. 곧바로 하늘 한가운데서 약간 북쪽으로 올라가더니 흰 구름으로 변하여 선명하고 보기 좋았습니다.

▣ 강원감사 이형욱이 임금에게 급히 서면으로 상주하다.



이어 하늘에 붙은 것처럼 날아 움직여 하늘에 부딪칠 듯 끼어들면서 마치 기운을 토해내는 듯 하였는데, 갑자기 또 가운데가 끊어져 두 조각이 되더니, 한 조각은 동남쪽을 향해 1장정도 가다가 연기처럼 사라졌고, 한 조각은 본래의 곳에 떠 있었는데 형체는 마치 베로 만든 방석과 같았습니다. 조금 뒤에 우리가 몇 번 나더니, 끝내는 돌이 구르고 북을 치는 것 같은 소리가 그 속에서 나다가 한참 만에 그쳤습니다. 이때 하늘은 청명하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습니다.

襄陽府, 八月二十五日未時, 品官 全文緯家中庭 簷下地上, 忽有圓光炯如盤, 初若着地, 而便見 屈上一丈許, 有氣浮空. 大如一圍, 長如半匹布, 東邊則白色, 中央則青熒, 西邊則赤色. 望之如 虹, 宛轉纏繞, 狀如捲旗. 及上半空, 渾爲赤色, 上頭尖而下本截斷. 直上天中少北, 變爲白雲, 鮮 明可愛. 而仍似粘着天面飛動, 觸插若有生氣者, 忽又中斷爲二片, 而一片向東南, 丈許煙滅, 一片 浮在本處, 形如布席. 少頃雷動數聲, 終如鼙鼓聲, 自其中出, 良久乃止. 是時, 天色清明, 四際無 點翳.

○ **간성군(杆城郡)**에서 8월 25일 사시(巳時) 푸른 하늘에 짙짙하게 태양이 비치었고 사방에는 한 점의 구름도 없었는데, 우리가 나면서 북쪽에서 남쪽으로 향해 갈 즈음에 사람들이 모두 우러러보 니, 푸른 하늘에서 연기처럼 생긴 것이 두 곳에서 조금씩 나왔습니다. 형체는 햇무리와 같았고 움직 이다가 한참 만에 멈추었으며, 우리가 마치 북소리처럼 났습니다.

○ **원주목(原州牧)**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 대낮에 붉은색으로 베처럼 생긴 것이 길게 흘러 남 쪽에서 북쪽으로 갔는데, 천둥소리가 크게 나다가 잠시 뒤에 그쳤습니다.

○ **강릉부(江陵府)**에서는 8월 25일 사시(巳時)에 해가 환하고 맑았는데, 갑자기 어떤 물건이 하늘 에 나타나 작은 소리를 냈습니다. 형체는 큰 호리병과 같은데 위는 뾰족하고 아래는 컸으며, 하늘 한 가운데서부터 북방을 향하면서 마치 땅에 추락할 듯 하였습니다. 아래로 떨어질 때 그 형상이 점차 커져 3, 4장(丈) 정도였는데, 그 색은 매우 붉었고, 지나간 곳에는 연이어 흰 기운이 생겼다가 한참 만에 사라졌습니다. 이것이 사라진 뒤에는 천둥소리가 들렸는데, 그 소리가 천지(天地)를 진동했습 니다.

○ **춘천부(春川府)**에서는 8월 25일 날씨가 청명하고 단지 동남쪽 하늘 사이에 조그만 구름이 잠시



나왔는데, 오시(午時)에 화광(火光)이 있었습니다. 모양은 큰 동이와 같았는데, 동남쪽에서 생겨나 북쪽을 향해 흘러갔습니다. 매우 크고 빠르기는 화살 같았는데 한참 뒤에 불처럼 생긴 것이 점차 소멸되고, 청백(靑白)의 연기가 팽창되듯 생겨나 곡선으로 나부끼며 한참 동안 흩어지지 않았습니다. 얼마 있다가 우레와 북 같은 소리가 천지를 진동시키다가 멈추었습니다.

杆城郡, 八月二十五日巳時, 青天白日, 四方無一點雲, 雷聲發作, 自北向南之際, 人人仰望, 則似煙氣兩處微出於碧空。形如日暈, 撓動移時而止, 發雷聲有若皮鼓之聲。原州牧, 八月二十五日巳時, 白日中, 紅色如布長流去, 自南向北, 天動大作, 暫時而止。江陵府, 八月二十五日巳時, 白日清明, 忽有物在天, 微有聲, 形如大壺, 上尖下大, 自天中向北方, 流下如墜地。流下之時, 其形漸長如三四丈許, 其色甚赤, 過去處, 連有白氣, 良久乃滅之後, 仍有天動之聲, 響振天地。春川府, 八月二十五日, 天氣清明, 而但東南天間微雲暫發, 午時有火光, 狀有大盆, 起自東南間, 向北方流行甚長。其疾如矢, 良久火形漸消, 靑白煙氣漲生, 屈曲裊裊, 久未消散。俄頃如雷鼓之聲, 震動天地而止。

■ 드라마 “별에서 온 그대” 모티브 중심은 양양부 었다.

“별에서 온 그대”는 2013.12.18.일부터 2014. 2. 27일까지 SBS가 21부작 미니시리즈로 제작한 수목 드라마로, 지금으로부터 412년 전인 1609. 9. 22. 강원도 여러 고을에 알 수 없는 비행물체들이 목격되었다고 《조선왕조실록》에서 기록된 것이 모티브가 되었다.

그 당시 襄陽府에 미시(未時:오후1시반~2시반) 품관(品官) 전문위(全文緯) 집 뜰 앞에 나타나 이 땅에 정착한 그 외계인이 400년 후 아직도 서울에 살고 있다면 이라는 황당하지만 기발한 가정에서 시작한다.

본 드라마는 국내는 물론 중국에서 “대장금”의 뒤를 잇는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당시 북경에서 대규모 세트 전시장을 오픈할 정도였으며, 이 드라마는 방영 판권이, 아시아권을 넘어 전 세계적으로 확대되어 아르헨티나 지상파 방송에서도 방영되어 큰 화제가 되었다. 고 했다.



自南向北天動大作暫時而止 **江陵府**八月二十五日巳時白日晴明忽有物在天微有聲形如大壺上尖下大自天中向北方流下如墜地流下之時其形漸長如三四丈許其色甚赤過去處更有白氣良久乃滅之後仍有天動之聲響振天地 **春川府**八月二十五日天氣晴明而但東南天間微雲暫蔽午時有火光狀如大盆起自東南間向北方流行甚長其疾如矢良久火形漸消青白烟氣張生屈曲曩曩久未消散俄頃如雷鼓之聲震動天地而止 **襄陽府**八月二十五日未時品官全文緯家中庭簷下地上忽有圓光如盤初若著地而便見屈上一丈許有氣浮空大如一圍長如半疋布東邊則白色中央則青熒西邊則赤色望之如虹宛轉纏繞狀如捲旗及上半空渾為赤色上頭尖而下本截斷直上天中少北變為白雲鮮明可愛而仍似粘著天而飛動觸押若有生氣者忽又中斷為二片而一片向東南丈許烟滅一片浮在 **本處**形如布席少頃雷動數聲終如擂鼓聲自其中出良久乃止 ○甲辰在議政李恒福右議政沈喜壽啓曰臣等俱以庸陋待罪政府當此艱虞

■ 8월25일 미시[未時 : 오후 1시30분~2시30분]  
 양양부 품관 전문위 집 기록.





## 朝鮮 哲宗 때 양양의 義人 鄭元基에게 임금이 내려준 철비의 사연을 알아본다.

### 철종 11년(1860) 윤3월 강원도와 함경도지방에 대형산불 발생

지금으로부터 161년 전 철종 11년(1860) 윤3월에 관동지방에서 양양(襄陽)·통천(通川)·간성(杆城)에 대형산불이 발생했는데, 강릉(江陵)·고성(高城)·정선(旌善)의 화재도 모두 같은 날에 있었으며, 함경도의 안변(安邊)·덕원(德源)의 가호(家戶)가 연소(延燒)된 것도 같은 날이었는데, 강원도와 함경도의 여덟 고을에 화재를 당한 인가(人家)가 무려 2천여 가호였다.

당시 강원 감사 김시연(金始淵)은 양양부(襄陽府)에서 5백 51호(戶), 통천군(通川郡)에서 4백 72호, 간성군(杆城郡)에서 4백 86호(戶)의 민가가 연소 되는 사건이 발생했음을 임금께 아뢰었는데 보고를 받은 임금은 이천부사(伊川府使) 남종순(南鍾順)을 내려보내 재해를 당한 백성들을 위로하도록 하였다.

### 정원기는 벼 500석을, 그 외 주민들은 소지한 금전을 출연

재해를 당한 백성들의 딱한 사정을 누구보다도 잘 알고 있는 정원기와 성균관 진사로 있었던 그의 아들은 함께 논의하여 벼 500석을 내어 피해를 당한 백성들에게 나누어 주었다. 그 외 이 고장의 김연수(金演秀)·정우현(鄭禹鉉)·이민신(李敏信)·이검(李檢)·김동국(金東國)·김현규(金玄圭) 등도 각자 가세(家勢)에 따라 재해를 입은 사람을 구제하기 위해 가지고 있던 금전을 출연(出捐)하였다.

### 강원 감사 김시연은 양양부의 상황을 임금에게 보고

강원 감사 김시연은 양양 부사(襄陽府使) 서경순(徐敬淳)의 보고내용을 올렸는데, 환란(患亂)을 당했을 때 서로 도와주는 것은 정말로 아름다운 풍속입니다. 고장의 백성들이 의연금을 출연하여 다급한 처지에 놓인 사람을 구해 주었으니, 그 뜻이 가상(嘉尙)하였기에 김연수 등 6인에게 그 공로에 상당한 포상으로 향임(鄕任)의 직을 파격적으로 우대하도록 조치하였습니다만, 정원기에 대하여는 의정부에서 관례를 상고하여 임금의 명을 받아 처리하도록 하였으면 합니다. 라고 상계(上啓)하였다.



## 비변사(備邊司)에서 임금에게 보고 오위장 벼슬을 승진

역시 비변사에서도 향인(鄉人) 가선대부(嘉善大夫) 정원기(鄭元基)가 정조(正祖) 5백 석을 의로운 마음으로 구급(救急)하였으니 그 뜻이 가상하여 특별히 보답하고 권장하는 은전이 있어야 마땅함으로 의정부로 하여금 전례를 상고하게 하였으며 품계가 이미 가선대부이니 실제로 근무하는 벼슬인 오위장(五衛將)의 직책이 어떻겠습니까?”라고 상계한바 임금께서 아뢴 대로 하라고 전교(傳敎)하였다.

## 철중은 정원기에게 철비를 하사(下賜)하다.

철중은 ‘많은 재물을 거둬 베풀어 백성을 구휼(救恤)하고 화재로 인한 나라의 재난을 극복하게 한 공로를 가상히 여겨 가선대부 오위장(嘉善大夫 五衛將)의 관직을 특수(特授)하고 철중 11년 경신 12월(1860)에 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不忘碑)라 양각 주조(陽刻鑄造)한 철비를 하사하니’ 주민이 자진 동원하여 강현면 석교리에 비각을 건립하고 기려왔다. 그러나 세월 따라 비각도 낡아 허물어지니, 1972년 8월 1일 공의 증손 정주화(鄭周和)의 주선으로 문중에서 양양읍 조산리 마을 안 아늑한 곳에 비각을 새로 짓고 공의 불망비를 옮겨 설치하였다.

## 정원기 철비에 양각(陽刻)된 비문을 살펴 본다.

○앞면 : 嘉善大夫五衛將鄭元基不忘碑(가선대부오위장정원기불망비)

〈찬 시〉

倡義卹災 彤庭褒功(창의휼재 동정포공)

재난을 정의롭게 구제하였으니, 나라에서 포상한다.

再施千貲 蒼生誦惠(재시천자 창생송혜)

천금의 재화를 거둬 베풀었으니, 백성들은 은혜를 칭송한다.

○뒷면 : 咸豐十年庚申十二月日 暨(함풍십년경신십이월 일 수)

1860년 12월에 세움.

본 철비는 당시에 처참한 재해를 입은 백성들을 위해 사재를 아낌없이 내어준 정원기(鄭元基)의 가룩한 뜻을 기리기 위해 나라에서 철비를 내린 특별한 경우이어서 이 시대를 사는 우리에게 적선(積善)의 표본이라고 볼 수 있다.



鄭元基는 迎日 鄭氏 27代 孫으로 조선 순조 1년(1801)에 태어나 고종 1년(1863)에 사망하였으며, 字는 여경(汝經)이다. 공의 부인은 정부인안성이씨(貞夫人安城李氏)이다. 강현면 석교리에서 생활하였으며 시문에 재능이 있고 풍류를 즐겼다고 알려져 있으며, 묘지가 강선리 뒷산 선영에 있다. 자식으로는 헌종 때 문과에 급제하여 진사가 된 정우용(鄭禹鎔)이다.



불망비 비각



불망비

迎日 鄭氏 世譜 十五上 字可憐 英 祖辛卯十一月十日生十一月八日卒 墓降他面台 墓子坐○配 南平文氏○ 氏乙巳十一月四日生丙辰五月二十 六日卒 墓前		續孝 十五下 繼子元基
生父營遠見 七叔○字汝 經 純祖辛酉八月十七 日生嘉善大 夫同知中 府事李奎十 一月一日卒 墓降仙歸後 墓配坐○配 眞夫人安城 李氏父蘭征 祖在道曾祖 漢澤外祖密 陽朴昌圭庚 申五月四日 生戊寅十二 月九日卒 墓 古土川先 外書龍丑坐 卒 墓公墓下		子禹鎔 字致成 純 祖甲申二月 一日生庚辰 生員癸巳十 一月二十二 日卒 墓考 廟時澤外祖 祖顯濟曾 祖顯濟曾 庚午九月十 五日生
女李東英 成平人 子李應烈 江陵人 子李水滿 安東人 江陵人 子崔勳集 金州人		子昌永 字日文癸酉 六月二十四 日生○配晉 州河氏父聖 顯顯濟曾 祖顯濟曾 庚午九月十 五日生
女權用準 子李應烈 江陵人 子李水滿 安東人 江陵人 子崔勳集 金州人		子雲和 己丑三月二 十日生○配 廣州金氏父 洛經外祖 州李準模乙未

영일정씨 정원기 족보





## 朝鮮時代 양양 독송정(獨松亭) 주변과 얽힌 사연(事緣)을 알아본다.

**여기 명품송(名品松) 한 그루가 마치 연리지(連理枝)처럼 자랐었다.**

예전에 손양면 여운포리에서 남쪽으로 현북면 중광정리에 이르는 7번 국도변에 한 뿌리에서 세 가닥으로 자란 소나무가 있었는데 마치 다른 나무가 얽혀 자란 연리지(連理枝)와 같았다. 세월의 흐름 속에 우람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된 이 금강소나무를 못사람들은 속칭 삼 형제 소나무라고도 불러왔다.

이 나무의 높이는 푸른 하늘을 찌르듯 하고 땅에 드리운 나무 그늘은 약 50여 평 주위를 덮으리만 치 울창하여 사시사철 그늘이 떠나지 않으니 납양지(納涼地)로 적격이었다. 그래서 매년 한여름에는 피서 인파가 초만원에 이르렀고, 그 앞과 좌우가 환하게 터져 뛰어난 경치는 양양을 모르는 나라 안 사람도 독송정은 안다고 했다.

한편 독송정을 중심으로 동쪽으로는 저 멀리 앞바다에 줄지어 밀려드는 고래 등과 같은 파도가 무한한 동해를 열어놓고, 남쪽은 하조대를 마주 보며, 서쪽으로는 누룩 바위(국암(麴巖))와 주천당(酒泉塘)이 있는 여운포리 호수의 맑은 호기(灑氣)를 실컷 마시고, 북으로는 수산리 봉수대와 석굴 그리고 오산봉(鰲山峰)을 바라볼 수 있는 곳이다.

**독송정엔 정철(鄭澈)의 시(詩)와 풍수설(風水說) 일화가 있다.**

### 〈鄭澈 詩〉

폭도산수리 호기만한정 만리운개경 천년지유령  
(幅圖山水裡 灑氣滿寒亭 萬里雲開境 千年地有靈)



산수의 경치가 한 폭의 그림 같은 속에, 맑은 기운이 빈 정자에 가득하니.  
푸른 하늘 만 리에 구름 떠 있어, 천년 된 땅에 신령한 기운이 있도다.

풍전금운담 월하주배정 고학남비거 해천일색청  
(風前琴韻淡 月下酒盃停 孤鶴南飛去 海天一色青)

바람 앞에 거문고 소리는 맑고, 둥근달이 잔 속에 잠기는구나.  
외로운 학이 남쪽으로 날아가는, 바다와 하늘은 한빛으로 푸르기만 하다.

#### 〈風水說〉

한편 송강 정철이 풍수에 상당한 실력자로 알려졌는데, 그가 강원도 관찰사로 재직 당시 양양에 내려와 있었던 일화를 소개한다. 박정수『살아있는 땅』1995. p22.에 의하면 “한번은 송강이 상운리로 점심을 먹으러 갔는데 어느 곳을 가더라도 온 동네가 기와지붕으로 덮여 있고 상운리 사람들이 모두 천석꾼 이상으로 잘사는 것을 보고 이 동네가 왜 잘사는가를 살펴보니 상운리 맞은편 여운포에 누룩 바위가 눈에 들어왔지, 송강은 그 바위의 정기로 상운리가 부자가 되었다는 생각에 누룩 바위를 깨뜨려 산의 정기를 흩어버렸지” “송강이 왜 그랬을까요? 글썄, 아마도 사람들이 부자가 되면 양반인 자신을 괘시할 것으로 생각해서겠지”라는 웃지 못할 소설 속 이야기가 있어 전한다.

### 독송정의 소나무를 평양 연광정(練光亭)으로 옮겨갔다는 일화

구한국시대 평양 대동강 연광정(練光亭) 앞에는 심지도 않은 일체삼주(一體三株)의 천연송(天然松) 한그루가 자라고 있었다. 점차 자라면서 낙락장송(落落長松)이 되자 외피(外皮, 껍질)에 해동정송이래우차(海東亭松移來于此)라는 여덟 자의 큰 글자(八大字)의 흔적이 완연히 새겨져 있었다고 한다. 그래서 세상 사람들은 양양독송(襄陽獨松)이 옮겨간 것이 사실이라고 백여년(百餘年)을 두고 떠들던 시절도 있었다는 속설(俗說)이 있다.

### 독송정과 상운정에 연접한 소나무 군락이 10리나 되었다.

신증동국여지승람(新增東國輿地勝覽) 44권 양양도호부 누정(樓亭) 편에 “상운정은 부 남쪽 25리에 있다. 바다 곁엔 키 큰 소나무가 10리를 연달아 푸르게 그늘져서, 쳐다보아도 해가 보이지 않는다. 소나무 사이에 잡풀이 없고, 오직 산철쭉이 있어서 봄에 꽃이 피면 붉은 비단같이 화려하다.”라



고 기록되어 있다.

### 장구한 세월을 버티온 독송정을 다시는 볼 수 없다.

손양면 승람지(巽陽面勝覽誌, 1954年 編纂)에 의하면 독송정 소나무는 이미 오래전에 고사목(枯死木)이 되었다. 송강 정철이 이곳 독송정에서 시(詩)를 썼다는 해(1580년)로 기산(起算)해도 소나무의 나이는 줄잡아 300년이 훨씬 넘는다. 여기서 “세월 앞에 장사가 없다.”라는 속담은 비단 사람뿐만 아니라 동식물도 피할 수 없다는 걸 새삼 느낀다.

우리 선조들이 오랜 세월 정자(亭子)가 없는 곳에 한그루에서 세 가닥으로 자란 소나무를 보고 독송정(獨松亭)이라 불러왔었다. 그러나 실체(實體)가 고사 되어 뿌리의 흔적조차 찾을 수 없다고 했는데, 그곳 주변에는 독송정이라는 자연부락이 형성되어 지금도 그 명맥(命脈)을 이어가고 있다는 것이 너무도 신기하고 자랑스럽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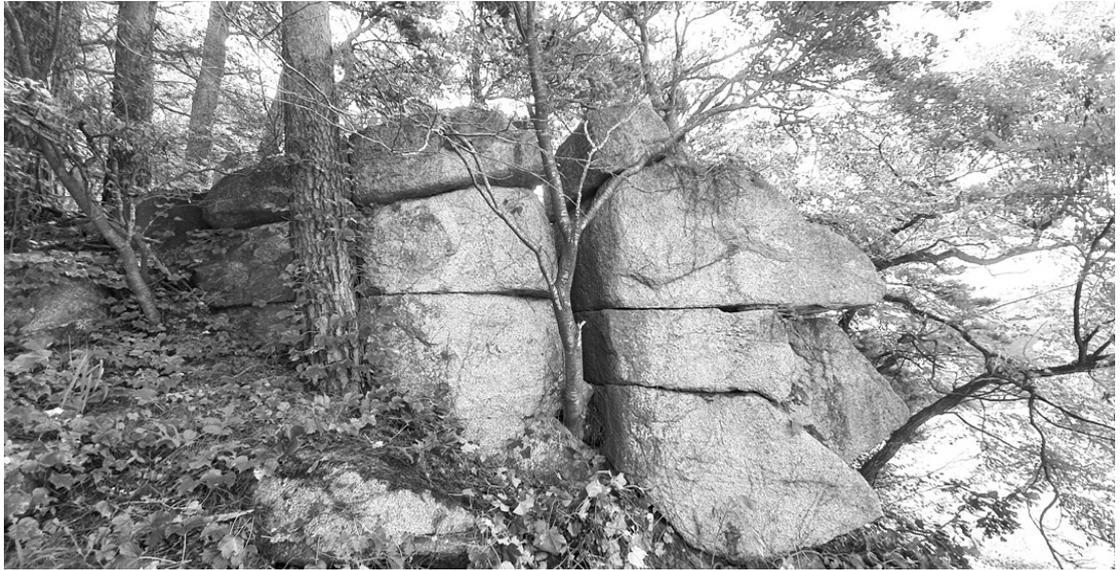


양양도호부 누정편 祥雲亭



독송정 인근 해안변 松林





독송정 인근의 누룩바위(여운포리)



獨松亭 進入 里程標





## 범일국사와 정취 보살의 신비한 만남과 몽고군 침입으로 인한 재앙을 알아본다.

### 범일국사는 정취 보살과 중국 명주 개국사에서 첫 만남을 가졌다.

범일국사는 신라 흥덕왕 2년부터 흥덕왕 10년간에 당나라에 건너가서 명주(明州) 개국사(開國寺)에 이르렀을 때 왼쪽 귀가 없어진 한 스님이 여러 스님의 끝자리에 앉아 있다가 국사에게 말하기를 “나 역시 우리나라 사람입니다. 집은 명주계(溟州界) 익령현(翼嶺縣: 지금의 양양군) 덕기방(德耆坊)에 있습니다. 국사께서 훗날 귀국하시면 꼭 제집을 지어주십시오.” 라 청하였다.



범일국사 진영(眞影)

범일국사(梵日國師, 810~889)가 여러 총석(叢席-많은 승려들이 모여있는 곳)을 두루 다니며 선에 정진하다가 마조도일 선사(馬祖道一禪師)의 제자인 염관제안 선사(鹽官齊安禪師)에게 불법(佛法)을 얻어 신라 문성왕 9년(847) 정묘에 귀국하여 당시 명주도독(溟州都督) 김공(金公)의 초청으로 지금의 강릉 굴산사(峇山寺)를 세우고 선의 가르침을 폈다.

### 범일국사는 낙산 위에 불전을 짓고 정취 보살의 상을 모셨다.

지난날 중국의 명주 개국사에서 만났던 스님이 창문 밑에 와서 말했다. “옛날 명주 개국사에서 국사(國師)는 약속을 하였습시다. 그런데 왜 이렇게 약속이 늦어지는 것입니까?” 놀란 국사는 꿈에서 깨어나 사람들과 함께 익령현 경계로 찾아가서 그 스님이 있는 곳을 찾았다. 선문의 대선사로서 바



뿐 일상에 빠져있던 국사는 지난날 중국의 한 절에서 만난 초라한 행색의 스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리고 있었다. 수소문 끝에 낙산(洛山) 아랫마을에 사는 한 여인을 찾아서 사는 곳을 물으니 덕기(德耆)라고 대답했다.

그 여인에게는 여덟 살 난 아들이 있었는데 항상 마을 남쪽 돌다리에 가서 놀았다. 어머니는 어린 아들에게 물었다. “너는 매일 누구랑 그렇게 재미있게 노니, 아들은 천진한 표정으로 말했다. 응. 엄마, 나와 같이 노는 아이들 가운데에는 금빛이 반짝이는 아이도 있어요.” 어머니는 아들의 이야기를 국사에게 말했다.

국사가 놀라고 기뻐하며 그 아들과 함께 다리 밑에 가서 찾으니 물 가운데 돌부처 하나가 있어 꺼내었다. 왼쪽 귀가 떨어진 것이 이전에 본 사미(沙彌)와 같았는데 이는 곧 정취(正趣) 보살의 상이었다. 이에 점치는 꽤 쪽을 만들어 절 지을 터를 점쳐보니, 낙산 위가 길하므로 그곳에 불전 세 칸을 짓고 그 보살상을 모셨다.

### 몽고 침입 때 낙산 二大聖의 眞容과 두 寶珠를 양주성으로 옮겼다.

몽고의 병란 이후인 1253년과 1254년 사이에 낙산사 두보살의 진용과 두 보주를 양주성(襄州城)으로 옮겼다. 몽고 대군의 공격이 심히 급박하여 양주성이 함락할 즈음에 주지 선사 아행(阿行)이 은합(銀合)에 두 보주를 담아서 몸에 지니고 도망하려고 하니, 결승(乞升)이라는 절의 종이가 이를 빼앗아 땅에 깊이 묻고 맹세하기를 “내가 만약 병란에 죽음을 면하지 못한다면 두 보주는 끝내 세상에 나타나지 못하여 아는 사람이 없을 것이요, 내가 만약 죽지 않으면 마땅히 두 보물을 받들어 나라에 바치겠다.”라 하였다.

1254년 10월 22일 성이 함락되었을 때 아행은 죽음을 면하지 못하였으나, 결승은 죽음을 면하였고, 적병이 물러간 뒤 땅속에서 파내어 명주도 감창사(溟州道監倉使)에게 바쳤다. 이때 낭중(郎中) 이녹수(李祿綏)가 감창사였는데, 받아서 감창고에 간직하여 후임이 교대할 때마다 물려받았다.

무오(戊午:1258)년 11월에 이르러 본업(本業)의 노숙(老宿) 기림사(祇林寺) 주지 대선사 각유(覺猷)가 왕께 아뢰기를 “낙산사의 두 보주는 국가의 신보(神寶)입니다. 양주성이 함락될 당시에 절의 종 결승(乞升)이 성 가운데 묻었다가 적병이 물러간 뒤에 명주 군영(溟州軍營)의 창고에 간직하여 왔습니다. 지금 명주성(溟州城)이 위태하여 지키지 못하겠으니 마땅히 어부(御府)로 옮기어 안치하여야 합니다.”라 하였다. 임금이 윤허하여 야별초(夜別抄) 10인을 보내어 결승을 거느리고 명주성에서



보주를 가져다 내부(內府)에 모셔 두었다. 이때 관원 10인에게 각각 은 1근과 쌀 다섯 섬을 주었다.

### 낙산 이대성 진용의 행방은 묘연, 두 보주는 원나라 황후에 바쳤다.

고려 원종 14년(1273) 3월 경오에 마강(馬絳)이 원나라로 귀국하게 되었으므로 대장군(大將軍) 송분(宋玠)으로 하여금 함께 가게 하였다. 원나라 황후가 일찍이 낙산사 관음여의주(觀音如意珠)를 얻어보고자 하였으므로 송분이 가는 편에 보내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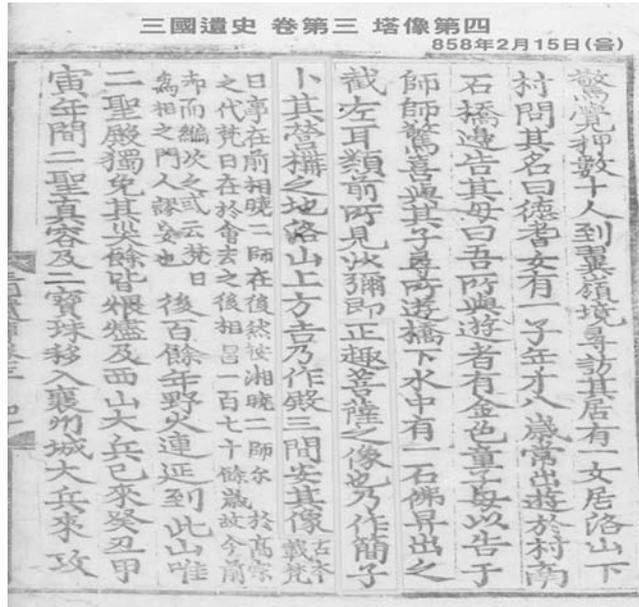
여기서 우리가 다시 생각해봐야 할 것은 낙산사의 “비천(卑賤)한 종 결승(乞升)이 목숨을 걸고 지켜낸” 나라의 신보(神寶)가 양양 낙산사에 지금까지 보존되고 있다면 얼마나 자랑스럽겠습니까 만은, 그렇지 못하고 불교를 숭상(崇尙)하던 고려가 국가적 자존심을 뒤로한 채 쉽게 보주를 적에게 내어주었다니, 당시 상황이 어찌 되었건 돌아오지 못할 강을 건너보냈다는 것이 너무나 참담하고 안타깝다.

高麗史 世家 卷第二十七 / 1273년 3월 17일 (음)



「高麗史」원 황후에 관음여의주 바침

三國遺史 卷第三 塔像第四 858년 2월 15일 (음)



「三國遺史」정취보살 洛山寺에 모심





건칠 관음보살좌상



정취전(正趣殿)





## 오색령이 한계령으로 뒤바뀐 이유를 알아본다.

### 오색령의 최초이름을 소솔령(所率嶺)이라 불렀다.

생육신의 한사람이었던 추장 남효온(秋江 南孝溫, 1454~1492) 선생이 쓴 유금강산기(遊金剛山記) 서두에는 이런 글이 있다. “한 줄기가 남쪽으로 200여 리를 뻗어 가다가 산 모양이 우뚝 솟고 험준함이 대략 금강산과 같은 것이 설악산(雪岳山) 이다. 그 남쪽에 소솔령(所率嶺)이 있다.”라 했고, 조선 성종 16년(1485) 윤4월 15일에 “오색역(五色驛)을 출발하여 소솔령(所率嶺)을 올라 여기를 소금강산이라 부르는 것이 빈말이 아니구나 하고서 영(嶺)위에서 동해를 하직하고 원통을 지나 인제현(麟蹄縣)에서 묵었다.”라는 기록이 있다.

1589년에 강원도 관찰사를 역임한 팔곡 구사맹(八谷 具思孟)의 『팔곡집(八谷集)』의 한계산(寒溪山) 시(詩)의 주석(註釋)을 살펴보면 “양양에서 소솔령(所率嶺)을 넘어 인제로 이어지는 많은 사람들이 한계사(寒溪寺 : 장수대 인근의 절)에서 투숙함으로 이들을 접대하기 힘들고 감내할 수 없어 스님들이 절을 버려두고 떠나 절은 허물어져 빈터만 남아있다...”라고 적었다. 따라서 위를 종합할 때 오색령의 효시(嚆矢)는 소솔령임을 알 수 있다.

### 오색령으로 호칭한 역사적 시원(始原)은 언제인가?

조선 선조 29년(1596) 2월에 비변사((備邊司, 조선 시대, 軍國의 사무를 맡아보던 관아)가 “적병이 깊숙이 영동으로 침입하면 추지령(楸池嶺)·미수과(彌水坡)·오색령(五色嶺)·백봉령(白鳳嶺) 등의 곳은 모두 영을 넘는 길이 될 것이니, 방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라 하였다. 그리고 조선말기 지리학자인 김정호는 대동여지도 고본(稿本)인 동여도에 오



오색령 자연경관



색령을 고대로(古大路)라 하였고, 그 외 지리지(地理誌)와 고지도(古地圖) 및 한국근현대 잡지자료 개벽(開闢) 등에 한결같이 오색령으로 기록하고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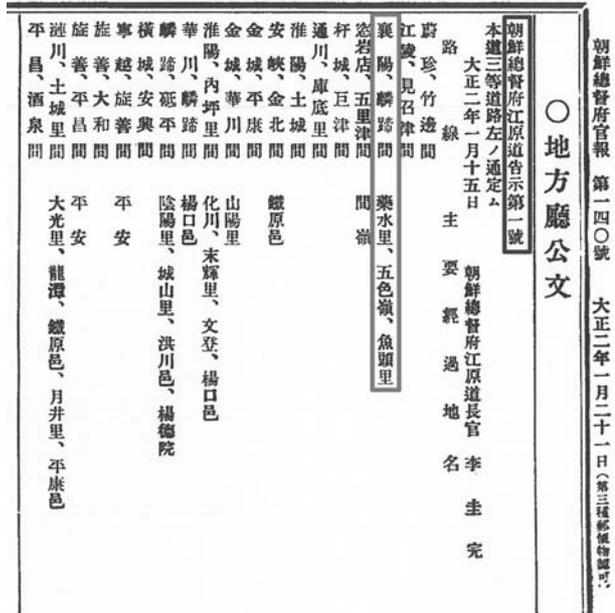
###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가 오색령을 한계령으로 바꿔놓았다.

조선총독부 강원도장관 고시 제1호 1913년(大正 2年 1月 15日)에 의하면 강원도의 3등 도로를 다음과 같이 정했는데 요약하면 울진~죽변 간, 강릉~견소진 간, 양양~인제 간(藥水里, 五色嶺, 魚頭里 經由)…라 고시하였다.

그럼에도 조선총독부 육지측량부는 1915년(大正4年) 측도(測圖)되고, 1918년(大正7年)에 제판(製版), 1918년 10월 25일 인쇄(印刷)하여 1918년 10월 30일 발행(發行)한 조선 5만분의 1 지형도 양양(杆城 8號) 축척지도(縮尺地圖)에 ‘한계령(寒溪嶺)’으로 표기한 것이다.

그 후부터 오색령 명칭은 지도상에서 자취를 감추고 한계령이 등장하였는데, 1930년(昭和 5年 4月)에 발행한 한국근대지리지자료의 인제군 관내도에는 설악산과 그 아래 영로로 한계령·단목령·조침령 순으로 표기하였고, 양양군 관내도 영로는 조침령 단 한 곳만 표기되었을 뿐이다.

우리가 주목(注目)하여야 할 것은 조선총독부 강원도장관이 정당한 절차를 밟아 양양~인제간도로를 3등 도로로 고시할 때 경유지의 분수령 명칭을 오색령(五色嶺)이라고 표기하였다. 그럼에도 이를 무시한 채 저들이



조선총독부 강원도 고시제1호 관부



일제강점기 50,000/1 지형도



제작한 지도상에 한계령으로 변경 표기한 것을 100여 년이 지난 이 시점에도 일제 잔재를 청산(清算)하지 못하고 한계령 명칭이 고착화(固着化)되었다.

### 정부수립 이후에도 계속 한계령 명칭을 사용한 배경은 무엇인가?

정부수립 이후 1959년도에 한국 국무원에서 전국의 지명조사를 실시한 바 있다. 당시 인제군 북면에서 제출한 지명조사 서식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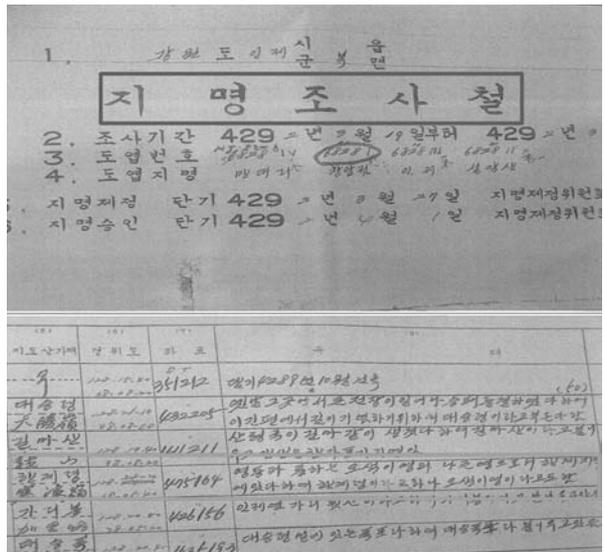
〈강원도 인제군 지명조사 서식 요약〉

지도상 기재	경위도(經緯度)	좌표(座標)	지명 유래
한계령 寒溪嶺	128-24-20-28- 05.40	475164	영동과 통하는 오색이영의 나즌영으로서 한계지역에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하나 오색이영이라고도 함

인제군 북면 지명 조사서는 당시 지도상에 한계령 지명이 기재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계령에 대한 자료를 보고 할 수 있었다. 따라서 한계령 지명유래도 가감 없이 “영동과 통하는 오색령의 낮은 영(嶺)으로써 한계지역에 있다하여 한계령이라고 하나 오색령이라고 함.” 이라고 보고했다.

당시의 지명조사에 대한 문제를 제기하면, 지도상에 있어야 할 지명이 일제 탄압에 의해 삭제된 지명이라면 마땅히 조사대상에 포함되어야 함에도 이를 수용하지 않아 양양군 지명조사철에는 옛 오색령 지명이 누락되었다. 반면 국무원의 지명 조사서식을 면밀히 살펴보면 지명조사를 위한 조사가 아니라 지도상 지명의 위치가 실제와 일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려는 의도가 있었던 것은 아닌가 하는 의구심을 갖게 된다.

그 후 국무원은 1961년 4월 22일 국무원 고시 제16호로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행정구역 이외의 표준지명을 다음과 같이 정하여



지명조사철

이를 사용한다.”라 고시하였지만, 일제에 의해 오색령 명칭이 삭제당하고 부당하게 만들어진 한계령(寒溪嶺) 지명이 함께 고시되어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는 사실을 알아야 한다.

### **오색령 지명을 되찾아야 하는 이유가 있다.**

조선 후기의 실학자 여암 신경준(旅庵 申景濬) 1712~1781이 저술한 것으로 알려진 산경표(山經表)는 우리나라의 산줄기와 산의 갈래, 산의 위치를 일목요연하게 표로 나타낸 지리서이다. 이 산경표에 나타난 백두대간 영(嶺) 48개 중 설악 다음에 오색령·연수령·조침령·구룡령으로 이어지는데 한계령이란 지명은 찾을 수 없다. 지명은 옛 문화를 간직한 인문학적 유산임을 감안 할 때 반드시 오색령으로 되돌려 놓아야 한다.



#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 (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入選詩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願東海神廟聖域化) 입선시

壯元

智園 孫 英 愛

讚襄陽五色嶺

부산시 동래구 명장로 64다길 6 일양타운 A동  
108호

五色嶺峯開別天  
觀光到處賞人連

오색령봉이 별천지를 열었는데  
도처 관광하는 상객이 이어지네.

神通藥水滿靈氣  
眼豁景臺凝瑞烟

신통한 약수에는 영기가 가득하고  
눈이 확트인 만경대는 서기가 엉켜있네.

瀑落半空龍吼裡  
松高百尺鶴棲前

폭포는 반공에 용이 우는 가운데 떨어지고  
소나무는 백척의 학이 서식하는데 높구나.

特殊秘境誰無讚  
探訪襄陽結好緣

특수한 비경을 누가 찬양하지 않으리요  
양양을 탐하고서 좋은인연 맺졌구나.

次上

讚襄陽五色嶺

天作鴻濛別洞天  
襄陽五色地靈連奇巖磅礴縈佳氣  
絕壁崢嶸繞瑞烟鳳翥峯巒千世外  
馬馳嶺路百年前英名必至輿圖錄  
享有歡榮萬姓緣

桂堂 金 慶 一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연창길 12

천지자연의 원기로 이루어진 별세계의 선경  
양양의 오색령은 신령한 땅 기운이 연했네.층만한 기암에는 가기가 엉키었고  
가파른 절벽에는 서연이 드리웠네.봉황이 날던 봉만은 대천세계 밖이요  
말로 달리던 영로는 백년 전이다.꽃다운 이름 반드시 지도상에 기록하고  
환희와 영화 누리는 만백성과 인연이다.

次上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別開天  
四節觀光賞客連仰望仙臺增壯氣  
俯看谷寺起香烟畫師寫畫羅屏裡  
詩伯題詩錦帳前地秘風光名勝地  
造成索道結佳緣

秋村 金 光 吉

경북 문경시 호서로 102-1

양양 오색령이 별개천인데  
사계절 관광하는 손님이어지네.앙망 선대하니 장기를 더하고  
부간곡사하니 향연히 일어나네.화사가 사화하니 병풍을 펼친속에  
시백이 제시하니 비단 장막 앞이네.지비 풍광 명승지에  
삭도를 조성하여 아름다운 인연 맺으리라.

次下

讚襄陽五色嶺

靈山五嶺別開天  
舉目遙看仙界連

洞壑幽深佳水石  
峰巒突兀鎖雲烟

騷人嘯詠琪花裡  
賞客閒遊鬱樹前

勝地風光奇絕處  
名稱改定讚嘆緣

月峰 安 仲 植

경북 예천군 용궁면 장평길 154-1

영산 오색령이 별개천인데  
거목 멀리 바라보니 신선세계 이어지네.

동학심음 아름다운 수석이요  
봉만마다 오득함 구름잠긴 연이네.

소인은 소영하며 기화에 속에서  
상객은 한유하며 울창한 숲 앞이라.

승지풍광이 기절처인데  
명칭 개정이 찬란하는 인연이네.

次下

讚襄陽五色嶺

襄陽五色別開天  
絕景無雙讚歎連

城寺密林含瑞氣  
鑄錢幽谷起祥烟

珍奇物色盈山上  
秀麗風光滿眼前

索道完全時設置  
人波玩賞結良緣

樂堂 張 大 遠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중흥로 213번길 9, 대명3차  
가동 107호

양양 오색령의 별천지를 열어서니  
들도없는 절경에 찬란이 이어지네.

성국사 밀림은 서기를 머금었고  
주전유곡에는 상연이 일어나네.

진기한 물색은 산상에 가득하고  
수려한 풍광이 눈앞에 가득하네.

삭도가 완전히 설치할 때  
완상 인파와 좋은 인연 맺으리라.

## 次下

## 惠岳 張錫鎬

讚襄陽五色嶺

강원도 정선군 임계면 별문재로 1209-11

襄陽勝地海東天

양양 명승지인 이 해동천에  
오색령 풍광이 수려하게 이어졌네.

五色風光秀麗連

百尺奇峰凝淑氣

백척기봉은 습기가 서려있고  
천년 고찰에는 상연이 들렸도다.

千年古刹帶祥烟

鑄錢賞客無高下

주전골 상객은 위아래가 없고  
약수터에 내빈은 앞뒤로 뺨쳐져 있네.

藥水來賓亘後前

索道施行皆宿願

케이블카 시행이 우리 모두의 숙원사업인데  
관민이 협력하면 반듯이 인연이 되리라.

官民協力必成緣

## 參榜

## 清溪 金能洙

讚襄陽五色嶺

경상북도 예천군 호명면 검무로 27, 301동  
605호(우성3차아파트)

襄陽五嶺聳蒼天

양양의 오색 재는 벽천에 솟아있는데  
원근의 구경꾼들이 끊임없이 이어 지네.

遠近遊人不絕連

雄起靈區驚麗景

웅기한 영구의 아름다운 경치에 놀라고  
심장한 비경의 상서로운 안개에 취하네.

深藏秘境醉祥烟

雷聲龍瀑聽山外

[용소폭포]의 뇌성은 산 밖에서도 들리고  
[만경대]의 숲바다를 눈앞에서 보네.

樹海萬臺觀眼前

索道完工來往際

케이블카가 완공되어 내왕할 때에는  
삭도 타고 완상하면 진연을 잊으리라.

搭乘玩賞忘塵緣

參榜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別開天  
四節觀光賞客連

突兀景臺飛靄霧  
幽深錢谷鎖雲烟

畫師圖畫武陵裡  
詩伯題詩玄圃前

索道造成時急就  
清遊物外作仙緣

果谷 金明煥

경북 문경시 점촌2길 72

양양 오색령 별천지 인데  
사시사철 관람객이 이어지네

높이 솟아 오뚝한 만경대는 아지랑이와 안개가  
깊고 그윽한 주전골엔 구름과 연기에 잠겼네.

화백들은 무릉도원속에서 그림을 그리고  
시백들은 현포앞에서 시를 짓네.

케이블카 조성을 시급히 하여  
속세 밖에서 청유하는 신선의 인연을 만드세.

參榜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別開天  
自古以來稱讚連

千歲無窮含淑氣  
四時不變吐濃烟

新鮮藥水涼腸內  
突兀仙臺展眼前

孤老語源名勝地  
登臨常客總佳緣

一字 金浩喆

경상북도 영주시 창진로 194길 202

양양의 오색령은 별개천이라고  
예로부터 지금까지 칭찬이 이어지네.

천세토록 끝없이 맑은 기운 머금었고  
사시로 변치않고 짙은 연기 토하네.

신선한 약수는 창자속이 시원하고  
오뚝한 등선대는 눈앞에 펼쳐지네.

고운 최치원 선생이 어원하신 명승지에  
올라온 상객들 모두가 아름다운 인연이라.

## 參榜

讚襄陽五色嶺

襄陽鐵嶺別開天  
比擬金剛勝景連五色藥泉治滯症  
千年谷寺遠炊烟仙臺屹立奇巖上  
龍沼飛流絕壑前索道設施成宿願  
萬方賞客結芳緣

竹史 柳 壽 洛

대구광역시 수성구 만촌로 28번길 42

함경강원이 만나는 양양철령이 별천지를 열었고  
금강산을 비길만한 좋은 경치가 이어졌네오색약수는 체증을 치료하고  
천년 현곡사는 민가의 취사연기 멀리했네등선대는 기이한 언덕위에 높아서 있고  
용소폭포는 험한 산골짜기 앞에서 떨어지네삭도를 좋게 시설의 숙원을 이루어서  
만방의 상객이 꽃다운 인연 맺도록 하세.

## 參榜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別開天  
探賞人波處處連飛瀑長流顯赤竦  
奇峰聳立帶青烟景臺月色盈層上  
石寺風光展檻前第一名區多讚歎  
清遊盡日好因緣

苑美 閔 敬 仙

대구광역시 중구 중앙대로 66길 41-10

양양 오색령에 별천지가 열려  
탐상하는 인파가 이곳저곳에서 이어지네.비폭은 길게 흘러 붉은 무지개가 걸렸고  
기봉은 우뚝 솟아 청연을 들렀네.만경대 달빛은 층위에 가득차고  
오색석사 풍광은 난간 앞에 펼쳐졌네.산수가 제일이라 다 찬란하며  
청유하는 진일토록 좋은 인연이 되었네.

參榜

笑海 朴 文 熙

讚襄陽五色嶺

강원도 양양군 손양면 고노동길 159-2

五色名區第一天  
風光秀嶺旅人連

이름난 지역 오색령 자연 중 으뜸인데  
빼어난 고개 경치에 여행객 이어지네.

曲流澗壑盤濃霧  
屹出山峯帶薄烟

구비 처 흐르는 간학 짙은 안개 서리고  
우뚝 솟은 산봉우리 얇은 안개 두르네.

萬景屏巖開面上  
鑄錢谷壁展眸前

만경대 병풍바위 면전에 열어놓고  
주전골 늘어선 버림 눈앞에 펼쳤네.

登臨索道眞何好  
尋訪襄陽結勝緣

케이블카로 올라보면 얼마나 좋을까  
찾아보는 양양으로 좋은 인연 맺겠네.

參榜

中菴 孫 教 泳

讚襄陽五色嶺

경기도 성남시 수정구 단대로 15번길 2  
코오롱하늘채A 103동 702호

襄陽勝地別開天  
峻嶺靈區到處連

양양 승지에 별천지를 열어  
준령, 명승지가 도처에 잇는구나.

五色作名含瑞氣  
寒溪改號失祥烟

오색령으로 이름지어 서기를 머금은 듯 하였으나  
한계령으로 개칭하여 상연을 잃은 것 같네.

鑄錢萬景斑山上  
龍沼登仙樂眼前

주전골, 만경대가 산상에 아롱지고  
용소폭포, 등선대가 눈앞을 즐겁게 하구나.

索道最于先設置  
遊人雲集願由緣

오색령 케이블카 최우선적으로 설치하여  
유인들이 구름같이 모여드는 연유가 되길 바라네.

參榜

讚襄陽五色嶺

襄陽五色別開天  
玩賞遊人感歎連萬古名區凝淑氣  
千秋勝地帶祥烟登仙景致如羅裏  
龍沼風光似畫前藥水效能探訪處  
自然秀麗特殊緣

榆泉 李 祥 斗

서울특별시 중랑구 용마산로 271 면목금호어울림A  
103-703양양 오색령의 경관이 별천지를 이루었으니  
구경하는 유인들의 감탄하는 소리가 이어지네.만고의 이름난 곳으로 숙기가 서려 있고  
천추의 명승지로 상서로운 안개가 들려있네.등선대의 경치는 비단을 늘어놓은 듯하고  
용소폭포의 풍광은 그림 같구나.약수의 효능이 좋아 많이 찾아오는 곳으로  
자연의 수려함은 특수한 인연이 있는 듯하네.

參榜

讚襄陽五色嶺

五色靈區別有天  
崇山峻嶺四方連女心瀑下流清水  
萬景臺邊帶瑞烟索道開通推進裏  
本名回復決行前奇巖怪石高低展  
國內觀光第一緣

又玄 李 應 春

대구광역시 남구 성당로 34길 35

오색령 영구는 별개의 하늘인데  
승산 준령이 사방으로 이었네.여심폭포 아래 맑은 물이 흐르고  
만경대 가에 상서로운 안개 들렀네.삭도 개통을 추진하는 가운데  
본명 회복을 결행하기 전이라.기암괴석이 고저에 전개되니  
국내 관광 제일의 인연이다.

參榜

清湖 韓 廷 錫

경상북도 문경시 매봉4길 9 영풍A 102동 1305호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別開天  
秀絕風光極讚連

양양 오색령이 별천지에 열렸는데  
빼어난 풍광은 극찬이 이어지네.

壯麗仙臺嵯碧宇  
深幽錢谷鎖青烟

장엄하고 화려한 등선대는 벽공에 우뚝 솟아있고  
깊고 그윽한 주전골은 푸른 안개에 잠겨있네.

騷人覓句芳花裡  
賞客傾瓢藥水前

소인들은 향기로운 꽃속에서 시구를 찾고  
상객들은 오색약수터에서 표주박을 기울이네.

景概無雙名勝處  
歡娛探訪結清緣

경관은 쌍이없는 이 명승처에  
기쁘고 즐겁게 탐방하며 맑고 깨끗한 인연을 맺네.

佳作

妙蓮 姜 奇 禮

경북 문경시 영순면 왕태저현길 30-1

讚襄陽五色嶺

襄陽自古別開天  
賞客周看讚歎連

양양은 예로부터 별세계라  
상객이 두루보고 감탄이 이어지네.

雲捲仙臺含淑氣  
風和國寺起祥烟

구름 거친 등선대는 숙기를 머금었고  
바람맞은 성국사는 상연이 일어나네.

長流飛瀑落巖上  
高聳奇峯伸眼前

길게 흐르는 폭포는 바위에 떨어지고  
높이 솟은 기이한 봉우리는 눈 앞에 펼쳐지고.

昔日呼名今世矯  
希望五嶺續佳緣

옛날에 부르던 이름을 금세에 바로잡아  
오색령으로 아름다운 인연을 이어가기 희망하네.

## 佳作

## 讚襄陽五色嶺

遙望五色嶺延天  
來往京襄大路連

邃谷鑄錢聯水石  
高臺萬景帶雲烟

森林簸蕩粧山上  
瀑布飛流落岸前

索道施工成早速  
復興經濟豈無緣

## 愚泉 郭慶淳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16길 45, 201호

멀리 오색령이 하늘에 뻗은 것을 바라보니  
서울과 양양을 왕래하는 큰길이 이어졌네.

깊은 주전골에는 수석이 연이었고  
높은 만경대는 운연을 떠하였네.

숲이 너플거리며 산위에 단장을 하고  
폭포는 날라 흐르며 언덕 앞에 떨어지도다.

삭도를 시공하여 조속히 이루면  
경제부흥에 어찌 인연이 없겠나.

## 佳作

## 讚襄陽五色嶺

襄陽勝地古今天  
賞客年中不絕連

萬景爽風凝淡靄  
鑄錢清水發輕烟

宿望索道營峯上  
祈願關門設嶺前

五色命名悠久史  
孤雲石寺妙遺緣

## 東河 權良植

경기도 평택시 오성면 길음2길 29-4

양양의 승지는 고금천이요  
상객은 연중에 불절하고 이어지네.

만경대의 상풍에 담애가 엉키고  
주전골의 청수는 경연이 피어나네.

삭도는 봉상에 경영되길 속망하고  
관문은 영전에 설치되길 기원하네.

오색명명 유구한 역사속에  
고운선생님과 석사 묘한 인연을 남겼네.

佳作

景湖 金 國 重

대구광역시 동구 금강로 21길 10, 103동  
1302호(안심역 우방아이유셀)

讚襄陽五色嶺

명주 오색령은 별개천으로  
수려한 풍광이 사면으로 이어졌네.

名區五嶺別開天  
秀麗風光四面連

錢谷幽深凝淑氣  
仙臺突兀鎖清烟

주전곡은 깊숙하고 그윽하여 습기가 응겼고  
등선대는 높이 솟아 청연을 가두었네.

層巖怪石敷頭上  
絕壁奇松滿目前

층암의 괴석은 머리위에 펼쳤고  
절벽의 기송은 눈앞에 가득하네.

到處驚嘆眞景裏  
逍遙盡日好因緣

도처에 경탄스러운 좋은 경치에  
하루종일 소요하니 좋은 인연 되었네.

佳作

惠山 金 東 權

서울 동대문구 답십리로 63가길 6, 장안2동  
128-8

讚襄陽五色嶺

양양에 오색령은 하늘을 찌를듯하니  
설악산 명성은 영원히 이어가네.

襄陽五色嶺衝天  
雪嶽名聲永遠連

賞客樂山凝淑氣  
騷人遊野帶祥烟

상객은 요산을 좋아하니 습기에 응켜있으며  
소인은 야유를 즐기며 좋은 연기를 띠었고.

自然勝景耽徼外  
祕境風光訪艷前

자연 승경에는 아름다움을 즐기는 외에  
비경의 풍광은 앞에서 고운데서 찾으니.

藥水清流千戶好  
萬民稱讚結因緣

맑게 흐르는 약수물은 천호가 다 좋아하며  
만민에게 칭찬하니 인연을 맺었네.

## 佳作

## 三浦 金 恩 斗

讚襄陽五色嶺

전라남도 여수시 소라면 덕양로 398, 101동 202호

勝地襄州別有天  
高峯峻嶺瑞光連승지 양양에 별천지가 있으니  
고봉 준령에 서광이 이어졌네.騷人望海羅青錦  
賞客登山起翠烟소인이 바다 바라보니 푸른 비단 펼쳐졌고  
상객이 산오르니 취연이 일어나네.厥態華奢朝雨後  
其形燦爛夕陽前아침비 후에 그 모습 화사하고  
석양전에 그 모양 찬란하네.無雙絕景誰無讚  
五色名稱自此緣둘도없는 절경을 그 누가 찬미않으리  
오색명칭 이로부터 인연 했구나.

## 佳作

## 研堂 金 兌 塾

讚襄陽五色嶺

대구광역시 수성구 수성로 52안길 10 허브빌  
503호襄陽五色別開天  
祕境靈區賞客連양양 오색령은 별개천이라  
비경의 영구로 상객이 이어지네.萬景臺邊流瑞氣  
鑄錢谷內起祥烟만경대 주변엔 서기가 항상 흐르고  
수전골짜기 안에는 상연이 항상 일어나네.神通藥水穿胸裏  
驚異奇峯展目前신통하게도 약수는 가슴속을 뚫어주고  
경이로운 기봉은 눈앞에 펼쳐지네.本號還元誰不讚  
地形山勢合當緣본호를 원래대로 돌렸으니 누가 칭찬하지 않으리오  
지형과 산세의 인연이 참으로 합당하네.

佳作

嘉園 文 元 任

인천시 연수구 한나루로 105길 68, 현대4차  
403동 1004호

讚襄陽五色嶺

神奇五嶺別開天  
到處觀光賞客連

快飲藥泉生活氣  
飛流龍瀑起祥烟

令名已著三韓內  
勝景還超萬國前

秀麗自然誰不讚  
襄陽探訪結良緣

신기한 오색령을 별천지가 열리니  
도처에 관광하는 상객들이 이어지네.

약수를 쾌음하니 활기가 생겨나고  
흘러내리는 용소폭포 상서연기 일어나네.

영명은 이미 삼한내에 드러났고  
승경은 도리어 만국앞에 초월했구나.

수려한 자연에 누가 찬양하지 않으리요  
양양을 탐방하여 좋은 인연 맺었구나.

佳作

愚軒 朴 商 徹

경상남도 밀양시 하남읍 대서1길 4-3

讚襄陽五色嶺

襄陽五色嶺眞天  
怪石層層景美連

秀麗金山凝瑞氣  
清明龍沼帶祥烟

琉璃谷水如流下  
翡翠岩盤若展前

仙境疑瞻尤絶讚  
浩然勝地喜心緣

양양 오색령이 꾸밈없이 자연 그대로 참되어  
층층 기이한 바위돌들이 경치를 아름답게 연했네.

수려한 금강산에 상서로운 기운이 엉켜있고  
맑고 깨끗한 룡못에 상서로운 연기떠웠네.

계곡물은 유리같이 아래로 흐르고  
암반은 비취 같은 것이 앞에 펼쳐지고 있네.

선경인가 의심하여 우러러 보니 더욱 절찬하며  
넓고 큰 승지에 인연과 마음까지 기쁘게 하네.

## 佳作

讚襄陽五色嶺

襄陽節候暮春天  
雪嶽名區賞客連突兀危峯圍白霧  
深幽絕壑起青烟鑄錢洞麗崩山外  
藥水泉靈斷穴前嶺號寒溪元五色  
奇巖怪石觀光緣

## 春農 朴 相 炫

경기도 남양주 와부읍 덕소로 97길 101 동부A  
101동 1606호양양 절후가 봄이 저물 때  
설악명구에 상객이 이어지네.돌을 위봉에 흰 안개 들렀고  
깊고 깊은 절학에 푸른 연기이네.봉산위에는 주전골은 아름답고  
단혈전에는 약수가 영험하리라.한계령이라 불러도 원래 오색령  
기암괴석이 관광과 인연하네.

## 佳作

讚襄陽五色嶺

勝地襄陽別有天  
南枝五嶺雪山連萬臺突兀含祥氣  
龍瀑飛泡帶瑞烟騷客驚嗟歌戲裡  
遊人感歎舞蹈前原名回復希求下  
藥水娛嘗結好緣

## 德泉 朴 昌 根

경북 구미시 봉곡로 23길 6-20, 201동 306동

경계 좋기로 이름난 양양 별유천  
설악산 오색령 남쪽 가지로 이어졌네.만경대 높이 솟아 상서기운 머금었고  
용소폭포 거품날려 상서때 이루었네.소객은 놀라 탄식하며 노래하고 노는 속에  
유인은 감탄해서 먼저 춤을 추네.본디 이름 회복되길 바라고 구하는 끝에  
약수를 맛보고 즐기며 좋은 인연 맺어보세.

佳作

靜溪 朴 和 植

讚襄陽五色嶺

경북 청도군 이서면 행정명곡길 9-4

襄陽五嶺別開天  
景色嬋妍讚嘆連

양양의 오색령은 별개천인데  
경색이 선연하여 찬탄이 이어지네.

龍沼澄清含瑞氣  
萬臺秀麗帶祥烟

용소폭포는 맑아서 서기를 머금고  
만경대는 수려하여 상연을 띠었구나.

名稱過誤復元襄  
文物沈潛開道前

명칭의 과오를 복원하고  
문물은 삭도를 열기전에는 침잠하니.

設置懸車期待後  
遊人探勝結佳緣

현차(케이블카) 설치를 기대한 후  
유인이 탐승하는 좋은 연을 맺으리라.

佳作

靑田 邊 僑

讚襄陽五色嶺

대전광역시 동구 용운동 147, 주공A 202동 1201호

襄陽自古別開天  
奇妙風光太白連

예로부터 양양고을은 별개천(별천지)이니  
기묘묘한 풍광이 태백을 거쳐지리까지 이어지네.

雪嶽山峯凝瑞氣  
東瀛海上起祥烟

설악산 산꼭대기엔 서기마저 엉긴듯하고  
동해바다 해상에는 상연이 이는듯하네.

萬臺屹屹浮岩上  
五嶺深深聳谷前

만경대는 높다높아 바위위에 떠 있는 듯 하고  
오색령 고개는 깊고 깊어 계곡앞에 솟은듯하네.

雲集人波皆感歎  
此鄉跳躍結佳緣

구름처럼 모인 인파가 모두 경치에 감탄하니  
이 고장이 도약하는 좋은 인연을 맺는구나.

## 佳作

## 讚襄陽五色嶺

襄陽勝地別開天  
閱歷千年不變連

怪秘峰巒形似瑗  
神奇瀑布勢如烟

瓊林夏綠芳菲裡  
玉樹秋紅錦繡前

五色嶺名傳四海  
斯鄉發展好因緣

## 靜谷 成 祐 濟

경상북도 상주시 내서면 능암1길 39-10

경치좋은 양양땅은 별천지 세계로  
천년의 오랜세월 변하지 않고 이어왔다.

하늘이 감춘 신비한 산봉우리는 구슬모양이고  
신기하고 기묘한 폭포는 연기같은 형세이네.

여름의 아름다운 숲은 꽃과 풀이 무성하게 우거졌고  
가을의 붉은 단풍은 수놓은 비단을 펼쳐 놓았네.

오색령 명성이 사해에 널리 퍼짐은  
이고장 양양 발전에 좋은 인연이도다.

## 佳作

## 讚襄陽五色嶺

五嶺襄陽別界天  
自然秘境四方連

萬臺展望忘塵世  
龍瀑飛流起水烟

騷客吟詩盤石上  
遊人攝影樹霜前

必成索道觀光裏  
淸淨仙鄉願好緣

## 聞均 孫 鳳 翼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대안길 56, 106동  
605호(용흥동 우방타운)

양양의 오색령이 별계천하니  
자연 비경이 사방에 이어졌네.

만경대의 전망에 티끌 세상 잊고  
용소폭포의 비류는 물안개를 일으키네.

소객들은 반석위에서 시를 읊고  
유인들은 상고대앞에서 사진을 찍는구나.

반드시 케이블카를 만들어 관광하는 속에  
청정한 신선세계와 좋은 인연 맺기를 원하노라.

佳作

聶岳 宋 守 復

부산시 북구 금곡대로 268, 화명대림타운 201동  
2204호

讚襄陽五色嶺

양양승지를 봄날에 탐방하니  
오색산봉에는 서조가 연이어졌구나.

襄陽勝地訪春天  
五色山峯瑞兆連

石寺周圍含淑氣  
景臺遠眺帶祥烟

오석사 주위는 맑은 기운을 머금었고  
만경대에서 멀리 바라보니 상서로운 기운을 띄었구나.

朝鮮計劃關門立  
日帝更名洗滌前

조선시대에는 관문설립 계획한 요지였네.  
일제시대에 바꾼이름 깨끗이 없애도록 앞장서자.

觀賞旅人繁會遇  
設施索道好因緣

관상을 즐기는 관광객을 빈번히 만날것이로다.  
삭도설치 운행하면 관광발전에 좋은 요인이 될것이로다.

佳作

靑巖 李 東 仁

경북 포항시 북구 학전로 35, 우방청은 101동  
1801호

讚襄陽五色嶺

승구의 오색령을 봄에 찾으니  
기이하게 뛰어난 청광이 도처로 이어졌네.

勝區五色訪春天  
奇絶淸光到處連

遠望鑄錢含淑氣  
邇看藥水吐祥烟

멀리보이는 주전골은 숙기를 머금었고  
가까이 보이는 약수터는 상연을 토하도다.

功名俗累皆身外  
泉石風流在眼前

공명의 속류는 내몸밖에 다 있고  
천석의 풍류만 눈앞에 펼쳐지네.

萬象嬋娟誰不讚  
娛遊盡日豈無緣

삼라만상이 저렇게 고우니 누가 찬탄하지 않으랴  
해지도록 거닐며 즐기니 어찌 인연이 없겠는가.

佳作

月浦 李 壽 必

경상북도 예천군 개포면 입암길 20-6

讚襄陽五色嶺

雪嶽靈峯聳碧天  
襄陽絕勝至今連설악산령봉이 푸른 하늘에 솟았으니  
양양군의 절승을 지금까지 이었네.龍心瀑布生祥氣  
萬景仙臺起瑞烟용심폭포에는 상기를 발생하고  
만경선대에서는 서연을 일으키네.虛號寒溪倭號後  
正名五色嶺名前한계라는 헛된 이름은 왜에서 부른뒤에  
오색이란 정명은 고개이름전이네.自然韻致如斯美  
到處觀光世界緣자연의 운치가 이와 같이 아름다우니  
가는곳마다 볼거리로 세계와 인연하네.

佳作

東坵 李 定 栽

서울특별시 성동구 행당로 79, 대림A 106-1005호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接長天  
萬象奇巖讚歎連양양의 오색령은 멀고 넓은 하늘에 닿았는데  
천래만상의 기이한 바위에 찬탄이 이어진다.聳立仙臺含紫霧  
飛流龍瀑吐青烟높이 솟은 등선대는 자색안개를 머금었고  
쏟아져 흐르는 용소폭포는 푸른 남기를 토하네.欲開索道金岡上  
將建關門玉宇前케이블카 길을 금빛 산등성이에 열고  
관문을 옥우(천궁) 앞에 세우려고 하는구나.唯願佳名回復襄  
嶢嶸秀景世人緣오직 바라기는 아름다운 이름을 되찾는 가운데  
쟁영의 수경이 세상 사람들과 인연하기를.

佳作

晚悟 李 興 鍾

강원도 평창군 대관령면 경강로 4237-17  
(유천1리 5반)

讚襄陽五色嶺

襄陽五色別開天  
萬景臺中絕景連

藥水神靈賓樂日  
鑄錢富局衆炊烟

琪花翠草彬園裡  
塊石奇巖滿眼前

索道完成希望處  
讚揚祝祭國民緣

양양 오색에 특별한 하늘이 열렸으니  
만경대중에 절경이 연했구나.

약수가 신통하고 영묘하니 오는 손이 즐거운 날이요  
주전고을이 부지의 상부자 판국이니 무리로 밟짓는  
연기네.

기화요초는 동산속에 빛나고  
괴석기암은 눈앞에 가득하네.

삭도가 완성되기를 희망하는 곳에  
찬양축제가 국민들과 인연하리라.

佳作

雲溪 李 熙 洛

제주도 우도면 우도로 6

讚襄陽五色嶺

雪嶽南枝別有天  
遊人玩賞讚辭連

登仙景色凝祥氣  
龍沼風光帶淑烟

萬古名區如畫裏  
千秋勝地似羅前

效能藥水探來處  
開發官民協力緣

설악산 남쪽으로 내려온 가지가 특별한 천지이니  
완상하는 유인들의 찬사가 이어지네.

등선대의 경색은 상기가 서려있고  
용소폭포의 풍광은 맑고 얽은 안개가 끼여있네.

만고의 명구로 그림속 같고  
천추의 명승지로 비단을 펼쳐 놓은 듯 하네.

약수의 영험이 좋아 찾아오는 곳으로  
관민이 협력하여 개발하여야 하리라.

## 佳作

## 讚襄陽五色嶺

襄陽五色嶺高天  
咸境江原太白連

藥水清純千古井  
山川秀麗萬秋烟

限無樣態宣揚襄  
固有名稱表記前

老少女男皆讚歎  
觀光最上好良緣

## 星百 林 培 日

강원도 영월군 영월읍 은행나무길 58

양양의 오색령이 하늘같이 높으니  
함경에서 강원도의 태백산까지 이어졌네.

오색약수 청순하니 천고에 우물이고  
오색산천 수려하니 만추에 연기 이네.

명소의 모양 무한하게 선양하는가운데  
오색령 고유 명칭을 앞으로 지도에 표기하고.

남녀노소 모두함께 기리고 칭찬하니  
최상의 관광지가 양연으로 좋아지리.

## 佳作

## 讚襄陽五色嶺

襄陽五色別開天  
玩賞人波不絕連

怪石奇巖餘古木  
懸崖瀑布發靑烟

雪山淑氣流臺下  
東海清風到寺前

索道觀光推進事  
宣傳勝景豈無緣

## 然岩 張 明 韓

대구광역시 동구 동촌로 100, 태왕아너스르네상스 107동 402호

양양의 오색령에 별천지가 열렸지  
구경하는 인파가 끊이지 않고 이어지네.

기암괴석에는 고목이 여유롭게 있고  
벼랑에 걸린 폭포에는 푸른 연기 피어나네.

설악산 속기는 (만경)대하로 흐르며  
동해의 청풍이(오석사) 절앞에 이르네.

관광사도를 설치하는 사업을 추진하는 일이  
승경을 선전하는데 어찌 연이 없겠는가?

佳作

讚襄陽五色嶺

襄陽五嶺別開天  
秀麗風光驚歎連

萬丈景臺增壯氣  
千年玄寺起香烟

詩仙嘯詠琪花裡  
賞客閒遊鬱樹前

神賜靈區成索道  
吾韓名所結因緣

經農 張 相 允

경북 문경시 충훈탑길 2

양양 오색령이 별천지인데  
수려한 경치에 경탄이 이어지네.

만키나 되는 만경대에는 장한 기운을 더하고  
천년이나 되는 현곡사에는 향기로운 연기가 일어나네.

시선들은 옥같이 예쁜 꽃속에서 시를 읊고  
상객들은 울창한 숲 앞에서 한가로이 노네.

하늘이 준 영구에 오색케이블카를 설치하면  
우리나라 관광명소로 인연을 맺을 것일세.

佳作

讚襄陽五色嶺

絕勝襄陽特賜天  
四時五嶺賞人連

仙臺突兀生祥氣  
龍瀑飛流起彩烟

酒客傾杯芳草上  
騷朋覓句艷花前

本名早速環元又  
索道新營結好緣

眞岡 全 鴻 錫

경북 문경시 양지1길 4-14

절승 양양 특별히 하늘이 내려주었는데  
사시사철 오색령에는 관람객이 이어지네.

등선대는 오뚜기 솟아 상기가 생기고  
용소폭포 떨어지는 물에 채연이 일어나네.

주객들은 방초위에서 술잔을 기울이고  
시인들은 아름다운 꽃앞에서 글귀를 찾네.

오색령 본명 조속히 찾고 또  
케이블카 새로 만들어 좋은 인연을 맺도록 하세.

佳作

道岡 曹 南 鎬

경기도 부천시 계남로 72, 진달래마을 2229동  
405호

讚襄陽五色嶺

勝地襄陽別有天  
美名五色古今連關門出入生和氣  
嶺界通行發瑞烟靈驗藥泉紅靄裏  
絕奇巖石白雲前架空索道咸聲援  
讚歎風光好感緣승지양양은 별유천이요  
오색미명이 고금에 이어지도다.관문 출입하며 화기가 생기고  
령계 통행하며 서연이 피어난다오.영험한 약천 홍애속에 있고  
기절한 암석은 백운 앞에 있다오.가공 삭도를 모두가 성원하며  
풍광 찬탄하고 호감을 인연하도다.

佳作

大垣 曹 三 承

대구광역시 북구 칠곡중앙대로 45, 청구장미A  
103동 601호

讚襄陽五色嶺

襄陽色嶺屹撐天  
大幹白頭千里連四季仙臺登日月  
萬年龍瀑散雲烟勝區讚嘆車窓外  
別界歡呼客目前孤老語源持續裡  
地名復舊得佳緣양양 오색령이 하늘을 찌르듯이 높은데  
백두대간이 천리에 이어지네.신선대는 사계절 일월이 떠오르고  
용소폭포는 만년동안 운연이 흩어지네.차창밖에 승구를 찬탄하고  
나그네는 눈앞 별세계를 환호하네.고운선생 어원을 지속하는 가운데  
오색지명 복구하여 가연을 얻으세.

佳作

芝淵 崔 相 夏

讚襄陽五色嶺

경상남도 양산시 물금읍 화합8길 15-1, 301호

勝地襄陽別有天  
奇巖怪石滿山連

승지양양은 속세를 떠난 별세계라  
기암괴석이 온산에 이어졌구나대.

萬臺半嶺通佳氣  
五色中峯繞瑞烟

만경대 중턱엔 아름다운 기운통하고  
오색령 중봉에는 서연이 들렸네.

騷客吟觴淪趣裏  
老僧拜佛向蒼前

소객은 음상하며 풍취에 빠져들고  
노승은 배불하며 암자앞을 향하네.

風光到處疑仙境  
絕讚逍遙遠俗緣

풍광 도처에는 선경인가 의심되고  
절찬하고 소요하며 속세인연 멀리하네.

佳作

靜山 崔 在 洛

讚襄陽五色嶺

경상북도 포항시 북구 흥해읍 도움로 821번길 18

五色靈區駘蕩天  
風光秀麗賞人連

오색령 영구 화창한 봄 하늘에  
풍광이 수려하여 구경하는 사람이 이어지네.

景臺屹立蟠祥氣  
龍沼還流起瑞烟

만경대 흘립하여 삼서로운 기운 서려있고  
용소폭포 환류하여 서연이 일어나네.

活畫成屏粧麓畔  
織羅作幄滿眸前

활화가 병풍을 이루어 산기슭 가를 단장하고  
섬라가 장막을 지어 눈앞에 가득 차네.

願希索道必然設  
名地襄陽迎好緣

원하고 바라든 케이블카가 반드시 설치되어  
명지양양이 좋은 인연을 맞이하리라.

佳作

讚襄陽五色嶺

回回九九聳衝天  
天惠靈區四塞連

洞學幽深凝淑氣  
峯巒突兀帶祥烟

奇巖鬼像眩昏外  
怪石龍蟠幻想前

絕勝襄陽誰問擬  
人人讚頌結佳緣

石井 黃 在 權

강원도 속초시 장안로 1길 18호

아흔아홉 구비돌아 하늘찌름 높이솟아  
자연은혜 신령구역 천험은새 들려있네.

골짜기는 깊고 그윽 맑은 기운 엉켜 있고  
봉우리들 뽕뽕뽕뽕 상서연기 띄하였네.

기이암들 귀신 모양 어지러움 밖았이고  
괴이석들 용이 서림 종잡없는 앞이인가.

아름다운 양양고을 누구몰어 비길손가  
사람마다 기리찬양 좋은 인연 맺음이라.



# 2021 청소년과 함께하는 도자기 체험

- 일 시 : 2021년 12월 9일(목) 09시~12시15분
- 장 소 : 양양중학교 3학년 교실
- 참여인원 : 120명



## 전소은

처음 할 때는 우리가 직접 만들어 하는 줄 알았는데 그릇에 직접 그림을 그려 만드는 것이다. 즉 도자기 페인팅이라고 한다. 처음에는 그림을 무엇을 할지 고민하다가 네모 모양을 그리고 디자인은 애니 캐릭터를 그렸다. 물감 색칠을 할 때 내가 원하는 대로 안 나오고 번져서 조금 아쉽지만, 그래도 나름 좋은 체험을 해서 좋았다.

## 김예담

그림을 그리는 활동이 정말 재미있었다. 다양한 그림을 그리고 싶었지만, 원하는 대로 결과물이 나오지 않아서 살짝 아쉽기도 했다. 다음에 기회가 된다면 또 체험해 보고 싶다.

김아영

재미 있었고, 나만의 접시가 생긴거 같아서 좋았다. 또 내가 직접 만든 것이다 보니 많이 뿌듯했다.

장선미

붓이 생각보다 가벼워서 그림을 그리는 데 힘들었다. 하지만 다 끝내고 나서 그림을 보니 뿌듯했다. 선생님께서 설명도 잘 해주셔서 잘 할 수 있었다. 완성작을 보면 기분이 좋을 것 같다. 재미있었다.

장현도

일단 먼저 도자기체험하면 떠오르는 것은 2학년때 점토를 가지고 만들었던 체험이 생각난다. 또 그 체험을 하는 줄 알고 재미없을 거라 생각했지만 의외로 다른 체험인 색칠하는 것을 해서 흥미로웠다. 내 마음대로 접시를 커스텀이 가능해서 9년동안 잊고 있던 잠재적 예술감각에 눈이 살짝 띄었고, 다 하고 나서는 그 성취감에 마음까지 웅장해졌다. 다음에도 한다면 생각을 미리 해와서 더 높은 퀄리티를 가진 접시를 만들고 싶다.

이규환

내가 원하는 디자인의 그릇을 만들 수 있어서 좋았다. 내가 만든 그릇이 어떻게 나올까 기대가 된다. 그리고 선생님들이 매우 친절했다. 다음에도 기회가 된다면 또 하고 싶다.

이동해

처음에는 도자기 만들기인줄 알고 식상하였는데, 도자기 접시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새로웠다. 앞으로도 다양한 활동들을 많이 하면 좋다고 생각하였다.

조은빈

도자기는 유치원 때부터 많이 만들어 봤어서 크게 기대를 안했었다. 근데 이번에 도자기에 그림을 그리는 것이어서 신박하고 재미있었다. 열심히 그린 것이 그릇으로 잘 나왔으면 좋겠다.

김수민

도자기 그릇에다 직접 자신이 생각한 무늬를 그려보니 처음에는 무늬를 그리기가 어려웠지만 점점 실력이 오르는걸 느껴서 자신감이 생겼고, 작품을 완성했을 때 만족스러웠다.

김시은

내 맘대로 꾸밀 수 있어서 좋았다. 접시에 그림 그릴 때 재미있었고 하나 밖에 못 해서 쪼끔 아쉬웠다. 다음에 또 하면 새로운 무늬로 해보고 싶다. 붓을 잘 못 다루서 내가 생각한 대로는 안됐지만 그래도 나름 예쁘게 된 것 같아 마음에 좀 든다. 재미있었다. 빨리 접시가 완성된 것을 보고 싶다.

김태연

도자기 체험을 하며 내가 스스로 그림을 그리고 색칠을 한다는 점이 정말 좋았고 선생님도 친절하셔서 재미있는 시간이 되었다. 나중에 만들어진 나의 도자기를 빨리 보고 싶다.

**최병현**

도자기 체험이라 하여 점토를 가지고 그릇을 만드나 했는데 도자기에 무늬를 넣는 체험이었다. 처음 해보는 거라 할 때 손도 떨려 하기가 힘들었다. 하지만 선생님이 잘 가르쳐 주셔서 재밌게 참여할 수 있었던 것 같다. 재밌는 활동이었고 다음에 또 할수 있음 좋겠다. 빨리 완성된 그릇을 보고 싶다.

**노형진**

도자기를 만들지 않고 만들어진 도자기에 안료로 그림을 그려본 건 처음이라 정말 재밌고 좋았다. 붓으로 색칠하기 힘들었지만 완성하니 내 생각대로 아주 멋지게 나와서 기분이 좋았다. 다음에도 이런 기회가 있으면 더욱 멋진 도자기를 만들고 싶다. 또 친절하게 설명 해주신 선생님께도 감사했다.

**한주원**

초벌을 한 도자기에 나만의 문양을 새겨 넣어서 재밌었고 내 생각대로 나오지 않아서 당황하긴 했지만, 다음엔 더 잘할 수 있을 것 같다. 그래서 또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으면 좋겠다.

**이상혁**

초벌을 한 도자기에 자기가 원하는 그림을 그려 자신만의 도자기를 만들 수 있어 재미있었다. 그리고 내가 그리는 거다 보니 집중을 하게 되어서 좋았다. 다음에도 또 했으면 좋겠다.

**김유림**

평소에 도자기 만들 기회가 없어서 못하고 있었는데 이번 기회를 통해서 좋았다. 처음 해보는 거라서 새로웠고 도자기에 대한 궁금증도 없어졌다. 예전에 컵은 만들어 봤어도 접시 만드는 건 처음이라서 집에서 음식 먹을 때마다 여기에 담아서 먹을 것이다. 그리고 평소에 도자기에 관심이 많아서 내가 좋아하는 물건이 될 거 같다. 다음에 또 기회가 있으면 컵 받침, 컵, 받침대 등등 또 만들고 싶다. 그리고 나만에 디자인을 넣을 수 있어서 세상에 하나밖에 없어서 특별하다.

**이지연**

접시에 내가 그리고 싶은 것을 직접 그리니 재미있었다. 한마디로 나의 접시가 만들어져서 좋았다.

**박예은**

정말 재밌었다. 재미가 있기는 했지만 내가 소질이 없어서 정말 못 그렸다. 그리고 붓을 쓰기가 너무 어려웠다. 역시 이런 일을 하시는 분들 다 너무 대단하신 것 같다. 다음에 한 번 더 해볼 수 있는 기회가 있다면 또 하고 싶다. 이 그릇은 내 전용 그릇이 될 것이다.

**윤가람**

우리가 쓰는 접시가 이러한 노력으로 만들어지는 것을 알고 접시를 만드는 분들의 수고를 알고 대단하다 생각했다. 우리가 직접 활동을 하는 것이라 더욱 재미있었다.

**최지원**

처음에는 찰흙으로 만드는 줄 알았지만 만들어진 것에 페인팅을 한다는것을 듣고 흥미가 생겼다. 생각보다 활동들이 재미있었고 의외로 그림 유약이 잘 그려지지 않았다.

**최민지**

맨 처음에는 도자기를 만든다고 해서 흙으로 빚어 직접 만드는 것인 줄 알고 솔직히 흥미가 없었는데 막상 문양을 생각해서 그려 넣기 시작하니 정말로 재미있고, 먼저 스케치를 한 후 안료로 따라 그리는 것이 정말 재미있었다.



# 구탄봉 및 디모테오 순례길



## 구탄봉이야기

구탄봉은 고려시대의 지술가 도선이 오대장맥을 타고 내려오다 산세를 바라보니 반드시 명당이 있을 것으로 짐작하고 그 명당을 찾고자 아홉 번 올라 아홉 번 탄식하였다 하여 이름 붙여진 곳으로서 설악산, 동해바다와 함께 양양읍 시가지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는 명소입니다.

## 디모테오 순례길

디모테오 순례길은 1945년 8월 15일 해방부터 6.25전쟁이 발발하기 전까지 신앙과 자유를 찾아 38선을 넘어 남하한 북한동포들의 도보길로 이들은 이념대립의 소용돌이 속에서 당시 공산 치하의 박해를 피해 월남을 강행한 '죽음의 38선길'로서, 천주교 양양성당(양양읍 성내리 소재)은 38선에 가장 가까운 곳에 있어서 박해를 피해 남하하는 성직자, 수도자들이 쉽게 들를 수 있는 곳이었다. 양양본당의 제3대 주임이던 이광재(디모테오) 신부는 공산당의 삼엄한 감시 속에서도 이들을 안전하게 숨겨주었다가 본당 교우들을 통해 무사히 38선 이남으로 내려갈 수 있도록 도와주었으며, 많은 위험과 어려움이 따랐지만 단 한 사람의 낙오자도 없이 무사히 월남을 성공시킬 수 있었다.



# 감기



감기는 바이러스에 의해 코와 목 부분을 포함한 상부 호흡기계의 감염 증상으로, 사람에게 나타나는 가장 흔한 급성 질환 중 하나이다. 재채기, 코막힘, 콧물, 인후통, 기침, 미열, 두통 및 근육통과 같은 증상이 나타나지만 대개는 특별한 치료 없이도 저절로 치유된다.

200여개 이상의 서로 다른 종류의 바이러스가 감기를 일으킨다. 그 중 30~50%가 리노바이러스(Rhinovirus)이고 10~15%가 코로나바이러스(Coronavirus)이다. 성인은 일 년에 2~4회, 소아는 6~10회 정도 감기에 걸린다. 감기 바이러스는 사람의 코나 목을 통해 들어와 감염을 일으킨다. 감기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환자의 코와 입에서 나오는 분비물이 재채기나 기침을 통해 외부로 나오게 되면 그 속에 있는 감기 바이러스가 공기 중에 존재하다가 건강한 사람의 입이나 코에 닿아 전파된다.

따라서 감기 환자와 가까이 있거나 사람이 많은 곳에 감기 환자가 있으면 감기 바이러스가 잘 전파된다. 이러한 호흡기 감염 경로 외에 감기 환자의 호흡기 분비물이 묻어있는 수건 등을 만진 후 그 손으로 눈이나 코, 입 등을 비볐을



때에도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된다. 실내에서 생활하는 시간이 많은 가을과 겨울에 감기에 더 잘 걸리며, 겨울이 없는 지역에서는 우기에 감기에 더 잘 걸린다. 독감은 감기와 일부 증상이 비슷할 수 있지만 원인 바이러스가 다르며, 증상이나 합병증, 치료법도 다르다.

병력 조사와 함께 임상 증상을 관찰하여 진단할 수 있다. 감기의 경우 확진 검사는 시간과 비용에 비해 장점이 크게 없기 때문에 대부분 하지 않는다. 그러나 감기는 특별한 치료가 필요한 다른 질병과 증상이 비슷할 수 있기 때문에 이를 감별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 감기의 경우에는 자가 치료로도 충분히 나아 수 있지만 감기가 아닌 다른 심각한 질환일 경우에는 반드시 병원에서 치료를 받아야 하므로, 확실히 감별하기 어렵다면 병원을 방문해야 한다. 감기와 다른 질환을 감별하기 위해서는 세균검사, 바이러스 배양검사나 혈청검사 등을 시행한다.

다음의 증상이 나타날 경우에는 일반적인 감기가 아닐 가능성이 더 많다.

- 10일 이상 지나도 증상이 호전되지 않거나 오히려 악화되는 경우
- 39도 이상의 발열
- 식은땀과 오한이 동반되는 경우
- 심한 피로감
- 배가 아프거나 토하는 경우
- 귀의 통증
- 심한 두통
- 호흡 곤란
- 지속적인 기침

세균에 의한 2차 감염을 방지할 목적으로 항생제를 일률적으로 사용하는 것은 추천되지 않는다. 중이염, 폐렴, 부비동염 등이 세균성으로 증명된 경우에만 항생제를 사용하도록 한다.

또한, 진해제, 거담제, 항히스타민제가 감기에 효과가 있다는 증거는 없으며, 소아에게는 오히려 해가 될 수도 있다.

급성 중이염, 부비동염(축농증), 폐렴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어른의 경우, 상부 기도가 감기 바이러스에 감염되면 0.5~2.5%의 환자에게서 급성 세균성 부비동염이 발생할 수 있다. 감기가 폐렴으로 이어지기도 하는데, 소아, 노인, 면

역억제제를 투여 받는 환자에게서 더 잘 발생한다. 노인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이미 앓고 있는 심부전이나 다른 만성 질환이 악화될 수 있다. 천식 환자의 경우 감기에 걸리면 40% 정도의 환자에게서 천식이 악화될 수 있다. 소아의 경우에는 감기의 합병증으로 급성 중이염이 발생하기도 한다. 감기는 보통 1~2주가 지나면 증상이 호전된다.

신선한 식품을 섭취하고 수분을 섭취하며 충분한 휴식을 하도록 한다. 또한 단체생활을 하는 경우 감염환자에게 쉽게 전파될 수 있으므로 피하도록 한다. 건조한 계절에는 가습기를 틀거나 젖은 빨래를 걸어두어 적절한 습도를 유지하도록 한다. 또한 음주와 흡연은 지양한다.



흔히 플루(flu)라고 말하는 급성 바이러스(virus) 감염 질환이다. 호흡기(respiratory track)를 공격하여 목이 붓고 열이 나며, 기침, 재채기, 콧물, 코막힘, 오한, 근육통, 두통, 복통 등과 급격한 피로를 동반한다. 보통 바이러스 감염 후 2~3일정도의 잠복기를 거쳐 1주일에서 10일 정도 앓게 된다. 합병증으로 폐렴(pneumonia)이 되거나, 천식(asthma)이나 심장병(heart failure)같은 지병이 있는 경우 사망에 이를 수 있다. 매년 전 세계적으로 3~5백만명의 환자가 보고되고 있고, 그 중 약 10%인 25만에서 50만 명이 사망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 ■ 독감 바이러스

독감 바이러스는 RNA 바이러스로서 크게 A, B, C, D형으로 나눌 수 있다. 이들 중 어느 독감 바이러스에 감염되었는지 알기 위하여 진행되는 빠르고 정확한 진단 방법은 PCR이다. 바이러스의 크기는 대략 100 나노미터 정도이고



약간 길쭉한 막대모양인데 각 바이러스의 크기는 다를 수 있다. 바이러스 입자는 가운데 RNA를 품고 있는 캡시드로 둘러싸인 중심부(core)를 헤머글루티닌(hemagglutinin)과 뉴라미니다아제(neuraminidase)의 두 가지 대표적 당단백질을 갖고 있는 바이러스 막(viral envelope)으로 둘러싸고 있다. RNA 유전체는 한 가닥으로 이루어진 몇 개의 RNA로 이루어져 있고, 역전사효소는 RNA 유전체로부터 cDNA를 생산하고, 이 유전자로부터 단백질이 만들어진다. 이들 단백질은 지질막의 당 단백질과 캡시드를 이루는 단백질들 이외에 바이러스 입자를 복제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 ■ 독감 바이러스 A

가장 심한 증세를 일으키는 바이러스이다. 주로 물에서 생활하는 조류(birds)가 그 주 숙주인데, 이들이 사람을 감염시키면 전 세계적으로 독감 유행(influenza pandemic)을 일으킬 수 있다. 돌연변이 속도가 빠르며, 여러 혈청형(serotypes)들이 있다. 예를 들면, H3N2는 1968년, 전 세계적으로 백만 명 이상을 사망케한 홍콩 독감(Hong Kong flu)이고, H5N1은 2004년에 크게 유행했던 현재까지의 치사율이 50 %에 달하는 조류 독감(bird flu)이다.

### ■ 독감 바이러스 B

대개는 사람만 감염시키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돌연변이 속도가 A형에 비교하면 2~3배 정도 느리다. 따라서 A형과는 달리 한 가지 혈청형(serotypes)만 발견되었으며, 이에 대한 면역력은 생애 일찍 얻어진다. 따라서, B형으로 인한 독감 유행이 보고 된 적은 없다.

### ■ 독감 바이러스 C

사람, 개, 돼지 등을 감염시키고 경우에 따라 심각한 병 증세를 일으키며 지역적인 유행을 야기하기도 하지만 어린이에게는 비교적 약한 증세를 나타낸다. A와 B형 보다는 덜 흔하다.

### ■ 독감 바이러스 D

D형의 경우 주로 돼지와 소를 감염시키는데, 사람에게 대한 감염은 그 가능성은 존재하나 아직 보고된 바 없다.

## ■ 독감 백신

독감 예방을 위하여 가장 권장되는 생활 습관은 손을 잘 씻는 것이다. 보다 적극적인 예방책으로 백신 접종이 있다. 독감 백신은 매년 그 해 유행이 예상되는 독감 바이러스의 몇몇 종에 대하여 예방이 가능하도록 제작되므로 작년에 맞은 독감 백신은 올해 유행할 수 있는 독감에 대한 예방책이 될 수 없다. 따라서 매년 독감 유행이 시작되기 전에 독감백신을 접종하는 것을 권유하고 있다.

## ■ 항바이러스 제제

독감에 걸린 경우 충분한 수분 공급과 함께 휴식을 취하고, 열을 내리게 하거나 기침, 코막힘 등의 증상을 완화하는 약제를 복용하는 것이 주된 치료 과정이다. 좀 더 적극적 치료를 위하여 항바이러스 제제를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대개는 바이러스가 생산하는 효소에 대한 억제제(inhibitor)로서 개발된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타미플루(Tamiflu)라는 이름으로 널리 알려진 오셀타미비르(oseltamivir)는 뉴라미니다제(neuraminidase) 효소의 억제제이며 독감 바이러스 A형과 B형에 효과가 있는 것으로 보고된다.



## 폐렴

폐렴은 폐(허파)의 세기관지 이하 부위 특히, 폐포(공기주머니)에 발생한 염증이다

가장 흔한 원인은 미생물로 인한 감염이 원인으로, 세균이나 바이러스이고, 드물게 곰팡이에 의한 감염이 있을 수 있다. 미생물에 의한 감염성 폐렴 이외



에 화학물질이나 구토물등의 이물질의 흡인, 가스의 흡인, 방사선 치료 등에 의해 비감염성 폐렴이 발생할 수도 있다.

폐렴이 걸리면 폐에 염증이 생겨서 폐의 정상적인 기능에 장애가 생겨 발생하는 폐 증상과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적인 증상이 나타난다.

폐 증상으로는 호흡기계 자극에 의한 기침, 염증 물질의 배출에 의한 가래, 숨쉬는 기능의 장애에 의한 호흡곤란 등이 나타난다. 가래는 끈적하고 고름 같은 성상으로 나올 수 있고, 피가 묻어 나오기도 한다.

폐를 둘러싸고 있는 흉막까지 염증이 침범한 경우 숨쉴 때 통증을 느낄 수 있고 호흡기 이외에 소화기 증상, 즉 구역, 구토, 설사의 증상도 발생할 수 있다. 또한 두통, 피로감, 근육통, 관절통 등의 신체 전반에 걸친 전신 질환이 발생할 수 있다. 염증의 전신 반응에 의해 보통 발열이나 오한을 호소한다

미생물이 원인이 되는 폐렴의 경우 원인균에 따른 치료를 하며, 항생제를 이용하여 치료한다. 일반적으로 지역사회에서 발생한 폐렴의 경우 세균성 폐렴으로 가정하고 경험적인 항생제 치료를 하고, 원인 미생물이 밝혀지면 그에 적합한 항생제로 변경하기도 한다. 독감과 같은 바이러스성 폐렴은 증상 발생 초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있으나 시일이 경과한 경우에는 항바이러스제의 효과가 뚜렷하지 않다.

증세가 가볍고 통원이 가능한 경우에는 반드시 입원하여 치료할 필요는 없으나, 면역성이 떨어지는 소아나 노인 환자, 중증 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의 경우는 입원치료가 권장된다. 합병증이 없거나 내성(약물의 반복 복용에 의해 약효가 저하하는 현상)균에 의한 폐렴이 아니라면 보통 10-14일간 치료로 충분하지만, 스스로 호흡이 불가능할 정도로 중증인 경우에는 중환자실에서 기계화기기 치료를 받아야 한다.

매우 다양한 경과를 가지며 기본적인 환자의 건강 상태, 폐렴의 원인균 등에 따라 경과가 다르다. 폐렴이 진행하여 패혈증이나 쇼크가 발생할 수 있고, 폐의 부분적인 합병증으로는 농흉, 폐농양, 급성호흡곤란증후군 등이 동반될 수 있다. 심한 중증의 경우 사망에 이르기도 한다.

독감이나 폐렴구균에 의한 폐렴은 예방을 위한 백신이 있다. 폐렴구균 백신의 경우 폐렴을 완전히 방어해 주지는 못하지만 심각한 폐렴 구균 감염증을 줄여주는 효과가 있으므로 백신 접종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접종하는 것이 좋다.

# 2021 양양문화원 언론홍보현황



〈편집실〉

## 2021년 문화예술단체장 신년사

설악신문 / 2021.01.11. / 김주현 기자



윤여준  
양양문화원장

“문화원 반세기, ‘문화강군’ 구심점”  
2021년 신축년 소띠, 새해가 밝았습니다. 코로나로 인해 올해도 어려움이 예상되지만, 양양문화원은 향토문화의 승고한 역사와 전통을 보전하고 난관을 극복하면서 역사의 발자취를 찾아 문화의 거점으로 승화시키는 과감한 도전에 나설 계획입니다. 이를 위해 올해는 농촌지역의 고령화를 감안해 어르신들과 향토민속문화가 잘 어울릴 수 있도록 철저한 준비와 기획으로 제43회 양양문화제를 보다 나은 전통민속문화를 표현하는 양양군민의 화합의 장으로 만들 것입니다. 또 양양의 역사를 주제로 펼쳐는 제6회 전국한시백일장은 참가자들이 양양의 깊은 전통문화를 알아가는 행사로 진행하고, 어느덧 11회 맞는 전국 동구리전통민요 경창대회는 전통문화의 중요성을 부각시키며 문화수준을 한 단계 발전시켜 민족혼을 되찾는 노력을 다하겠습니다.

특히, 올해는 양양문화원이 50주년 되는 해입니다. 생활 속에서 예술적 소질과 재능을 문화 활동으로 승화시키는 문화학교를 더욱 알차게 준비해 군민들이 문화예술을 즐기며 행복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노력하고 다양하고 알찬 문화프로그램을 통해 ‘명품도시 양양군’을 전국에 알리는 문화강군의 구심점 역할을 해내겠습니다. 문화가족 여러분들의 가정에 건강이 가득하고 소망하신 모든 일들을 뜻대로 성취하시길 기원합니다.

## ‘코로나 지역전파 차단’... 제43회 양양문화제 축소 운영

이뉴스투데이 / 2021.03.10. / 어경인 기자

양양문화제위원회는 고치물제, 양양상황제를 제외한 제43회 양양문화제를 모두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10일 밝혔다.

위원회는 지난 8일 양양문화제위원회 총회에서 코로나19 지역전파를 차단하고자 민속시연 및 6개 읍·면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단 제례행사인 고치물제, 양양상황제는 6월 15일 양양읍 고치물샘터와 상황사에서 진행하기로 했다.

이번 결정은 코로나19 장기화로 행사진행 시 외지인 유입에 따른 집단감염 노출 등의 우려가 크고 인근 군부대와 학생들에게도 전파될 가능성이 있다는 의견으로 내려졌다.

윤여준 위원장은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문화제 특성상 올해 양양문화제는 민속행사와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취소하고 국태민안과 풍농풍어를 기원하는 상징적인 행사인 고치물제와 양양상황제 제례봉행만 진행하게 됐다"고 말했다.

## 양양문화제 미개최 확정, 제례행사는 열려

강원도민일보 / 2021.03.12. / 최훈 기자

양양지역 주민들의 한미당 잔치인 양양문화제가 지난해에 이어 올해도 열리지 않는다. 양양문화제위원회는 최근 총회를 개최하고 코로나19 지역전파를 차단하기 위해 고치물제, 양양상황제를 제외한 민속시연 및 6개 읍·면 민속경기, 군민체육대회 등 모든 행사를 개최하지 않기로 결정했다. 윤여준 위원장은 “아쉽지만 불특정 다수가 모이는 문화제 특성상 올해 양양문화제는 상징적인 제례행사를 제외한 모든 행사를 취소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한편 제례행사인 고치물제, 양양상황제는 오는 6월15일 양양읍



고치물 샘터와 성황사에서 진행된다. 최훈

## 아름다운 합창으로 '청량제' 역할 기대 양양문화원 600합창단 지은환 지휘자 취임/단원 50명과 호흡 맞춰...다양한 음악 선사

설악신문 / 2021.06.14. / 김주현 기자

“정명 600년이 넘는 역사와 전통의 예향인 양양군의 자긍심을 조화로운 목소리로 널리 알리는 데 단원들과 함께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지은환 합창 전문 지휘자가 지난 5일 양양문화원 '600합창단'의 새 지휘봉을 잡고 본격적인 활동에 들어갔다. 그는 이날부터 매주 토요일 2시간씩 50여명의 단원들과 함께 코로나19 극복을 위한 합창 연습에 들어갔다.

지은환 지휘자는 단원 개개인의 음력대와 특성 등을 조화롭게 구성해 대중가요부터 가곡, 클래식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장르를 소화하며 완성도 높은 수준급의 합창예술을 선보인다는 계획이다. 지난 5일 취임한 그는 “예향의 고장에 살면서 다양한 목소리를 통해 군민들에게 온기를 전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해준 양양군과 문화원에 감사드린다”며 “사람의 마음을 하나로 묶어내는 합창단 지휘로 지역주민들이 코로나19 속에서도 아름다운 심성을 잃지 않고 행복할 수 있도록 힘을 보태겠다”고 각오를 피력했다.

지은환 지휘자는 취임 첫날 단원들과의 상견례를 마치고 합창단 운영 방향을 논의한 데 이어 향후 코로나19 상황을 고려한 맞춤형 합창 활동에 나설 예정이다. 특히, 정명 600년이 넘는 전통과 예향의 고장답게 자긍심을 드높이는 합창활동과 함께 코로나19에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용기와 희망을 불어넣는 찾아가는 공연도 구상하고 있다.

음악과 미술 등 다재다능한 실력을 보유한 그는 원주가 고향이지만 NH농협 양양군지부장을 끝으로 은퇴한 후 양양군을 제2의 고향으로 삼아 한국화가와 음악협회 양양군지부장 등 다방면에서 왕성하게 활동하고 있다. 한국미술협회 정회원인 지은환 지휘자는 전시회를 연 뒤 수익금 전액을 장학금과 양양중고 사이클부에 후원했고, 초등학교생들을 대상으로 미술 재능기부도 하는 등 지역을 위한 공익활동을 활발하게 펼쳐왔다. 그는 한국합창총연합회 합창심포지엄을 수료하고 캐나다 크리스찬음악대학에서 지휘 석·박사과정을 졸업했으며, 강릉·삼척시립합창단과 성가대 등을 중심으로 한 12명의 수준급 합창단을 구성해 지휘자로

도 활약한 바 있다.

“사람마다 다른 고유의 목소리가 합창을 통해 어우러져 천상의 소리가 됩니다. 다양한 단원들이 참여하는 600합창단이 화합을 넘어 새로운 양양 100년을 감성으로 전하는 메신저 역할을 톡톡히 해내도록 열과 성을 다하겠습니다. 군민 여러분들과 함께 만들어가겠습니다.”

지난 2015년 양양정명 600주년을 1년 앞두고 창단한 '600합창단'은 단원 각자의 개성과 소통을 중시하는 지은환 지휘자가 지휘봉을 잡으면서 코로나19로 지친 지역주민들에게 청량제 같은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600합창단이 지은환 지휘자님과 함께 새로운 양양시대의 서막을 잘 열어 군민들에게 코로나19 속에서도 행복감을 전할 수 있기를 진심으로 응원한다”고 말했다.



지은환 지휘자

## 2021년 제43회 양양문화제의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 봉행

유교신문 / 2021.6.16. / 전남표 기자

양양향교(김경일 전교)는 강원도 양양군 양양읍 서문리에 위치한 고치물 샘터와 성황사(城隍祠)에서 지난 6월15일 오후 4시 제43회 양양문화제(위원장 윤여준 양양문화원 원장, 양양향교 원로장의)의 서막을 알리는 제례(祭禮)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城隍祭)를 봉행했다.

이날 행사에는 김진하 양양군수,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 윤여준 양양문화제 위원장, 양양향교 김경일 전교, 성균관유도회 양양군지부 최중학 회장, 성균관여성유도회 양양군지부 김형자 회장, 양양군의회 의원, 양양군청 관계자, 양양문화원 관계자, 관내 기관 단체장, 양양향교 장의 및 양양 속초지역 유림 등 70여명이 참석했다.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의 헌관에는 초헌관 김진하 양양군수, 아헌관 윤여준 양양문화제 위원장, 종헌관 김의성 양양군의회 의장이 맡았으며, 제집사는 집례 김기송 양양향교 의전장의(성균관 전학), 대축 김종구 양양향교 재무장의(성균관 전학), 알자 김덕주 양양향교 장의, 찬인 노이준 양양향교 장의, 봉향 이



상군 양양향교 감사, 봉로 진중호 양양향교 선전장의, 전사관 이흥수 양양향교 조직장의(성군관 전학)가 맡아 복무했다.

고치물제는 헌관 김진하 양양군수가 분향하고 무축(無祝) 단장(單盞)을 올렸다.

고치물제 제례에 앞서 양양읍 농악보존회에서 양양문화제의 서막을 알리는 신명나는 농악 가락의 시연이 있었다.

이어 성황사에서 성황제가 봉행됐다. 집례 김기송 양양향교 장의(성군관 전학)의 창출에 따라 진행된 제례는 헌관 및 제집사 분방에 이어 ▶초헌관 점시 ▶초헌례 ▶아헌례 ▶중헌례 ▶음복례 ▶철변두 ▶망료례 순으로 전통 유교식으로 봉행했다.

강원도 양양 지역은 삼국시대부터 많은 전란을 겪게 됨에 따라 고려 목종 10년(1007년)에 현재 양양읍 성내(城內)리를 중심으로 양주성(襄州城)을 축성해 외적의 침입을 방어했고 성내에 성황사를 건립해 외적을 방어하다 희생된 영령(英靈)을 위무(慰撫)하여 국태민안과 풍농, 풍어를 기원하기 위해 매년 봄과 가을에 성황제례(城隍祭禮)를 봉행하는 관습이 전래됐다.

1592년 임진왜란 이후부터는 매년 5월5일 단오에 성황지신(城隍地神)을 수호신(守護神)으로 모시고 성황제례를 성대하게 봉행했다.

성황제례에 사용되는 제수(祭需)는 고치물로만 사용하였고 제주(祭主)도 고치물만 마시는 등 신성시하여 고치물 샘터에는 경비병 2명이 상시 지키고 있었다고 전해 내려오고 있다. 성황사는 일제 강점기 우리문화 말살 정책에 의해 철폐되기도 했으나, 1920년대부터 단양회(丹陽會)라는 단체가 구성돼 단오절(端午節)을 기하여 대제전(大祭典)으로 발전해 성황제를 크게 봉행했고, 남대천 둔치에서 별신굿과 민속행사와 관동 축구대회를 개최하는 등 천년의 역사 속에서 양양의 정신적 지주 역할을 했다. 그 후 6·25 한국전쟁으로 소실됐다가 1967년 군민의 성미(誠米)로 재건했으나 규모가 협소하고 노후화돼 1990년 현재의 건물로 중건해 1979년부터 현산문화제로 이어오다 2016년부터 오늘날의 양양문화제로 발전했다

양양문화제의 제례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를 먼저 봉행하고 남대천 둔치와 종합운동장에서 군민 체육대회와 다양한 민속행사를 개최하고 있다.

양양 성황사는 「신증동국여지승람」과 「사묘(祠廟)」에 "성황사는 성안에 있다"라고 기록돼 있다.

강원도 양양군은 제42회 양양문화제를 성대하게 개최하려고 했으나 코로나19로 인해 불가피하게 제례 행사인 고치물제와 성황제만 봉행하고 다른 행사는 모두 취소했다. 2022년 제44회 양양문화제는 코로나19가 종식돼 성대하고 알찬 제례 행사와 민속행사, 군민화합 체육대회가 개최되기를 희망해 본다.

양양문화제의 고치물제와 성황제는 양양군의 지원으로 매년 양양향교에서 봉행을 주관하고 있다.

## 홍천문화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 최우수상

강원도민일보 / 2021.06.25. / 김진형 기자

패석리 4사자삼층석탑 논문 선정

홍천문화원이 제31회 강원도 향토문화연구발표대회에서 홍천 패석리 4사자삼층석탑 관련 논문으로 최우수상을 수상했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와 강원연구원 강원학연구센터가 24일 원주 문화원에서 공동개최한 이번 대회에서 홍천문화원은 동언우 연구자의 논문 '홍천 패석리 4사자삼층석탑에 관한 연구'를 발표, 최우수상에 선정돼 200만원의 상금을 받았다.

16곳의 강원지역 문화원이 향토문화 관련 연구성과를 보고한 이번 대회에서 특별상은 양구문화원에게 돌아갔다.

우수상은 춘천문화원, 장려상은 철원문화원·고성문화원에게 돌아갔다. 원주·속초·동해·태백·삼척·횡성·영월·평창·정선·인제·양양문화원은 노력상을 받았다.

## 양양서 조선시대 5번째 금표 발견...학계 비상한 관심

현남면 상월천리 수해복구 공사현장 바위에 새겨져/ '군사훈련장 경계' '금강송 보호 목적' 다



## 양한 설 제기 /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현장 조사...보존대책 시급

설악신문 / 2021.06.28. / 김주현 기자

최근 양양에서 조선시대에 새겼을 것으로 추정되는 5번째 금표(禁標)가 발견돼 학계의 비상한 관심을 모으고 있다.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에 따르면 지난 9일 오후 2시 지역주민 오봉현 씨가 양양군 현남면 상월천리 인근의 수해복구공사 현장 바위에서 금표를 발견했다고 알려졌다. 이에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원의 이종우·이규환·김재환·박상형 위원이 현지를 답사한 데 이어 지난 12일과 17일 두 차례에 걸쳐 학계 전문가들과 현장을 방문해 양각화로 새겨진 글씨의 탁본을 뜨고 사료 연구에 들어갔다.

금표는 금지나 경고 등을 나타낸 표지를 일컫는 말로, 양양에서는 과거 현북면 장리를 시작으로 원일전리, 어성전리, 법수치리에 이어 이번 상월천리까지 5번째로 발견됐다.

양양문화원은 학계와 함께 이번에 발견한 금표에 대한 역사적 가치 고증과 학술적 연구에 들어간 가운데 지역문화유산을 넘어 귀중한 사료로서 정부차원에서 보존 대책이 마련되기를 희망하고 있다.

양양문화원과 부설 향토사연구소는 지난 2013년부터 지역에 남아 있는 금표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하는 과정에서 4곳의 금표와 2곳의 교계를 발견하고 학술토론회를 거쳐 소중한 지역문화유산 가치를 밝혀내는 성과를 거두기도 했다.

현북면 장리 노루골 소하천 상류와 연화동 바위에 각자된 '교계'는 과거 양양군이 가장 번성했던 양주도호부의 군사훈련장 입구에 민간인 출입을 통제하는 경계선을 표시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번에 현남면 상월천리에서 금표가 다시 발견되면서 당시 군사훈련장의 규모가 추정보다 더 컸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반면, 경복궁 대들보로 진상되던 양양산 금강송의 무분별한 벌채를 막기 위해 표시했다는 주장도 설득력을 얻고 있다.

이와 관련, 양양에는 과거 조선시대 경복궁에 진상하기 위해 찾은 빼어난 금강송이 양양군과 명주군 경계에 쓰러져 지역구분이 어렵게 되자, 양양의 탁장사와 강릉의 권장사가 힘겨루기를 한 결과 탁장사가 이겨 이때부터 양양 금강송을 경복궁 보수 등에 진상했다는 기록이 전해지고 있다. 이에 매년 양양문화제에서는 탁장사의 놀라운 힘을 재현하는 탁장사 놀이가 전래민속놀이로 이어지고 있고, 실제 양양군 서면 송천리에는 탁장사의 주인공인 탁구삼 후손들이 집성촌을 이루며 살고 있다.

지역의 향토사학계는 조선시대 실제 인물인 탁구삼 장사는 금강

송을 비롯해 울창한 나무가 집단을 이루고 있는 현북면 어성전 주변에서 나무를 해 양양읍에 내다 팔았다고 전해지고 있어, 궁궐에 진상하던 금강송을 벌채하지 못하도록 금지표시를 했을 수도 있다는 가설도 제기하고 있다.

양양문화원과 부설 향토사연구원은 이번에 발견한 5번째 금표는 군사훈련으로 사냥하던 장소인 교령장 주변에 위치해 군사훈련장과의 연관성이 큰 것으로 추정되지만, 현북면 어성전리에 위치한 양양국유림관리소의 지난 9일 양양 현남면 상월천리 수해복구 공사현장 바위에서 발견한 금표 있음에 비취 황장금표(黃腸禁標)역 할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양문화원 향토사연구원 관계자는 "이번에 발견된 금표는 당시의 군사 규모는 물론 그 지역의 특산물인 금강송과 관련한 것으로도 추정할 수 있는 중요한 사료"라고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조선시대 금표는 국내 여러 곳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견되고 있지만 주변의 교계와 함께 잇따라 발견된 것은 역사적 가치와 희소성이 크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보다 체계적인 연구와 학술적 가치에 대한 고증을 위해 정부 차원에서 적극적인 보존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향토사학계는 그동안 양양에서 잇따라 발견된 금표와 교계에 대한 관리가 소홀해 유실되고 있다며 체계적인 관리대책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지난 9일 양양 현남면 상월천리 수해복구 공사현장 바위에서 발견한 금표 있음에 비취 황장금표(黃腸禁標)역 할도 했을 수 있다고 보고 있다.



양양문화원 부설 향토사연구원 위원들과 학계 연구자들이 지난 9일 발견된 현남면 상월천리 금표의 탁본을 뜬 후 기념사진을 촬영했다



##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양양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강원 위클리 오늘 / 2021.09.10. / 박종미 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 · 양양문화원 업무협약 체결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와 양양문화원이 9월 10일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양양문화원은 향토문화 창달 기관으로서 지역의 역사 및 문화 발전 향상을 도모하고 있으며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지속가능한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지역사회의 다양한 기관과 협력하고 있다.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두 기관은 지역의 역사·문화 발전과 공헌의 가치를 실현하고 도시재생사업 활성화를 위해 다양한 인적 자원교류 등 상호 적극적인 협력을 약속했다.

## 양양문화원 · 도시재생지원센터 업무협약식

강원도민일보 / 2021.09.12. / 최훈 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센터장 안선민)와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최근 문화원에서 다양한 인적 자원교류를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 양양 도시재생지원센터, 2021년 도시재생대학 운영

설악뉴스 / 2021.09.28. / 송준헌 기자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가 관내 주민을 대상으로 '2021년 도시재생대학'을 운영한다.

도시재생뉴딜사업은 공모를 통하여 사업대상 시군이 선정되는데, 여러 평가항목 중 지역공동체 협력기반 구축을 위한 도시재생대학 운영이 필수항목이다.

'2021년 도시재생대학'은 오는 10월 6일부터 11월 17일까지 매주 수요일, 주1회씩 총 8주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과 양양읍 남문리 도시재생마을연구소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도시재생대학 교육과정은 도시재생 주민공모사업을 비롯한 주민협의체 활동, 현안과제 발굴과 대안설정 등으로 도시재생 뉴딜사업 분야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와 지식을 함양하기 위한 커리큘럼으로 구성돼 있다.

한편, 양양군 도시재생지원센터는 올해 3월 개소하여 지난 7월에는 주민 보행 안전을 위한 커뮤니티 매핑 "양양 안전지도"를 제작하여 눈길을 끌었다. 또한 최근에는 연세대 원주 LINC+사업단, 양양문화원과 양양군도시재생을 위한 업무협약을 잇따라 체결하는 등 뉴딜공모사업 준비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 가을정취 선사

11월 3일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양양문화원 9개 동아리 참여

설악신문 / 2021.10.25. / 김주현 기자

"깊어가는 가을, 남대천을 바라보며 안전하게 문화공연 즐기세요."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이 오는 11월 3일 남대천 르네상스 거점인 웰컴센터 야외 공연장에서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을 열어 주민들과 관광객들에게 깊어가는 가을 정취를 선사한다.



‘문화는 항상 내 곁에’를 주제로 열리는 이번 문화공연은 오후 5시 30분 태평소 공연이 식전 무대로 막을 열고, 1부 공연에서는 사물놀이와 민요, 통기타, 대금 등 전통과 현대가 어우러지는 조화로운 무대가 이어진다. 이어 2부 공연에서는 색소폰과 난타, 전통무용 공연과 함께 전문 지휘자인 지은환 단장이 이끄는 600합창단이 양양군민과 양양군의 화합 및 발전을 기원하는 합창공연으로 대단원의 막을 내린다.

양양문화원이 주최하고 양양군·양양군의회·양양새마을금고가 후원하는 이번 문화공연은 양양문화원이 올해 운영한 문화학교 교실 팀원들이 중심이 돼 마련했다.

양양문화원은 지난 3월부터 난타, 민요, 사물놀이, 통기타, 색소폰, 합창단, 태평소, 전통무용, 대금 등 9개 문화 교실을 운영하고 있으며, 수강생들이 이번 문화공연에서 그동안 갈고 닦은 실력을 유감없이 발휘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코로나19 장기화로 문화활동도 어려움이 큰 가운데서도 깊어가는 가을을 맞아 문화교실 회원들이 군민들을 위해 공연을 준비한 만큼, 많은 관심과 격려를 기대한다”며 “위드 코로나에 발맞춰 앞으로도 다양한 장르의 문화 활성화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600합창단이 지은환 지휘자의 지휘에 맞춰 공연 연습에 한창이다

## 양양 가을 문화행사 풍성

강원일보 / 2021.11.03 / 이규호 기자

오늘 문화학교 수강생 공연  
내일 국악 활성화 공연 열려

코로나19 상황 속에서 일상생활 회복이 시작되며 양양지역의 가을 문화행사도 풍성해졌다.

양양문화원은 3일 오후 5시30분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에서 양양문화원 문화학교 수강생들이 참여하는 ‘제4회 가을밤의 문화공연’을 진행한다.

이날 공연에 참여하는 문화학교 동아리는 난타, 통기타, 색소폰, 전통무용, 600합창단 등 총 9개 프로그램을 진행한다.

같은 날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는 제14회 양양국회협회 정기발표회가 열린다. 또 4일 오후 3시 웰컴센터 야외공연장에서는 국악협회 강원도지회 의 국악 활성화 공연이 펼쳐진다. 방방곡곡 문화공감 재즈파크빅밴드 ‘with JK김동욱, 웅산’ 공연이 12일 오후 7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 진행된다.

이번 공연은 일상에 지친 나를 위한 힐링이 주제다.

19일 오후 2시 문화복지회관 공연장에서는 양양예총 ‘2021년 양양사랑콘서트’가 열려 가을 감성을 전한다.

22일부터 26일까지 문화복지회관 전시실에서는 청소년미술작품 40여점을 전시해 군민들에게 힐링의 시간을 제공할 계획이다.

##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개최

설악뉴스 / 2021.11.08. / 송준현 기자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1466년) 윤 3월14일 순행일지에 왕이 명하여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를 잘하여 아침저녁을 먹고 ‘악공(樂工)의 예’로 수가(隨駕)하게 하고 또 유의1령을 내려 주었다고 기록됨에 따라 양양문화원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전·전승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이번 경창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지만 일반부 단체와 개인, 학생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를 전국에서 참여한 40개 단체가 실력을 겨룬다.

9일 예선과 10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우수·장려 4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우수·장려 4팀, 학생부 최우수·우수·장려 4팀, 동구리 소리상 7팀 등 총 2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10일 본선 경연에서는 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국악인 유지숙, 김유리, 류지선, 성슬기, 최수안, 김소희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가기로 했다.

한편,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정이 담긴 농가·어가·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전송하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24개 단체, 1,211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 양양군,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경창대회 개최 일반부 단체 및 개인, 학생부 등 40개 팀 참여

프레시안 / 2021.11.08. / 이상훈 기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는 오는 9일부터 10일까지 이틀간 양양군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개최된다고 8일 밝혔다.

'동구리 경창대회'는 조선왕조실록 중 세조실록 권38, 세조12년(1466년) 윤 3월14일 순행일지에 왕이 명하여 장막 안에서 노래를 하게 하였는데 양양의 관노 동구리(同仇里)란 자가 가장 노래를 잘하여 아침저녁을 먹이고 '악공(樂工)의 예'로 수가(隨駕)하게 하고 또 유익1령을 내려 주었다고 기록됨에 따라 양양문화원은 역사적 사실을 근거로 대우받은 양양지역의 소리꾼 동구리를 기리고, 우리 음악을 보존·전송하기 위해 지난 2001년부터 개최해온 전통민요 경창대회이다.

이번 경창대회에서는 코로나로 인해 참여가 저조하지만 일반부 단체와 개인, 학생부의 소리꾼이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를 전국에서 참여한 40개 단체가 실력을 겨룬다.

9일 예선과 10일 본선을 통해 통합대상 1팀과 일반부 단체 최우수, 우수, 장려 4팀, 일반부 개인 최우수, 우수, 장려 4팀, 학생부 최우수, 우수, 장려 4팀, 동구리 소리상 7팀 등 총 20팀을 시상할 예정이다.

10일 본선 경연에서는 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국악인 유지숙, 김유리, 류지선, 성슬기, 최수안, 김소희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또 경연에 앞서 세조대왕의 행차를 복원·재현하는 행사를 거행하는 등 이색적인 볼거리를 제공해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의 역사적 유래를 알려 나가기로 했다.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은 "대중적 명창보다는 전국 곳곳에 산재한 진정한 소리꾼을 발굴하는 행사로 동구리 경창대회를 진행한다"며 "이번 경창대회를 통해 국악 인재를 발굴하고, 지역의 문화콘텐츠로 확대·발전시켜 나가겠다"고 말했다.

한편, 동구리 경창대회는 지난 20년 동안 우리 조상들의 생활감정이 담긴 농가·어가·노동요 등 민족의 소리를 보존·전송하는 데 일조해 왔다.

특히, 도 단위 대회로 개최하기 시작한 2011년부터 지난해까지는 324개 단체, 1211명의 소리꾼이 참가하는 등 민요의 저변 확대에 크게 기여해 왔다는 평가다.

## 오늘 양양서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

강원일보 / 2021.11.9. / 이규호 기자

'제11회 전국 동구리 전통민요 경창대회'가 9일과 10일 이틀간 양양군문화복지회관에서 개최된다. 이번 대회에서는 일반부 단체와 개인, 학생부의 40개 단체가 참여해 농요와 노동요, 어요 등 전통민요(신민요 제외) 부문에서 실력을 겨룬다. 9일 예선과 10일 본선을 통해 수상자를 결정한다. 10일 본선 경연에서는 여울소리민요단, 한가람풍물패, 국악인 유지숙, 김유리, 류지선 등이 초청공연을 펼친다.

## "지역문화 네트워크 구축 통해 상생발전 이어 나가자"

강원일보 / 2021.11.26. / 김수빈 기자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성군이 주관한 '2021 강원



문화 대축전 in 고성'이 25일 고성실내체육관에서 열려 지역 문화유공자에 대한 시상과 특별 공연들을 실시했다.



2021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  
유공자 표창·공연·전시 이어져

강원문화의 저변을 확대하고 각 지방문화원의 상생발전을 도모하는 축제가 펼쳐졌다.

강원도문화원연합회가 주최하고 고성문화원이 주관한 '2021 강원문화 대축전 in 고성'이 25일 고성실내체육관에서 막을 올렸다. '문화를 두손팸! 강원을 품안팸!'을 슬로건으로 내건 축제는 지역 문화네트워크를 구축하고 지역 간의 교류협력방안을 모색하는 다양한 프로그램으로 꾸며졌다.

이날 개막행사에서는 올 한 해 강원문화 발전에 기여한 문화유공자 45명에 대해 시상이 이뤄졌다. 이옥환 평창문화원장과 윤여준 양양문화원장이 지방문화원의 날을 맞아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이은주 춘천문화원 강사 등 18명이 도지사 표창을 각각 받았다.

축제는 고성문화원 소속 '아리아리예술단'이 식전 축하공연으로 문을 열고 '제26회 강원도 사물놀이 경연대회'에서 대상을 차지한 평창문화원 소속 '터 울림픽 평창'이 열기를 이어 갔다. 강릉문화원의 '솔향기타'팀을 시작으로 총 8개팀이 무대에 올라 향토 문화공연을 선보여 흥을 돋웠다.

이와 함께 속초의 골목길 풍경과 양구의 자연환경 등을 담은 회화 작품과 인재의 옛 문화를 담은 목공예 작품 등 설악권 문화연합의 특별 기획전시가 마련됐다. 또 고성문화원의 오랜 역사를 드러내는 아카이브전시도 이번 축제의 깊이를 더했다.

이날 문화대축전에서는 도문화원연합회의 미래비전을 담은 새로운 CI도 공개됐다. 설립 32주년을 맞아 발표한 CI는 문화를 통해 소통과 화합을 그리는 문화인을 형상화했다.

류중수 연합회장은 "광역 문화단체로서 지역문화원 지원 육성과

문화활동 플랫폼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고, 다양한 프로그램을 적극 펼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 양양군, 연말 가족과 함께 즐길거리·볼거리 '각양각색'

프레시안 / 2021.12.3. / 이상훈 기자  
문화원·예총, 지역주민 위한 다채로운 공연·전시 펼쳐

강원 양양군(군수 김진하)은 양양문화원과 (사)한국예총 양양지회가 연말을 맞아 주민의 일상에 문화예술 향기를 입히는 다양한 문화예술 행사를 개최한다고 3일 밝혔다.

양양문화원에서는 군민들의 문화갈증 해소를 위해 매년 문화학교를 운영하고 있다. 이를 통해 배우고 익힌 문화학교 수강생들의 작품을 오는 7일부터 9일까지 3일간 양양문화원 1층 전시실에서 선보인다.

또 (사)한국예총 양양지회는 오는 18일 문화복지회관에서 제14회 송년음악회를 개최한다.

이날 공연에는 브라스퀸텟소(관5중주), 600합창단, 수양상블, 원기타듀오 등 우리지역에서 활동하는 음악인들 상호 간의 화합의 장을 만들어 군민들에게 아름다운 선율을 선물할 예정이다.

이어 22일에는 저녁 6시부터는 '2021 예술인 페스티벌' 행사가 문화복지회관 2층 공연장에서 개최된다.

이번 행사에서는 '화(畵)사(寫)한 시(詩)전'이라는 주제로 미술, 사진 등 다양한 콜라보 작품들을 선보인다. 또 국악협회의 사물놀이 공연, 문인협회의 시낭송, 사진작가협회의 테마 사진 영상 상영회, 미술협회의 즉석 그림 시전 등 다양한 볼거리를 취향에 따라 즐길 수 있다.

이와 함께 미술협회 자선소품전이 오는 22일부터 27일까지 문화복지회관 1층 전시실에서 열린다.

또한 28일 저녁 6시에는 문인협회 양양문화지 발간 및 문화축제가 문화복지회관 2층 소강당에서 열린다. 양양향토예술 문화의 성과를 평가하고 상호간 예술문화 정보를 교류하는 시간을 가질 예정이다

양양군 관계자는 "가족과 함께 즐길 수 있는 문화공연과 전시회를 통해 풍요롭고 따뜻한 연말의 뜻깊은 시간을 누리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양양문화원,문화학교 수료식과 졸업작품 발표회

설악뉴스 / 2021.12.7. / 설악news 기자



양양문화원(원장 윤여준)은 7일 문화학교 수료식과 졸업생들의 졸업작품 발표회를 개최했다.

## 편/집/후/기

“2022년 임인년(壬寅年) 새해에 일출을 바라보며...”

존경하는 문화원 회원 여러분! 사회적 거리두기를 완화하고 일상 회복을 위해 여러 분야에서 노력하고 있지만 어려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사회적 거리두기를 몸소 실천하며 어려운 상황을 잘 이겨내시길 바랍니다.

2021년에는 임·직원 모두가 코로나19의 어려운 상황임에도 문화학교운영, 선진지견학, 전국한시백일장, 전국동구리전통민요경창대회, 문화공연, 양양 3·1만세운동 연극 등 대금강좌를 비롯한 양양문화제 제례봉행을 진행하며 감염자 발생이 염려되어 가슴 조이며 한 해를 보냈습니다

모든 행사에 철저한 방역 활동을 하며 코로나19 바이러스 감염병 확산을 막기 위해 수강생 및 행사 참여자들의 안전에 최선을 다한 결과 감염자 발생 없이 무사히 모든 행사를 마무리하였습니다.

그리고 지역문화 진흥과 문화발전에 기여한 공로를 인정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 표창을 문화원장님께서 수상받았습니다. 축하드립니다.

새해에는 양양군민들의 화합과 소통을 바탕으로 행복한 문화생활을 위한 토대를 마련하고 향토문화 발전을 위해 문화원 회원분들께서 주역이 되기를 바랍니다.

끝으로, 지난 한 해 동안 베풀어주신 은혜 감사합니다. 2022년 새해에는 모든 분들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함께 하시길 바랍니다.

양양문화원 사무국장 김진하



## 양양문화 제33호

2021年 12月 29日 印刷

2021年 12月 30日 發行

발행인 : 윤 여 준

편집인 : 김 진 하

발행처 : 襄陽文化院

인쇄처 : 대양프리컴





대한불교조계종

# 꿈이 이루어지는 낙산사

낙산사 대중일동



## 무산사(양양포교당)

낙산유치원	강원파라미타청소년협회
낙산사 템플스테이	낙산사 불교대학
낙산사 불자마을(용호리, 낙산, 사천리, 손양면)	

## 무산복지재단

낙산요양원	노인복지센터
양양군노인복지관	의상도서관
무산지역아동센터	1318무산지역아동센터
양양군건강가정다문화가족지원센터	